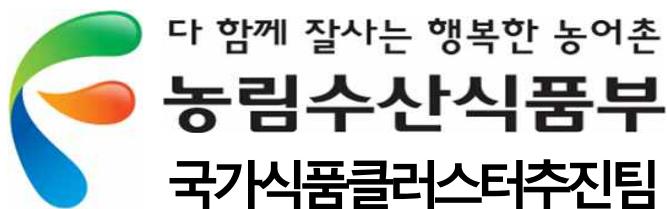

국가식품클러스터(푸드폴리스) 종합계획(안)

- Master Plan -

2012. 7

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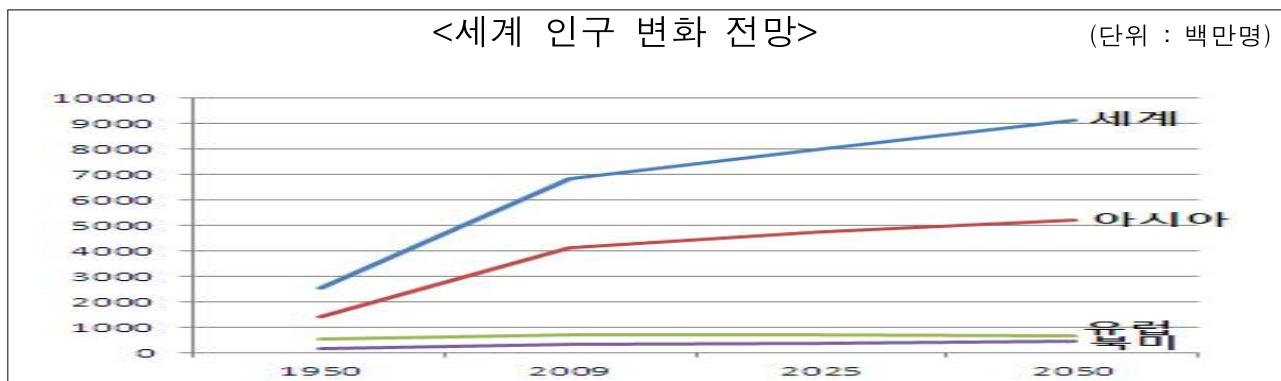
I.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배경	1
II.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개요	15
III. 기본방향 및 비전	25
IV. 종합계획 주요내용	33
1. 기업하기 좋은 식품클러스터 인프라 조성	35
2. 기업 혁신(이노베이션) 지원시설 구축	91
3. 고부가식품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	121
4. 식품 수출기지화 및 농어업 동반성장	139
5. 식품기업 인력 공급 및 역량 강화	165
6. 투자유치 및 홍보	177
7. 식품산업단지 확대(중장기발전) 방안	213
V.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	227
VI.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	241
<참고>	254

I .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배경

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배경

가. 식품산업의 특징

- (인구, Population) 세계인구의 지속적 증가는 식품 수요증가를 유발
 - '09년 68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'25년에 80억 명, '50년에는 91억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(UN 인구전망 '09)
 - 인구증가와 함께 고령인구(65세 이상)의 비중도 증가('10년 7.6%→'25년 16.2)
 -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농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가져오고, 고령화 추세는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



- (건강, Healthy)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을 생산, 소득수준 향상과 연계
 - 소득수준 향상으로 고품질화·웰빙이 중요 요소로 R&D 투자 강조
 - 웰빙·바이오식품 등 High Tech 기술이 결합된 식품(융합식품) 개발이 강조되는 등 건강·미용·의료식품(맞춤형 식품)까지 영역 확대
 - 식품은 원료에서 식탁까지 안전성이 중요, Food-Chain 관리 필수
- (지역, Regional) '지역성'이 강한 산업이나, 자국음식의 세계화 추세 증가
 - 세계화의 영향 등으로 지역식품·음식의 세계시장 진출 활발
- (농어업, Agriculture) 농어업과 강한 연계성으로 동반성장 가능
 - 고부가가치화는 농어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1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

나. 국내외 식품시장 동향

< 세계 식품시장 >

□ 세계 식품시장은 2020년 6.4조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

- 식품산업 규모는 자동차(1.6조\$)·IT시장(3.5)보다 2~3배 큰 규모로 선진국에서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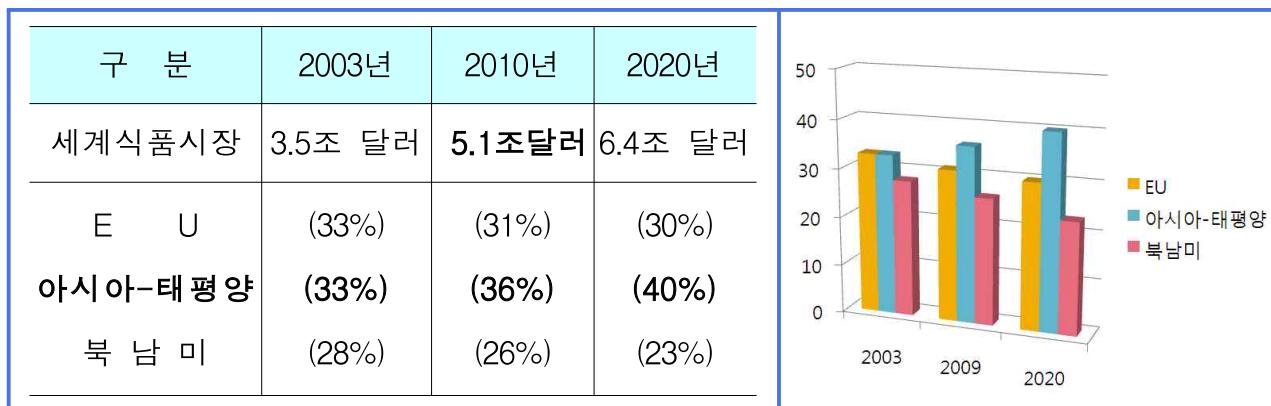
-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과감한 R&D투자*, 유통네트워크, 브랜드 파워 등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공략 중

* Nestle(매출액의 1.6%인 9.6억유로를 R&D에 투자), 아지노모토(2.6%), Unilever(2.4%) 등

□ 향후에는 동북아 식품시장이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 예상

-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식품시장의 중심이 아시아-태평양 쪽으로 이동하여 세계 식품시장의 40%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

<세계 식품 시장 규모>



(출처 : International Data Group('05)추정치, Datamonitor ('11)자료)

□ 식품 선진국은 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

- 네덜란드는 푸드밸리, 덴마크·스웨덴은 외레순, 미국은 나파밸리 등 식품선진국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에 주력

* 네덜란드의 Food Valley는 연 650억\$ 매출의 세계적 식품클러스터

- 70여개 글로벌 식품기업, 20여개 식품연구소, 1,000여개 연관업체 등 입주

< 국내 식품시장 >

- 국내 식품시장도 지속 성장하나, 산업구조는 취약
 - 국내식품시장 규모('10)는 **142조 원**(제조 75조, 외식67조)규모
 - 식품제조업체 중 5인 미만 고용업체가 **85%** 차지('09통계청)
- 국내 식품산업은 영세성, R&D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취약
 - 국내 1위 기업(CJ제일제당) 매출액은 약 **4조 원**으로 글로벌 1위 식품기업(네슬레) 매출액 **130조 원**의 **1/30**수준에 머무는 실정
 -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식품업체는 농심, SPC 등 15개에 불과('10)
 - 식품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**30%~65% 수준**이나,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은 0.57%('09년 통계청)로 선진국(1.6~2.6%)의 **1/4**수준
 - 지역브랜드화, 중소형클러스터 구축은 활발하나, 기능성·바이오 등 새로운 전략식품에 대한 투자 부족 등 성장기반 취약
- 식품산업 활동 주체간 네트워크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미흡
 - 식품 연구기관과 대학, 식품기업이 집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,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각 주체간 협력 활동 미흡

주요 식품기업	공공식품 연구기관	민간연구소	대학 <small>* 식품관련학과</small>	연구소
39	22	49	26	9

* 식품기업(300인 이상)수는 통계청 기준

- 식품연구소간, 연구소·대학과 기업간 원활한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는 ‘코디네이터’가 부재

* 네덜란드 푸드밸리재단의 코디네이터 역할로 네트워크 연구 활발

다. 조성 필요성

□ 세계인구와 소득증가에 따른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

- 인도·아프리카 등 신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인구증가에 따른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한 식품영토 확장 필요
- 특히,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웰빙·다이어트, 건강 관련 식품 등 새로 창출되는 식품시장 선점
 -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R&D 기능과 생산기능(기업) 결합 필요

□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에 선제적 대응 필요

- 15억 인구를 가진 동북아 시장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주변국가와의 식문화 유사성 등을 활용하여 식품강국으로 도약 가능
 - 한류 열풍을 활용, 식품산업과 문화를 수출하는 거점 구축
- 동북아 및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시장 전초기지* 역할 필요
 - * 비행거리 2시간대에 인구 100만 도시 60여개 존재
 - FTA 등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으로 해외 식품시장 진출 유리

(‘11. 12월 말 현재)

계	발효	협상중	협상준비
27건, 80개국	8건, 45개국	7건, 12개국	12건, 23개국

□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어업 성장을 견인 필요

- 농어업 연계 발전 효과*가 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가단위의 식품클러스터 육성 필요

* 식품제조업의 농어업 연계 생산유발효과 34%('08년 한국은행)

<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효과 >



- 우리나라는 쌀, 인삼, 과일 등의 산업화 원료가 풍부, R&D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 될 경우 세계적 스타 상품 탄생도 가능
- 식품 영토의 확장과 제조현장 견학, 체험·전시 등 농식품과 관광 산업이 결합(6차 산업화)하여 ‘미래의 國富’ 창출에 기여



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· 연구소 등을 집적화 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



② 식품클러스터 해외사례

가. 네덜란드 푸드밸리(Food Valley)

- ◆ 와게닝겐 대학연구소를 중심, 1,440여개 식품기업·연구소 연관업체 참여
- ◆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, 시너지 효과 창출

□ 일반현황

○ 설립경과

- 전통적으로 농·축산업이 발달한 와게닝겐 지역에 1918년 고등농업학교를 설립, 1998년 와게닝겐 농업대학으로 발전
 - * 네덜란드의 경우 살아남기 위해 함께 둑을 쌓아온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와 협업문화가 기반
- 1948년 낙농업연구소(NIZO 연구소 전신), 설립, 1960년부터 각종 식품업체들이 입지
- 1997년 와게닝겐 대학 주도의 '생명과 도시' 프로젝트 시작
- 2001년 식품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(Food Valley 공식사용)
- 2003년 와게닝겐 식품클러스터 시작으로 2004년 푸드밸리 재단 설립



○ 위치 :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85Km 인근 와게닝겐

- 유럽의 주요 항구인 로테르담과 연결되어 있어 수상교통과 도로·철도·항공을 편리하게 이용

○ 규모 : 와게닝겐 주변 반경 30Km

○ 입주기업 : 1,440여개

- 70여개 주요 식품기업, 20여개 연구소, 1,000여개개 연관업체 입주
- 대표기업 : 네슬레, 다논, 유니레버, 하인즈, NIZO 연구소 등

○ 경제효과(네덜란드 전체) : 매출 650억\$(480억 유로), 수출 325억\$ 고용 70만명(직간접 포함)

□ 운영시스템(푸드밸리 재단)

- (개요) 지자체, 동네델란드지역개발청, 와게닝겐대학 등 9개 기관 공동출자하여 직원 15명의 ‘푸드밸리 재단’을 설립(‘03)
- (운영) 입주기업 회비, 연구프로젝트 예산, 국가 및 EU 집행위원회 예산
 - 국가에서 지역사업 지원정책을 푸드밸리 재단을 통해 사업진행
- (역할) 대학·연구소와 업체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다양한 요구를 조정·해결해 주는 ‘코디네이터’ 역할 수행

□ 주요특징

- 대학·연구소 중심의 공동 R&D 협력 네트워크로 기술발전 촉진
-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지원, 활발한 연구용역등으로 세계적 고급인력 유입
 - 15천명 연구개발 인력 중 1,200명이 박사 학위자, 이중 40%가 외국인
- ‘미래식당*’ 운영으로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연구 및 관광 상품화
 - * 소비자의 행동, 음식선택 성향, 제품의 디자인과 진열, 조명, 식사 동선의 흐름, 맛, 포장 등의 영향에 대한 연구 가능
 - WUR(연구), Sodexho(요리), Noldus(소프트웨어), KimpriGroup(주방설비) 등 4개 업체가 연합하여 설립, 현재 45개업체가 참여
- 기업규모별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를 형성, 학습 및 지식 창출

< 주요 연구기관 및 연구 네트워크 >

- 주요 연구기관
 - 와게닝겐 대학·연구센터(WURC, 1988)
 - 와게닝겐 대학, DLO(농업연구청), 농업·농촌고등교육기관이 통합
 - NIZO 연구소(NIZO Food Research)
 - 연구소 수입의 60%는 외국업체와 연구체결에 의해 형성, 200여개 연구실 운영
 - TNO 연구소 : 약 5,000여명 인력이 근무, 혁신적 식품개발
- 주요 연구네트워크
 - TIFN : 정부·연구기관,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, 대기업 제안 연구수행
 - FND : 중소규모 기업을 위한 연구 컨소시엄

나. 덴마크 · 스웨덴 외레순(Oresund Cluster)

- ◆ 룬트대학 등을 중심으로 네슬레, 유니레버 등 1,000여개 기업 입주

□ 일반현황

○ 설립경과

- 1980년대 정부 주도로 지역식품개발 연구 프로젝트 시작
- 1989년 '전략 1992 Network Plan' 시작(덴마크)
- 2000년 외레순 대교 개통으로 덴마크-스웨덴간 협력사업 진행, 클러스터 발전에 기여



○ 위치 : 덴마크 코펜하겐, 스웨덴 스케오네 서부 말뫼지역 약 21,203km²

- 외레순 지역은 덴마크와 스웨덴을 분리하는 자연경계로, 북해와 발트해를 연결하는 외레순 해협에서 유래

○ 입주기업 : 1,000여개, 외레순대학(14개 대학 컨소시엄) 등

- 대표기업으로는 네슬레, 알라, 데트라팩, 크라운, 칼스버그 등

○ 경제효과 : 매출 980억\$(750억 유로), 수출 336억\$, 고용 22만명(직·간접)

□ 운영시스템(외레순 과학기술협의회, OSR)

○ (개요) 외레순 지역의 대학, 연구소, 지식기반산업, 공공기관을 총괄한 네트워크 조직(2002)

- 고급인력과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12대학과 6개 사어언스 파크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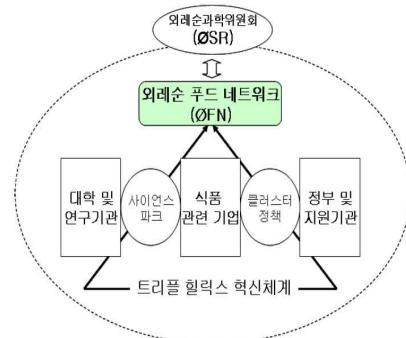
○ (운영) 지역대학, 공공기관, 1천개 이상의 기업회원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직원 40여명으로 운영하고, 이사회(21명)에서 결정기구

○ (역할) 클러스터 구성원간 네트워킹, 기술 및 정보 확산, 대외 홍보업무

- 산·학·연·관 활동 주도, 연구프로젝트 개발, 7개 클러스터 지원기관 운영

□ 주요특징

- 코펜하겐 국제공항 등 기본적인 물류 인프라 우수
 - 근로자를 위한 주택, 병원, 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 보유
- 스웨덴 스케오네 지역은 전통적인 식량기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스웨덴 식품의 50%를 생산
- 다수 대학 R&D 중심의 수평적 결합에 의한 고부가가치 클러스터 육성
 - 대학(기초연구)과 연구기관(산업화·기술개발 연구) 간의 협력체계 구축
 - 14개 대학이 소재하고 학생 수는 약 15만명, 6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원은 약 14천명의 우수인재 확보
-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[OFN] 조직을 통한 정보공유
 - 기업·대학·연구기관·여러 조직과 정부간의 지식공유 및 협력 중재
 - 합작연구, 기술개발, 아이디어 공유 포럼, 세미나 개최 등
- Proviva 브랜드(건강기능식품)는 기업과 농업인이 win-win하여 상업화한 사례(연 600억원 매출)



< 주요 연구기관 현황 >

- 외레순 대학('97) : 14개 대학 컨소시엄
 - 14만명의 학생, 1만명 연구자(박사 6,500명), 8명 노벨상 수상자
- 덴마크 기술연구소(DT I) : 패키징기술연구 등 1,000여명 근무
- 룬트식품센터, 유기농연구센터, 사이언스 파크 등

다. 미국 나파밸리(Napa Valley)

- ◆ 캘리포니아 포도 주산지에 R&D를 결합하고 관광을 접목(6차산업화)하여 성공

□ 일반현황

○ 설립경과

- 토양, 기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1800년대부터 포도재배, 와인제조 시작
- 1960년대 로버트 몬다비를 중심으로 기업형 와이너리 생성
 - * 1976년 와인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프랑스 와인을 이겨 우승하여 유명해지기 시작



○ 위치 : 미국 캘리포니아주(州) 나파 카운티(Napa County)

○ 규모 : 약 480km²(남북으로 40km, 동서로 12km에 이르는 지역)

○ 입주기업 : 400여개 와이너리(대표기업 : 로버트 몬다비, 샤토몬트레나)

○ 경제효과 : 매출 520억\$ (수출 52억\$), 고용 31만명(직간접)

□ 운영시스템(별도의 운영기관은 없음)

○ 주정부기관, 포도재배농가와 포도가공설비, 와인연구소 등 R&D 조직, 관광클러스터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연계되어 클러스터 형성

□ 주요특징

○ 식품산업을 넘어 관광 상품화로 1,2,3차 산업의 동반발전

- 와이너리(양조장, 400여개)를 견학·체험장으로, 포도 생산지를 관광코스로 활용, 관광 상품화에 성공
- 풍선기구* 탑승·열차 관광상품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



* 거대한 풍선을 타고 나파밸리 일대를 한바퀴 도는 것으로 약 한시간정도 소요(비용 \$199 – \$230)

○ 기업적 와이너리(포도주 양조장) 경영을 통해 와인 생산

○ 농가의 원료공급과 공장에서의 가공·생산 시스템 정착

라.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(Emilia-Romagna Cluster)

- ◆ 지역특산물을 배경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식품산업 집적화 지역
- ◆ 산·학·연·관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, 원활한 기업 지원 및 산업정책 개발

□ 일반현황

○ 설립경과

- 1974년 지역내 산학연관의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구(에르벳) 설립
- 2002년 기술이전, 비즈니스센터로 업무영역 확대

○ 위치 : 이탈리아반도의 북동부 에밀리아로마냐 지역

○ 규모 : 22,124km²

○ 입주기업 : 430천여개(식품 외 기업포함, 대표기업 : 파르마르트 등)

○ 경제효과 : 매출 540억\$(수출 270억\$), 고용 10만명(직간접)



□ 운영시스템(ERVET : 에로벳 본부, 100여명 근무)

○ 지방정부에서 대부분 지원(86%)

○ 통합적인 프로젝트 구상 및 실행,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연구

○ 입주업체 네트워킹 및 파트너쉽 구축

○ 클러스터지역 성과분석·관찰 및 클러스터 정책 실현

□ 주요특징

○ 소규모 농식품연구소 집적화를 통한 산·학·연·관 연구 협력

- 산학협력 및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환경 구축으로 볼로냐 등 6개 대학교 학생 15만명 중 40%가 타 지역에서 유입

○ 지역 중소기업조합 중심으로 햄·치즈·파스타 등 전통적 특산품 생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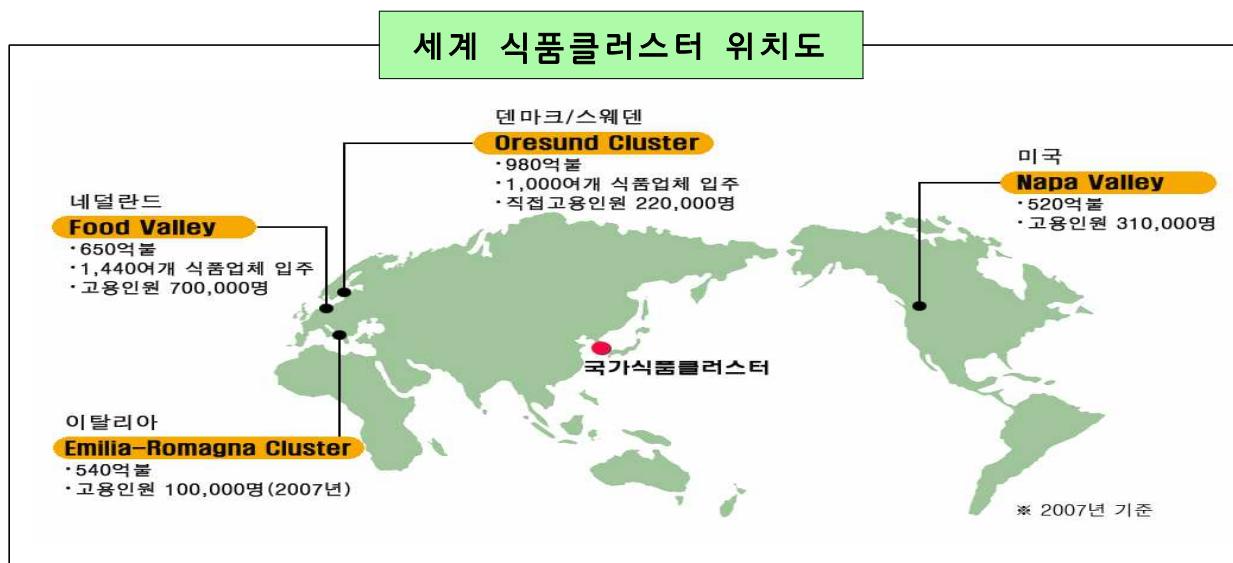
- 최근 대학 중심의 대규모 지방 연구기관 설립

○ Labelling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 실시

< 참고 >

해외 주요 식품클러스터 현황

구분	네덜란드 푸드밸리	덴마크 · 스웨덴 외레순	미국 나파밸리	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
위치	네덜란드 와게닝겐지역 * 암스테르담에서 85km	덴마크 코펜하겐, 스웨덴 스코오네지역, 서부 말뫼지역	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	이탈리아 반도의 북동부에 밀리아로마냐지역
면적	와게닝겐의 반경 30km	21,203km ² (덴마크 9,834km ² , 스웨덴 11,369km ²)	480km ²	22,124km ²
매출	650억 달러(국가전체)	980억 달러	520억 달러	540억 달러
수출	325억 달러(국가전체)	336억 달러	52억 달러	270억 달러
고용	70만명(직간접)	22만명(직간접)	31만명(직간접)	10만명(직간접)
입주기업수	1,440여개(관련기업)	1,000여개	400여개	430천여 개 (식품 외 기업 포함)
대표기업	하인즈, 캄피나, 몬산토, 메드존슨, 하이네켄 등	네슬레, 알라, 테트 리팩, 크라운, 칼스 버그 등	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, 샤토 몬틀레나 앤 베링어	파르마르트 등
연구기관수	21개 연구소 및 70개 과학기업	14개 대학 및 연구소 컨소시엄	15개 대학 및 기업 연구소	9개 리얼 서비스센터
운영기관	푸드밸리재단	외레순 과학기술 협의회	-	ERVET 본부
성공요인 시사점	'미래식당' 등 혁신적 소비자연구시설 운영	OFN 등 지원 기관들의 협력으로 혁신적 기술개발 주도	1800여개 와이너리의 관광 명소화	산 · 학 · 연 · 관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



II. 종합계획 수립 개요

① 종합계획 수립 근거 및 성격

□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

-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기본방향, 식품산업단지 조성·지원, 기업지원시설 구축 등 6개 분야^{*}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

* 기본방향, 산업단지 조성, 지원기관 구축, 기업 역량강화, 농어업연계, 수출·투자촉진 등

○ 종합계획 수립 절차

- 관할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
-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

□ 종합계획의 성격

○ 장기적·종합적인 개발방향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정책계획

- 국가식품클러스터^{*}의 비전·목표 및 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식품전문 산업단지의 개발구상 및 정주여건 조성 방향을 제시

* 식품기업과 관련 산업·연구소·대학 등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협력 또는 경쟁하는 지리적 연합체(마이클포터)

- 기업 지원시설(H/W) 구축, 네트워킹 등 기업역량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발전 프로그램(SM), 투자유치·홍보 전략 등 제시

○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는 법정계획이면서 식품산업단지 개발 계획과 부문별 사업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

②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경과

◇ 한미 FTA 협상 타결('07.6)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로 추진

- 농어업 발전견인을 위해 식품산업의 인프라 강화차원에서 추진

□ ('07~'08) 추진방향 결정·기본계획수립 및 사업 대상지 선정

- 제1차 균형발전 정책 보고회에서 '식품클러스터 조성 방향 VIP 보고('07.11.27)
- 신규사업 추진 공모 결과에 따라 전북도를 사업대상지로 선정('07.12.17)
- 대통령선거공약·'08년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('08.3.18)
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입지지역 선정 발표('08.12.26)
 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정책연구('08.7~12월, 산업연구원)
 - 국정과제 채택('08.7) 및 입지로 전북 익산을 최종 선정('08.12.26)

□ ('09~'10)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

-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대통령 보고('09.1.29)
- 국가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('09.11.6, 기획재정부)
- 국가산업단지로 조성, 예비 사업시행자로 LH공사를 지정('10.1, 국토부)
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(식품산업 진흥법 개정 '10.1)

□ ('11~12)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(LH) 및 종합계획(마스터플랜) 수립

- 식품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('11.12, LH) 및 식품산업단지 지정 승인('12.6, 국토부)
- 국가식품 클러스터 종합계획(마스터플랜) 수립('11.6~'12.7)
 - 종합계획 용역('11.6~11), 실무안 작성 및 의견 수렴('12.1~7)

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추진 실적

1. 식품산업단지 조성분야

- 기본계획 수립 및 전북 익산으로 입지 선정('08.12.26)
- 예비타당성 조사('09.11) 및 문화재 지표조사, 3대 영향평가 실시
- 국가식품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(LH, '11.12) 및 지정 승인(국토부, '12.6)

2. 지원체계구축

-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('11.2)
- 3대 R&D센터 등 6개 기업지원 H/W시설 설립방안 용역('10) 및 설립기본계획 수립('11~'12.2)

3. 투자유치 및 홍보분야

- '09년부터 국내외 기업·연구소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
 - 투자유치 설명회, 투자유치관 운영 등 총 24회(해외 15, 국내 9)
 - MOU 체결('11년 말) : 52건 151만m²(46만평)
-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건립('10.5, 2층 규모) 및 CI 등 제작

※ 국가식품클러스터 CI(Corporate Identity) 및 네이밍

<국가식품클러스터 CI 및 네이밍>



- * 네이밍 : 푸드폴리스(FoodPolis)
 - Food(식품) + polis(도시)
 - ⇒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식품도시

▪ CI(Corporate Identity)

- 부채와 부채살을 이루는 경쾌한 컬러시스템은 개발, 생산, 물류, 투자유치, 안전관리 등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를 상징
- 또한 각 컬러 시스템에 균형적으로 배치된 태극마크와 모던한 로고타입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끈임 없는 혁신을 통해 영속적으로 발전하는 푸드폴리스의 미래상을 반영
- 6개의 부채살은 6개 대륙으로 진출을 의미 함

▪ 네이밍 : 푸드폴리스(FoodPolis)

- 식품(Food)과 '중심', '도시'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폴리스(Polis)가 결합하여 '식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·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식품문화도시의 중심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'

③ 계획수립 범위

가. 시간적 범위

- 식품클러스터 조성은 조성기와 운영기로 구분
 - 조성기(2012~2015) :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조성, 투자유치 등
 - 2012년 : 국가식품산업단지 지정 승인, 토지보상 등
 - 2013~2014년 : 산업단지 조성, 원형지 분양 및 기업지원 H/W 시설 건축
 - 2015년 : 기업지원시설(6개 H/W) 운영, 일부 기업 입주 시작
 - ※ 준비기('07~'11) : 기본구상 발표, 대상지 선정, 예비타당성 조사 등
- 운영기(2016~2025) : 기업·연구소 입주 및 본격 운영

나. 내용적 범위

-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은 종합계획에 다음사항을 포함토록 명시

-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*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방향, 비전·목표 및 추진전략
-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* 3대 R&D센터, 임대형공장, 파일럿플랜트, 지원센터설립·운영
-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,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원료 조달 및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
 - * 농어업 연계기업 인센티브 강화, 기능성·바이오 식품개발 등
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다. 공간적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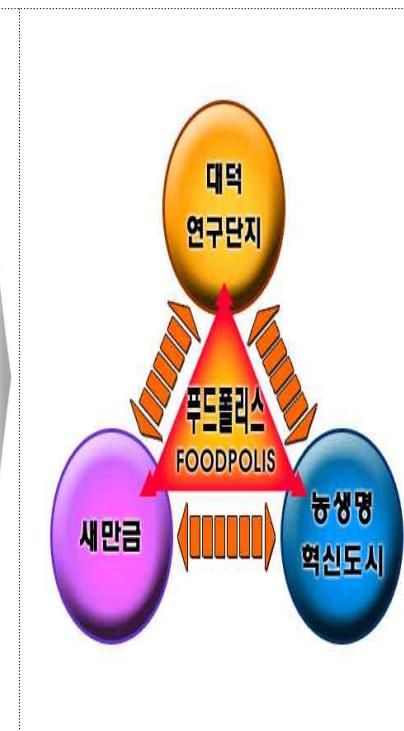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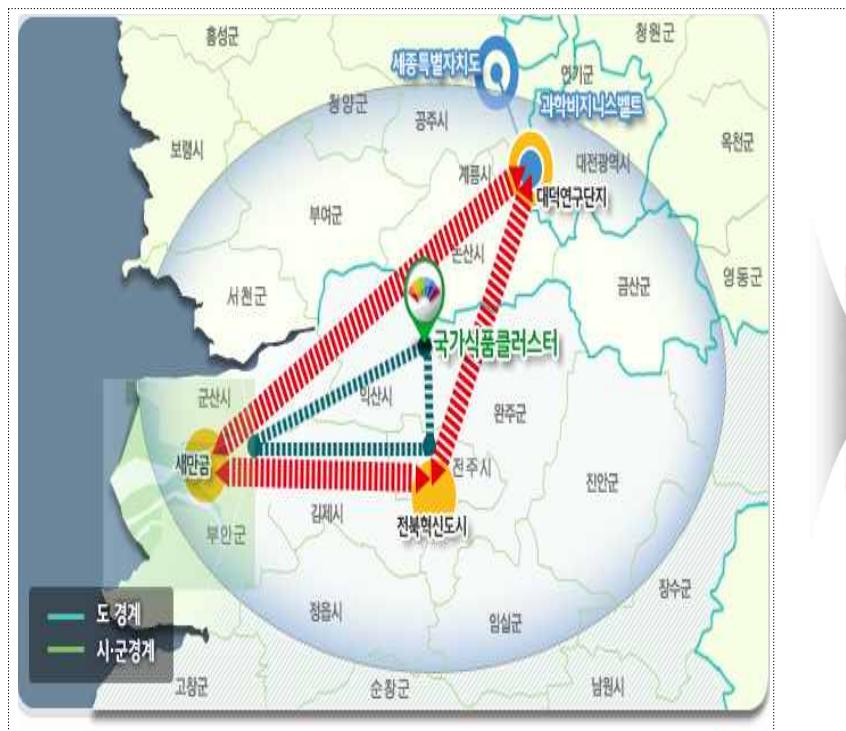
□ 국가식품클러스터(푸드폴리스)

- 푸드폴리스는 기업·연구소가 입주하는 식품전문산업단지(푸드사이언스파크)와 주거·교육의 배후복합도시(푸드시티)가 결합한 식품산업문화도시를 말함



○ 광의의 국가식품클러스터(식품과학벨트)

- 푸드폴리스의 R&D · 제조 기능, 새만금의 물류 · 산업 기능, 전주 농생명혁신도시(한식연 · 농진청 등), 대덕연구단지 · 세종과학밸트(IT · BT연구기관)의 R&D 기능을 네트워크로 연결(푸드폴리스 반경 50km)된 지역을 의미
- R&D를 기반으로 한 “식품R&D 삼각벨트”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역클러스터 · 연구소 · 대학 등과 네트워킹하는 핵심지역



○ 최광의의 국가식품클러스터(글로벌 네트워크)

- 푸드폴리스가 동북아의 식품R&D와 고부가 생산의 협력 및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을 지향
- 동북아 및 글로벌 식품기업·연구소·대학 등과 R&D·생산·마케팅 분야에 네트워킹과 비즈니스를 공동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



국가식품클러스터 상위정책과의 관계

■ 농림수산식품부 출범('08.2)으로 식품산업진흥 정책 본격 추진

- 식품산업진흥법 시행('08.6) 및 식품산업 R&D 중장기 계획*('09.5)

* 4개 분야 연구과제 :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, 글로벌 시장대응, 수출상품화 등

■ '농림수산식품·농산어촌 비전 2020' 발표 ('10.2)

- 식품산업 글로벌화 일환으로 식품 R&D 투자확대, **국가식품 클러스터 육성** 등 포함

■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·발표 ('11. 9)

- **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**(전북 익산, '15년 목표)
- 식품 R&D를 확대하여 '17년까지 선진국 85%수준으로 식품기술 향상
-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, 글로벌 경쟁력 강화(수출) 등

※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(2011~2020)

- "5+2 광역경제권" 중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남해안 선벨트가 만나는 호남권에 해당
-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입지 육성
 -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융복합 산업과 녹색성장산업육성 등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 조성

III. 기본방향 및 비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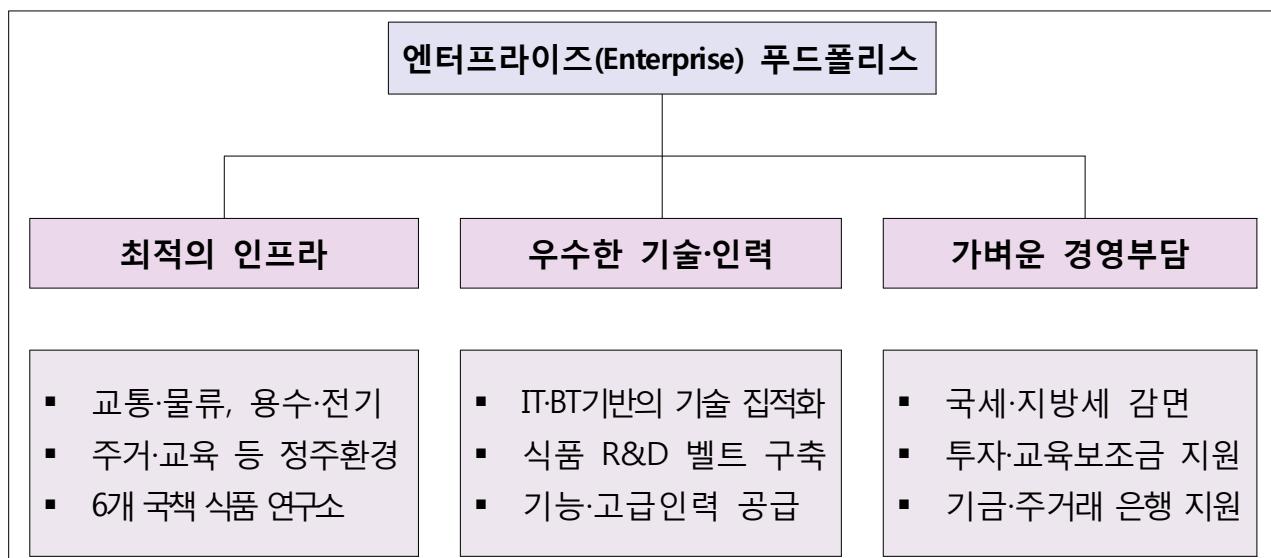
1 기본 방향

- ◆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식품산업단지 조성 (엔터프라이즈 푸드폴리스!)
- ◆ 식품 혁신(이노베이션) 창출형 연구산업단지 (이노베이션 푸드폴리스!)
- ◆ 글로벌 식품 수출거점기지 구축 (게이트웨이 푸드폴리스!)
- ◆ 식품-농어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 (투게더 푸드폴리스!)

□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식품산업단지 조성('엔터프라이즈 푸드폴리스')

- 최상의 교통·물류와 용수를 공급하고 IT·녹색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식품산업단지로 조성
- 160여개의 국내외 식품기업·연구소가 입주하는 글로벌 식품클러스터로 육성
- 우수인력 공급, 세제·재정 및 인허가 등 one-stop 지원
- 제조에서 유통·소비(수출)까지 일괄 지원하는 HW, SW 구축
- 주거·교육·문화시설 등 종사자 중심의 정주환경 조성

〈기업하기 좋은 식품산업단지〉



□ 식품 혁신 창출형 연구산업단지('이노베이션 푸드폴리스')

- 시설·장비의 개방형 운영 등을 통해 지식 기반의 연구개발*(R&D)의 저비용 고부가 생산체계 구축
 - * 3대 R&D센터·민간식품연구소와 국책 식품연구소(한식연·농진청)가 연계
- 식품기술과 IT·나노·로봇기술 등이 융합하는 식품 융복합 연구단지로 육성
 - 기능성·바이오, 건강식품(다이어트·질병치료 등) 등 개인 맞춤형식품 연구 강화
- 국내외 식품연구소 등과 공동 R&D·네트워크*를 통한 이노베이션 창출
 - * 기업,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고도의 네트워킹 체계인 '트리플 힐릭스(Triple Helix)' 모델 적용

□ 글로벌 식품수출 거점기지 구축('게이트웨이 푸드폴리스')

- 수출 검역·검사 통합사무소 설치 등 '글로벌 고부가식품 수출기지*' 구축
 - * 종합보세구역(원료과세 유보) 지정, 수출·원료조달 지원 정보센터(aT) 설치 등
- 입주기업의 박람회 참가, 마케팅 등 해외시장개척 종합 지원
- 전담 물류회사 및 해외물류망 확보 등 新 식품 물류시스템 구축

□ 농어업-식품산업 동반성장체계 구축('투게더 푸드폴리스')

- 농·수협 중심의 원료 계약생산·공동구매 등 원료조달 매칭 시스템 구축
 - 호남평야, 간척지 등을 대규모 원료 공급기지로 활용
- 중소-대기업간 공동 R&D·원료조달·마케팅 등 공생발전 기업 생태계 구축
- 체험·전시 및 축제·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식품산업 성장 촉진
- '식품(Food)'을 테마로 한 "(가칭)세계 식품 EXPO"를 개최, K-Food 글로벌화 달성

‘식품강국의 꿈’과 ‘풍요롭고 건강한 미래’ 실현

<참고>

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환경(SWOT) 분석

SWOT	강점 (S)	약점(W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품 관련 대학 및 연구소의 집적 식품 관련 전공자의 증가, 우수인력 자원 전통식문화 및 식산업 발달 수준높은 소비자 집단 보유 외부시장 변화에 대한 높은 대응력 전국각지에 지역 농업클러스터 형성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써의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 세계적인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BT(생명기술) 등 타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경쟁우위 잠재력 보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품기업의 양극화 및 영세성 식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기초 및 원천기술 미약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원료산지 유통시설 및 물류시설 미흡 식품기업지원 서비스 부족 식품산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산·학·연 협업 체계 부족 지자체 예산 및 재원부족 고급 인력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 취약 글로벌 접근성 취약
기회 (O)	(S-O 전략)	(W-O 전략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의지 식품관련 공공기관 이전 신선 편의식품에 대한 소비시장 확대 해외식품시장 확대 및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집적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 고부가·고품질 제품 개발 수출 지향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식품의 6차 산업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품기업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 지원서비스 강화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산학연 집적단지에 정주기능 강화 투자유치 활성화 R&D 개발강화
위협 (T)	(S-T 전략)	(W-T 전략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장개방에 의한 식품수입 증가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료난 환경 및 식품안전 관리 부담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통식문화·식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공급망 구축 환경 친화형 기술개발 및 식품안전기준 준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식품 산업 활성화 식품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교통인프라 연계를 통한 글로벌 접근성 강화

-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S-O, W-O, S-T, W-T의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식품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식품산업문화도시 구축 전략 도출



② 비전 및 목표

비전
2020

‘글로벌 식품시장의 新 중심’ 으로 도약
The New Hub of Global Food Business

목표

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 육성

▶ 기업 150개 · 연구소 10개 입주, 고용 2.2만 명

※ 매출 150억\$(15조원) · 수출 30억\$(3조원) 목표

핵심전략

R&D · 네트워크 · 수출 중심 한국형 식품클러스터 조성

1.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조성

- 고부가가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 조성
- 식품 종사자가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
-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 구축
- 이노베이션 지향형 식품기업·연구소 유치

2. 기업 이노베이션 지원시설 구축

- 저비용·고부가를 위한 3대 R&D시설 구축
- 기업생산 지원을 위한 3대 지원시설 구축

3. 고부가 R&D 및 네트워크

- 고부가가치 상품화 R&D 지원
- 기능성식품 개발 및 육성
-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

4. 식품 수출 기지화 및 농어업 동반성장

- 고부가 식품 수출거점기지 구축
- 식품 수출개척 지원
- 식품 물류 효율화 체계 구축
- 농어업–식품 연계발전 추진
- 식품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식품 6차 산업화 추진

5. 기업역량 강화

- 식품인력 공급 및 우수인력 유치
- 입주기업 자금·컨설팅 등 기업역량 강화

지향가치

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농어업 성장 및 소득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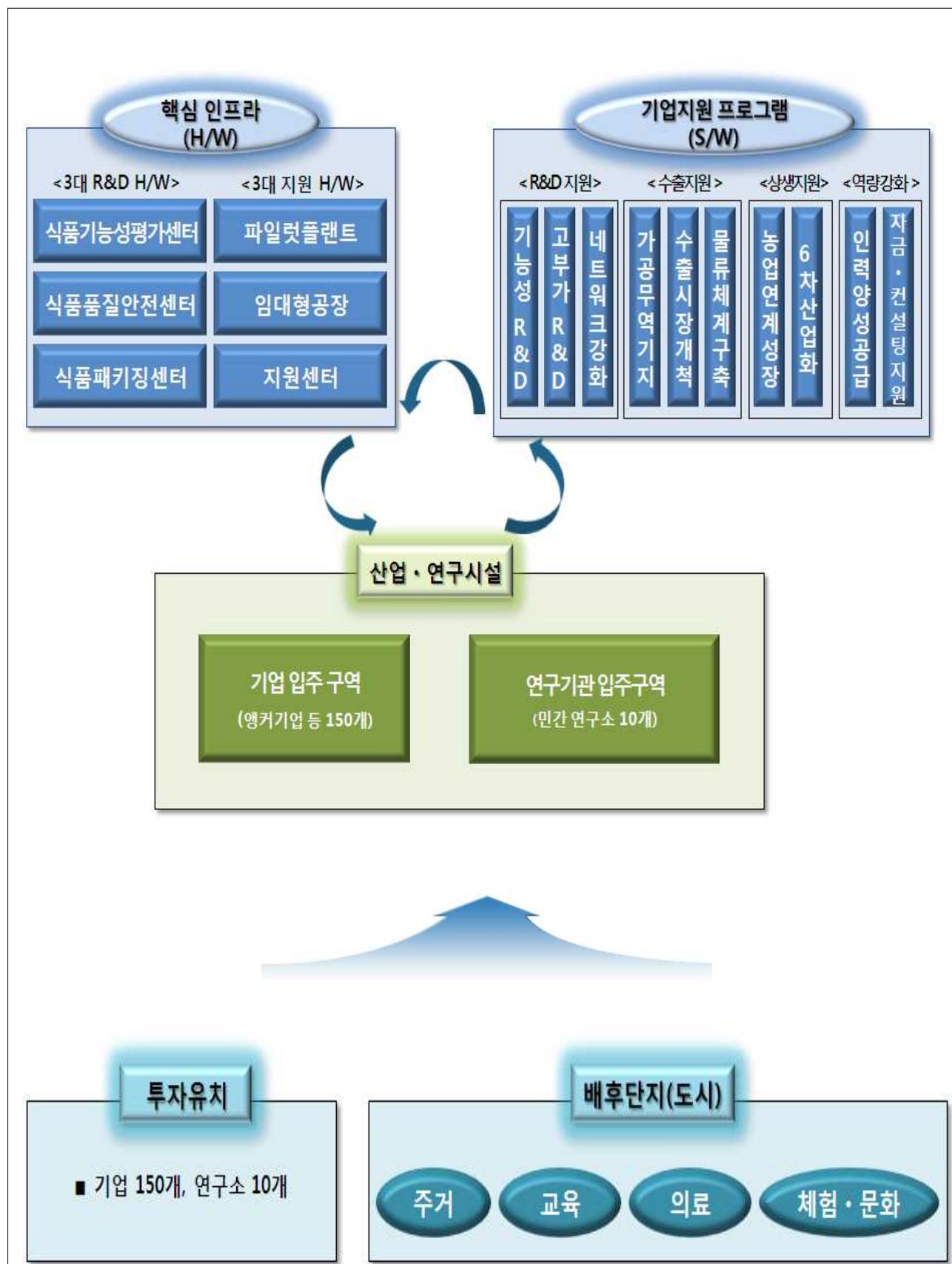
패러다임 전환

가공위주→고부가 R&D

개별기업→네트워크

내수→수출중심

③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체계



IV. 종합계획의 주요내용

1. 기업하기 좋은 식품클러스터 인프라 조성

세부 실천과제

- ① 공간구조 기본방향 및 계획
- ② 고부가가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 조성
- ③ 식품 종사자가 살기 좋은 정주환경(주거·교육·문화) 조성
- ④ 식품 기업하기 좋은 용수, 교통, 환경 등 기본 인프라 구축

핵심내용 및 주요지표

■ 고부가가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 조성

- '15년까지 전북 익산에 232만m²(70만평) 식품연구산업단지 조성
- 식품 R&D와 생산 산업시설이 융합된 이노베이션형 단지 조성
- 산업시설·민간R&D시설·기업지원시설 등 5개 권역으로 개발
 - 산업시설 권역 1,517천m²(46만평), 민간 R&D시설권역 54천m²(2만평) 등

■ 정주여건(주거·교육·문화) 조성(배후도시)

- 입주근로자, 외국인 등에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
- 외국인학교 유치, 타운하우스 등 선진형 정주환경 조성
 - 한옥단지, 타운하우스 및 식품문화시설을 갖춘 축제형 식품도시 조성
 - 식품특성화고와 대학 및 외국인 초·중·고 각 1개 유치

■ 식품 기업하기 좋은 교통, 용수 등 산업단지 기본 인프라 구축

- 1시간내외 도착 가능한 공항 3개, 항만 4개의 교통인프라 구축
 - KTX개통('14년) 시 서울 68분 소요
- 식품기업에 적합한 최고의 용수 공급 및 폐수·폐기물 친환경적 처리
- 태양광·지열 등 신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 산업단지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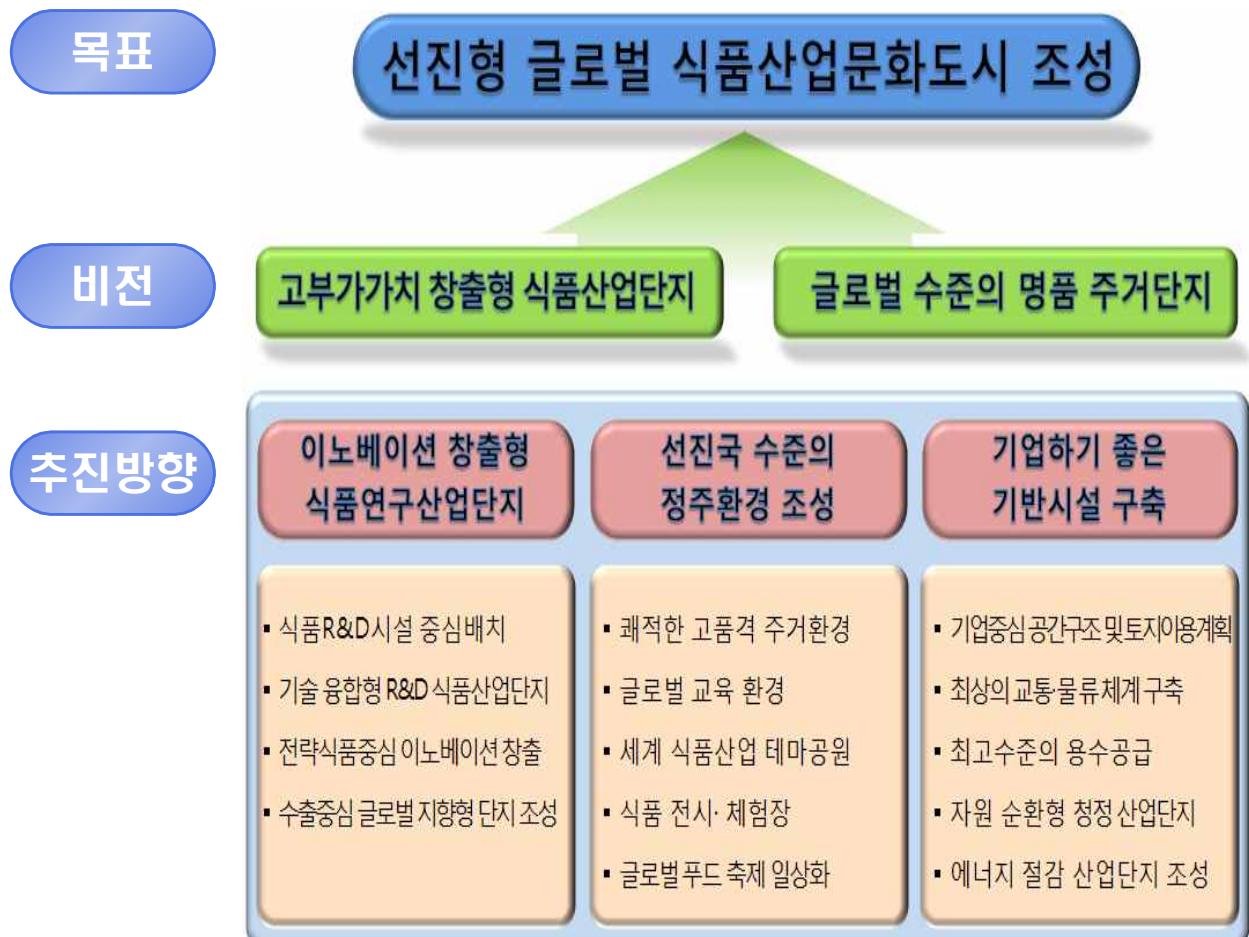
① 공간구조 기본방향 및 계획

가. 기본방향 및 목표

□ 기본방향

- 교통, 용수공급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구축하고, 신·재생에너지, IT 기반의 에너지 절약형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
- R&D · 융합기술 중심의 이노베이션을 지향하고, 기업 글로벌화를 통한 수출중심 식품산업단지
- 푸드폴리스는 식품산업단지와 주거단지는 식품의 역사·문화를 상징화하고 미래와 첨단이 조화된 글로벌 명품도시로 조성

□ 비전 및 목표



나. 공간구조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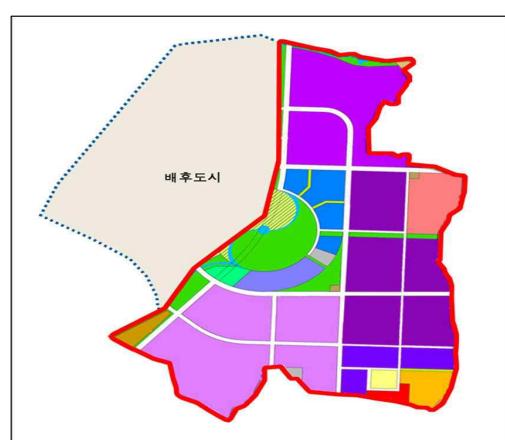
① 토지이용계획

□ 연구·산업단지·주거기능을 갖춘 '한국형 식품산업문화도시'로 조성

- 식품산업문화도시(푸드폴리스)는 358만m²(108만평) 규모로 이노베이션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와 선진국 수준의 정주 환경을 갖춘 배후복합단지로 병행 조성
- 고부가 창출형 식품산업단지는 산업시설, R&D시설, 지원시설 등 232만 m²(70만평)로 조성
 - R&D·기업지원 시설을 산업단지 중심에 배치,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지원
- 살기 좋은 배후복합주거단지는 주거·상업, 교육, 식품문화시설 등 126만 m²(38만평)로 조성
- 식품산업단지와 주거단지는 식품의 역사·문화를 상징화하고 미래와 첨단이 조화된 배치와 건축으로 글로벌 명소화 단지로 조성
 - 다른 나라의 기존 클러스터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시설, 공장·주거시설, 문화시설, 가로수 등 각 건축물과 글로벌 테마파크 등은 농·식품 등의 특징을 가지도록 특성화하여 조성
 - 필요시 입주기업·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'명소화위원회'를 설치하고 명소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, 기업의 부담 최소화
 - 일터·배움터·쉼터를 함께 갖춘 근무·생활환경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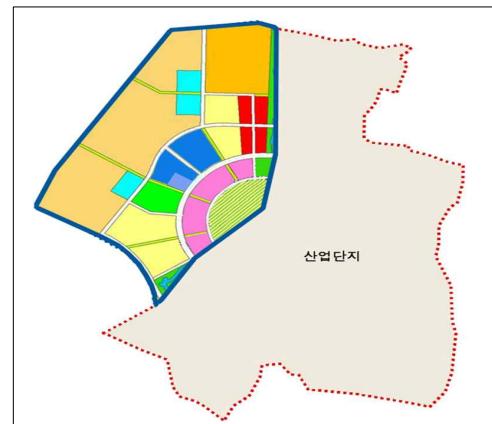
□ 식품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안

- 232만m²(70만평) 규모로 조성되는 식품산업단지는 기업지원시설용지, 산업시설용지, 민간R&D시설용지, 테마파크용지, 이주단지 등
 - 산업시설 152만m², 기업지원시설용지 9.4만m², 민간R&D시설 5.4만m², 테마파크 용지 3.8만m², 이주단지 8만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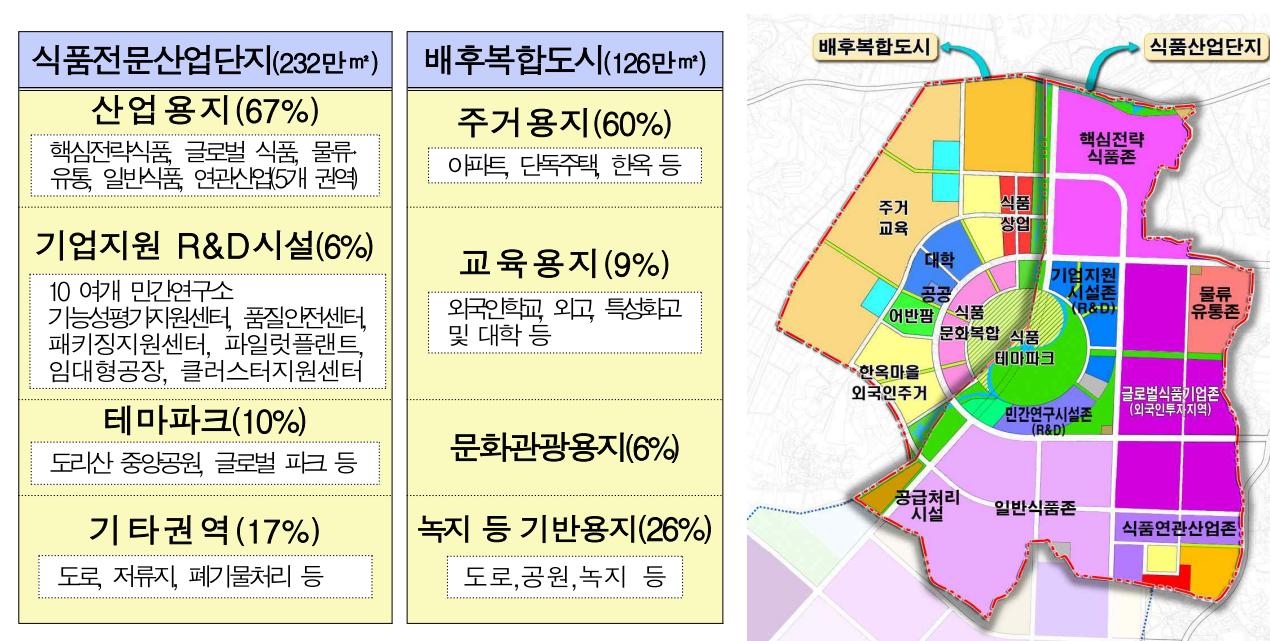


□ 배후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안

- 126만 m²(38만평) 규모로 조성되는 배후복합주거단지는 주거용지, 상업용지, 식품문화복합용지, 교육용지 등으로 구성
 - 주거용지 71만m², 상업용지 4.1만m², 식품문화복합용지 7.3만m², 교육용지 11만m²



〈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안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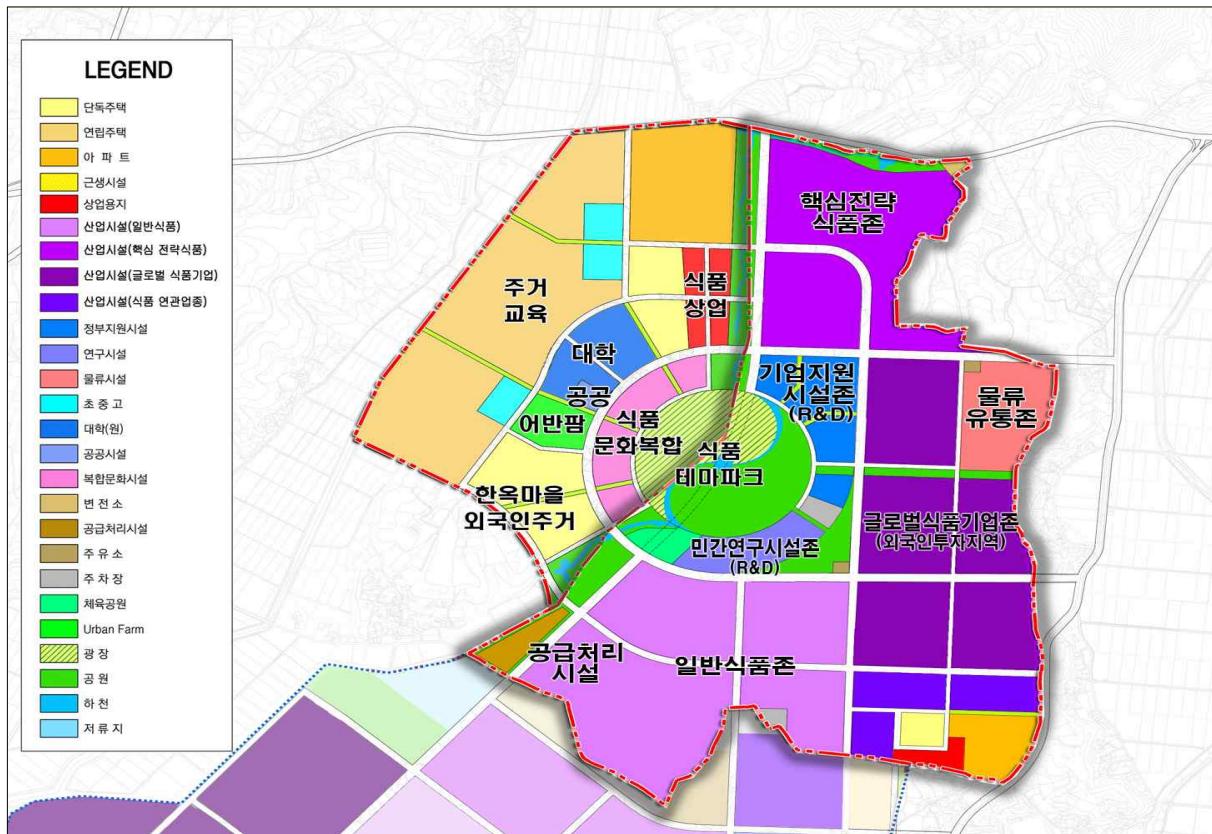
< 식품산업문화도시 토지이용계획표 >

구 분	계 (천 m ²)	비율 (%)	식품산업단지	배후복합 주거단지	비 고
소계	3,722	103	2,322	1,400	
산업시설용지	1,571	44	1,571	-	공장, 연구소
지원용지	94	2	94	-	연구시설
주거용지	776	22	66	710	주거시설
상업용지	55	2	14	41	상업시설
교육용지	110	3	-	110	초 · 중 · 고, 대학 등
문화·관광용지	73	2	-	73	전시 · 체험, 박물관 등
식품테마파크	383	10	244	139	글로벌테마공원, 중앙공원 등
기반시설용지	660	18	333	327	도로, 공원 등

<참고1>

식품산업문화도시(푸드폴리스) 토지이용계획안

○ 토지이용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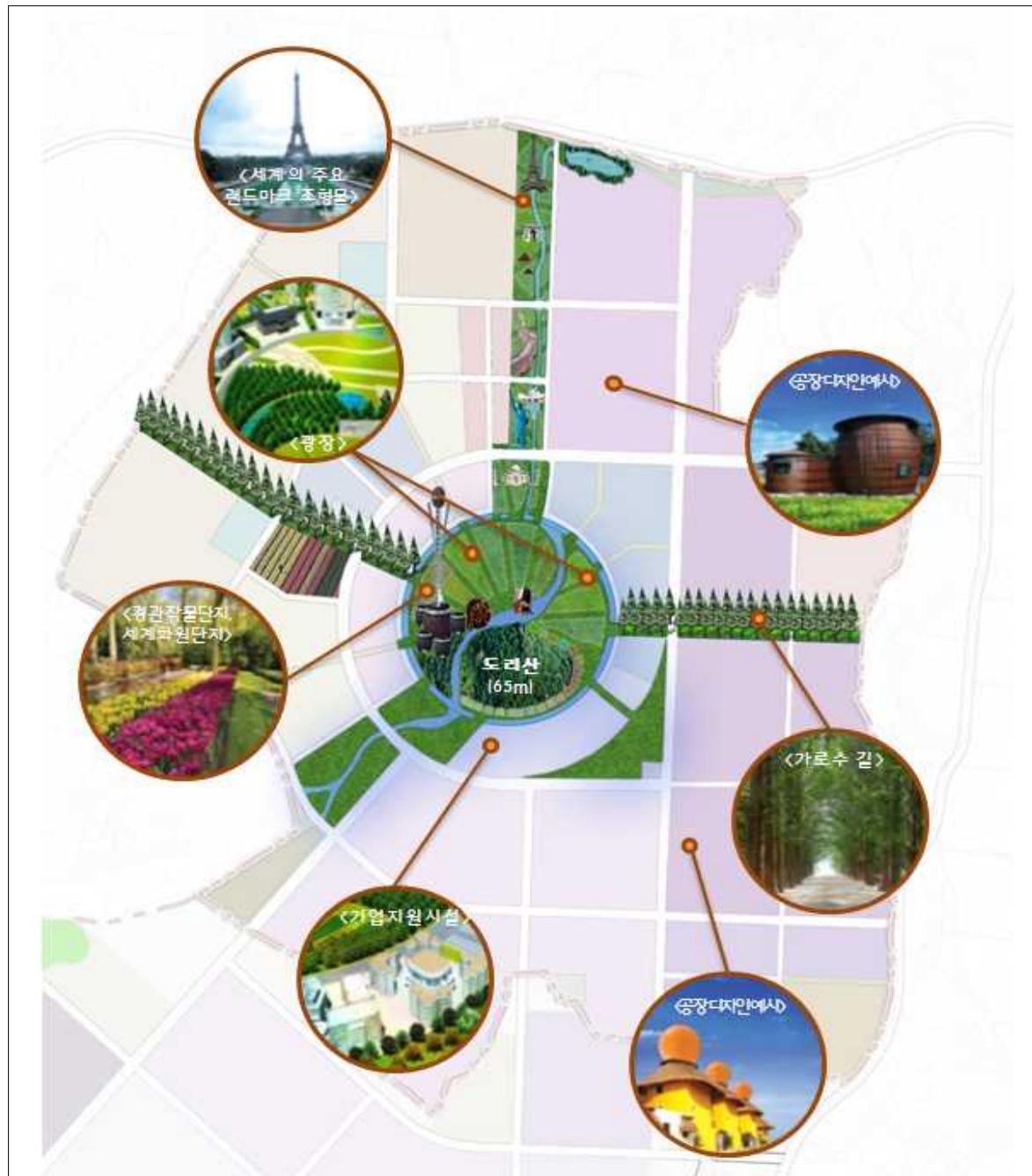


○ 조감도



<참고2>

식품산업문화도시(푸드폴리스) 글로벌 명소화(특성화) 구상(안)



② 공간구조 구상

□ 산업단지축

○ 식품R&D 중심축

- 단지 중심에 식품 R&D시설*과 민간연구소 등을 역'ㄷ'자형으로 배치하여 상호협력 기능과 입주기업 지원이 용이하도록 구축

* 식품기능성평가지원·식품품질안전·식품패키징센터 및 파일럿플랜트 등

○ 식품산업발전축

- 식품R&D중심축과 연계하여 5개권역*의 역'ㄴ'자형으로 배치하고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수출지향형 식품산업단지로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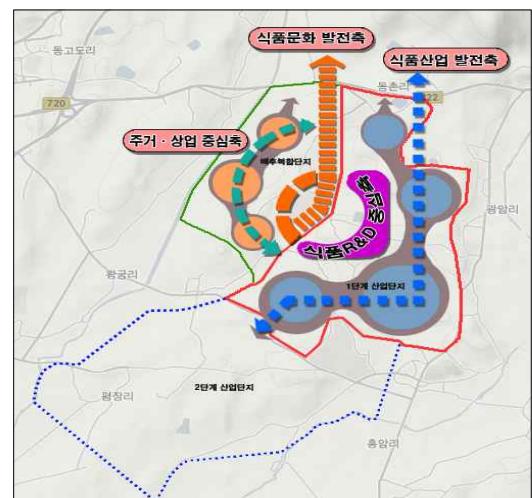
* 핵심전략식품, 글로벌식품, 물류·유통, 연관산업 등

○ 주거·상업중심축

- 입주기업 근로자 등 종사자에게 주거·교육·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족형 주거단지

○ 식품문화발전축

- 식품문화 체험·전시관, 박물관·식품문화관 등 식생활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, 글로벌 푸드 축제 등을 통한 농식품의 6차 산업화 거점 공간
- 세계 식품문화의 새로운 중심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의 식품테마파크, 푸드 폴리스 CI 모양의 식품문화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식품 문화발전축을 구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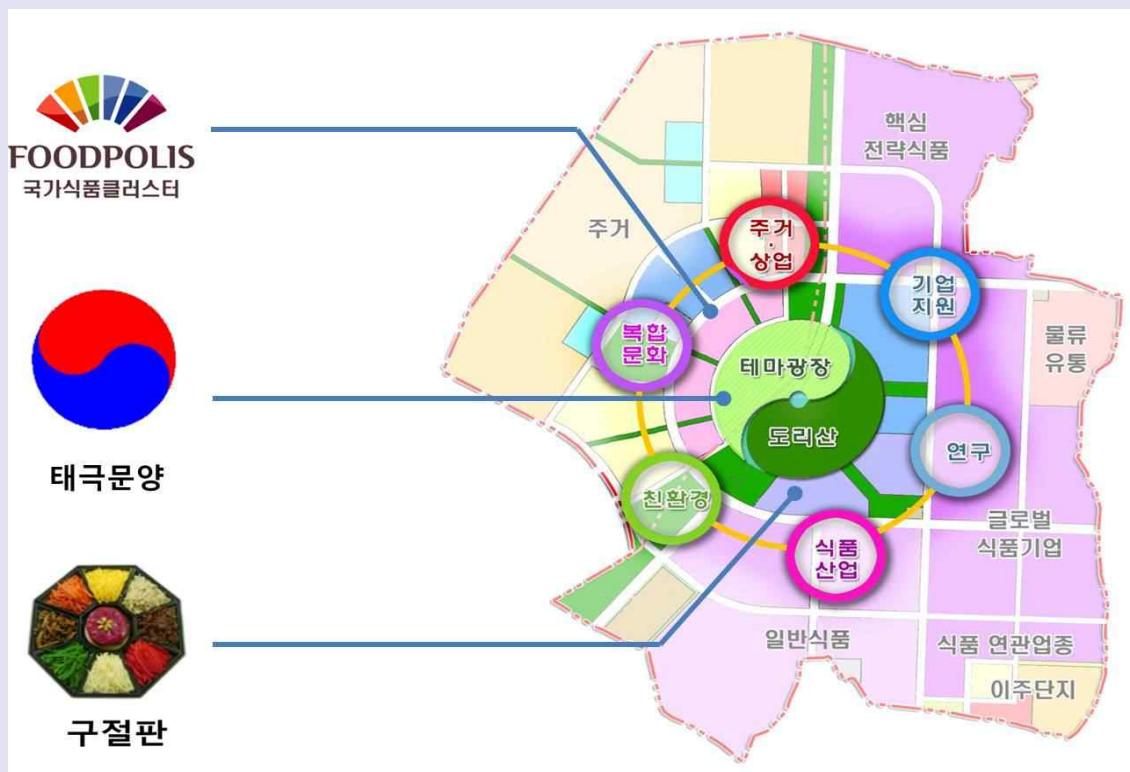
<산업 단지 발전 축 구상도>

<참고>

국가식품클러스터 공간구상(개발 컨셉)

- 식품산업단지와 배후복합단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생명의 "씨앗"과 같은 '원천' 상징성을 지니는 공간으로 조성
 - 도리산과 테마광장은 "태극문양*"을 모티브로 한 '중심'의 의미를 지닌 중앙공원을 조성
- * 한국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글로벌 중심을 지향 하는 의미
- 도리산은 자연 휴양형 공원으로 근로자·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, 테마광장은 경관작물단지 등 다양한 식품 이벤트 장소로 활용
- 6개의 축은 식품(음식)을 담는 '구절판'을 형상화하여 6개의 주요기능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고, 복합문화시설은 푸드폴리스의 CI를 형상화함

<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 컨셉>



□ 교통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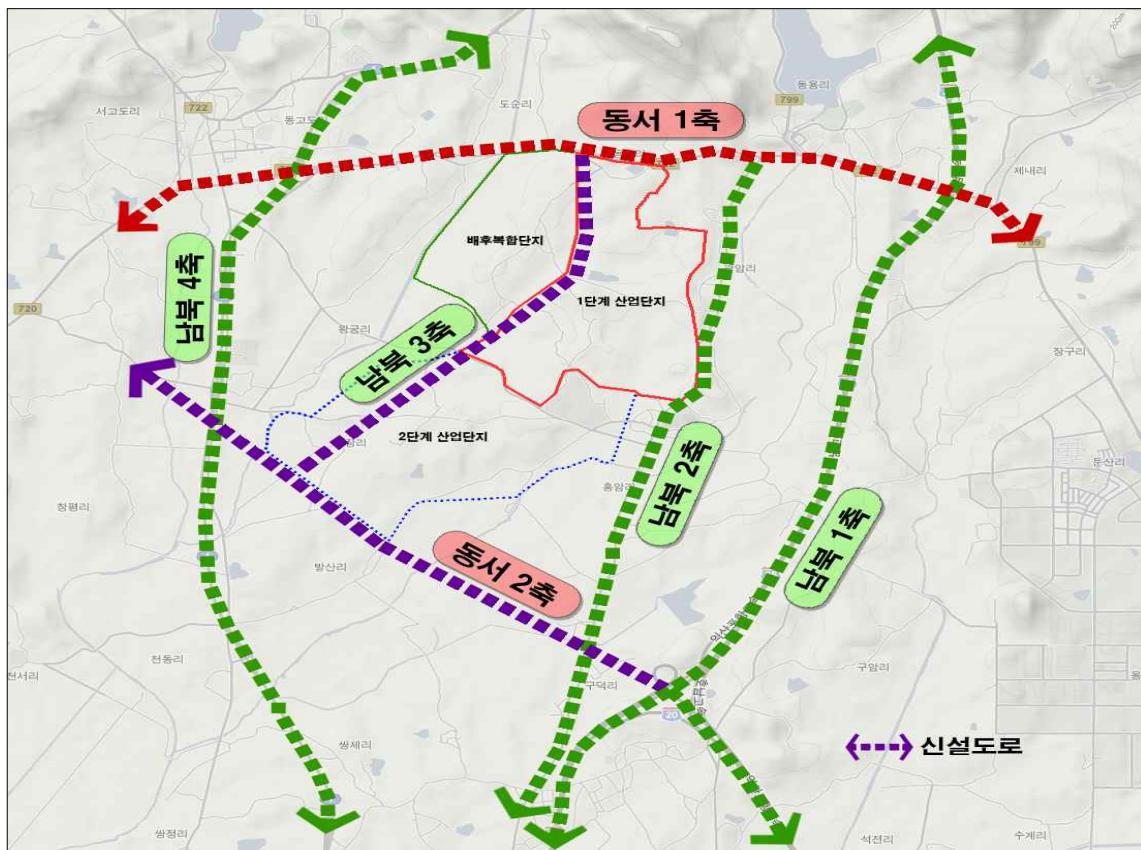
○ 2×4 간선교통축

-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유발되는 내부 및 외부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산업단지 접근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2×4 간선도로체계 구축

○ 간선교통축 구상

- 동서 1축 : 지방도 722호선 활용, 장래 수요증가에 따라 확장 추진
- 동서 2축 :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·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연결도로 신설 계획 추진
- 남북 1축 : 호남고속도로를 활용, 산업단지의 전국권 물류 처리
- 남북 2축 : 군도 19호선 활용, 산업단지 진·출입 교통량 분산처리
- 남북 3축 : 지방도 722호선과 동서2축을 연결하는 단지 내 주간선도로 신설
- 남북 4축 : 국도 1호선 활용, 동서 1·2축과 연계하여 교통량 분산 처리

<교통축 구상도>



□ 생태·녹지축 구상

○ 도리산 중심 생태·녹지축

- 도리산(65m)을 가급적 원형 보존하여 산업단지의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로서 거점 생태·녹지공간으로 조성

○ 남북 '+'자형 녹지축

- 산업단지내의 녹지, 하천 등을 활용, 외곽의 시대산, 왕궁터 등을 연결하는 '+'자형 생태·녹지축을 구축하여 녹색단지를 조성
- 시대산(229m)과 단지내 흐르는 동면천을 따라 형성되는 남북 녹지축
- 산업단지 녹지대와 배후도시내 녹지대·어반팜을 동서축으로 연결



○ 미래형 청정 녹색산업단지 실현

- 산업단지내 공장은 담장을 낮추고 주차장 지하화로 건축부지외 공간은 녹지 공원화하고 전신주 지하화·식품쓰레기의 지하 자동차집 처리 추진
- 입주자 협의회 등을 거쳐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'3無(전신주·쓰레기·지상주차장) 산업단지'를 추진, 미래형 청정 녹색산업단지 실현
- 친환경적인 3無 산업단지'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각적으로 노력

다. 주요지표

□ 인구지표

○ (유발인구 추정) 식품전문산업단지 개발시 유발인구는 총 3만 7천명 추정

- 산업단지 종사자인구 1만명, 직접 유발인구 1만 9천명, 간접 유발인구 1만 8천명 등 총 3만 7천명

<유발인구 추정>

구 분	총 유발 인구(명)	직접 유발인구(명)			간접 유발 인 구 (명)
		소계	종사자	종사자 가족	
산 업 단 지	합 계	37,239	19,295	10,155	9,140
	산업용지	21,305	11,039	5,810	5,229
	연구용지	811	420	221	199
	물류용지	11,001	5,700	3,000	2,700
	지원용지	3,586	1,858	978	880
	상업용지	535	277	146	131

<추정근거>

- ① 총 유발인구 : 직접 유발인구 + 간접 유발인구
- ② 종사자 : 시설별 용지면적(m^2) × 원단위인구(명/천 m^2)
 - * 원단위인구 : 산업·연구용지(4.1), 물류용지(30.0), 지원용지(10.4), 상업용지(10.4)
 - * 산업시설 : 산업입지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('06), '15년 기준 적용
 - * 물류시설 : 울산 신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원단위 적용
 - * 지원시설 : 타지역 사례조사 원단위 적용(익산시 마스터플랜보고서)
- ③ 직접 유발인구 : 종사자수 + (기혼자 × 부양가족수)
 - * 직접 유발인구 : 관련산업 종사자 + 종사자 가족 등
 - * 기혼자 비율은 종사자의 50%, 부양가족수는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상 2.8인 적용
- ④ 간접 유발인구 : 직접 유발인구 × 93%(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산업용지 93%)
 - * 간접 유발인구 : 직접 유발인구를 위한 서비스 인구 등

○ (유발인구 배분) 총 유발인구 3만 7천명은 국가식품클러스터내 2만 1천명(56%) 수용, 주변지역(익산, 전주, 혁신도시 등)에 1만 6천명(44%) 배분

- (배후도시) 총 유발인구 전체의 51%에 해당하는 1만 9천명을 용지별 적정 수용인구를 고려하여 배분
- (이주단지) 전체의 6%인 2천명을 배분
 - * LH공사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근거

<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유발인구 배분>

구 분	수용인구(명)	세대수(2.8인)	구성비(%)
합 계	37,239	13,300	100.0
배후복합 주거단지	18,900	6,750	50.8
식품산업단지 이 주 단 지	2,105	752	5.6
인근 도시	16,234	5,798	43.6

□ 주요 시설지표

- (교통량) '17년 기준 52,540대/일(유입·유출 각 26,270대/일) 추
- 그 중 화물 발생교통량 13,739대/일 수준 * 익산시 교통영향평가
- (용수량) 총 용수량 2.8만m³/일로 배후도시·산업단지 필요 생활
용수 1.2만m³/일, 산업단지 필요 공업용수 1.6만m³/일 추정
- (하수량) 총 오·폐수량 2.2만m³/일로 배후도시·산업단지 발생
생활오수 1.1만m³/일, 산업단지 발생 공업폐수 1.1만m³/일로 추정
- (폐기물) 총 폐기물량은 1.8만톤/년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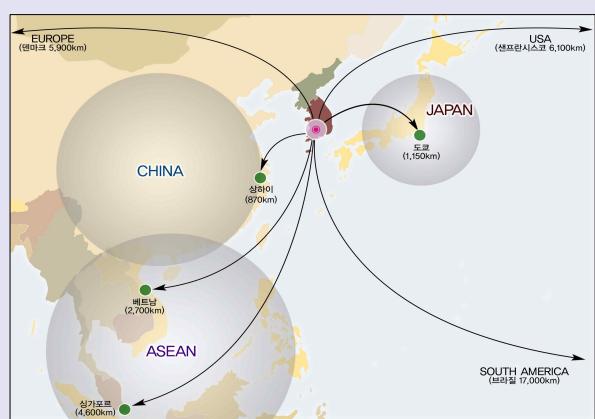
<1단계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주요시설 지표>

구 분	추 정
교 통 (대/일)	소 계 52,540
	유 입 26,270
	유 출 26,270
생활·공업용수(만m ³ /일)	소 계 2.8
	생활용수 1.2
	공업용수 1.6
하 수 (만m ³ /일)	소 계 2.1
	생활오수 1.1
	공업폐수 1.0
폐기물 (만톤/년)	소 계 1.8
	산업장폐기물 1.8

< 참고 >

국가식품클러스터 지리적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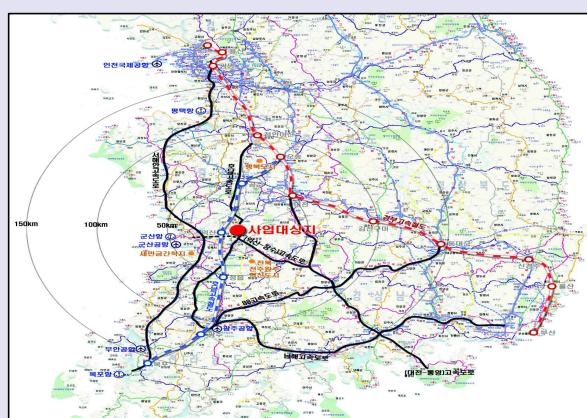
■ 글로벌 지리적 위치



<해외 주요도시간 거리>

- 중국 상하이와 870km, 일본 도쿄와 1,150km, 아세안 지역의 베트남과 2,700km, 싱가포르와 4,600km의 거리에 위치
- 외레순이 위치한 덴마크와 5,900km, 나파 벨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와 6,100km의 거리에 위치

■ 국내 지리적 위치



- 대상지는 국토 공간상 한반도의 중서부, 전라북도의 서북단에 위치
 - 전북권 개발계획상 전북지역의 북부권에 위치
- 반경 50km내에 새만금 간척지, 전주혁신도시, 대덕 연구단지 등이 위치
 - 주요 대도시권과의 거리: 대전 50km, 서울 180km, 광주 90km, 대구 155km, 부산 210k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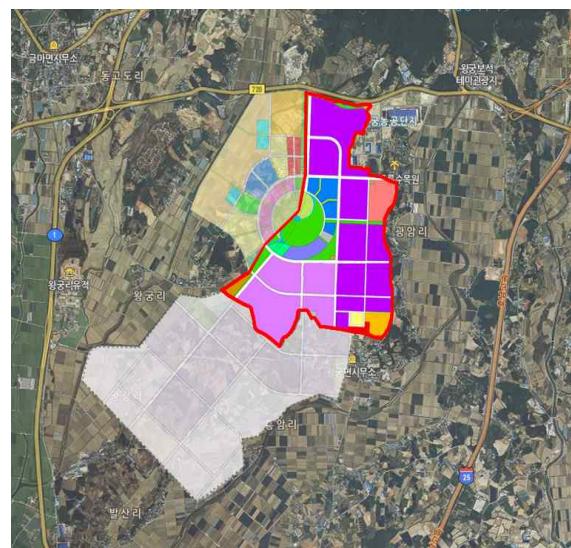
■ 주변 대규모 국책사업과의 연계



- 세종시, 새만금 간척지, 전주혁신도시 등 주변 지역의 대규모 사업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
 - 행정·업무기능(세종시), 생산·물류기능(새만금 간척지), 연구·교육기능(전주혁신도시)과 연계
 - 국내외 식품기업·연구소·대학과 푸드폴리스를 중심으로 R&D·생산·마케팅 분야 네트워킹과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해당함

② 고부가가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 조성

- 위치 : 전북 익산시 왕궁면
- 면적 : 232만 m²(70만평)
 - * 필요시 하단에 추가 확장
- 사업기간 : '12년 ~ '15년
- 사업주관 : 농식품부 · 전북도 · 익산시
- 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- 사업비 : 총사업비 5,535억 원
- 단지구성 : 5개 존으로 구성
 - * 산업시설, R&D단지, 기업지원, 테마파크, 기타



가. 비전 및 추진방향

□ 비전

- 이노베이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(푸드사이언스 파크) 조성

□ 기본방향

- R&D 중심의 이노베이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로 조성
- 종합 보세구역 지정 등 수출지향형 식품산업단지로 조성
- IT기술과 신·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친환경 청정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

나. 계획지표

- 산업단지 총면적은 2,322천m², 이주단지 752세대(인구 2,105명)로 계획
- 급수량은 총 18,647m³/일, 폐기물량은 총 61.7톤/일

구 분		단 위	계획지표	비 고
계획면적		(천 m ²)	2,322	
인구 및 세대수	상 주 인 구	인	2,110	
	세대당 인구	인/가구	2.8	익산시 도시기본계획
	세 대 수	가구	730	
공급처리 시설	급 수 량	m ³ /일	18,650	상주인구, 상근인구 기준
	상수보급율	%	100	
	하수처리율	%	100	오 · 폐수처리장 1개소
	폐 기 물 량	톤/일	62	

다. 입주계획

□ 주요 유치업종
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식품제조업(C10), 음료제조업(C11), 식품연관업종
 - 다양한 식품기업군을 대상으로 하되, 기능성, 발효식품 등 우선 유치·입주
- ①기능성·바이오식품 등 첨단기술 융합식품, ②발효식품, ③식품첨가물 등 소재식품, ④쌀 등 가공식품, ⑤기호식품(국산원료 결합형) 등을 '5대 전략식품'으로 집중 육성
 - * 성장기능성과 수출기능성, 농어업과의 연계성,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등 정책적 중요성 고려

□ 규모별 유치계획

- 국내외 식품기업 150개, 민간연구소 10개 유치
- 기업유치 대상은 선도기업(앵커), 중기업, 소기업과 민간 R&D 용지 면적을 합하여 1,571천 m²(전체면적의 67%)로 계획
 - 선도(앵커)기업은 매출규모 3천억원(해외는 5천억원) 이상 15개 기업
 - 중견기업은 매출규모 300억원(해외는 500억원)~3천억원(해외는 5천억원) 미만 85개 기업
 - 소기업은 매출규모 300억원(해외는 500억원) 미만 50개 기업
 - 식품 R&D시설은 민간연구소 10개 입주
- * 기업지원시설의 임대형공장에 융합기술 강소기업 등 50여개 입주 계획

<규모별 입주업체 현황 및 면적 배분 방향>

구 분	기업수(개)	업체부지면적 (천 m ² /개)	전체부지면적 (천 m ²)	비율 (%)
선도기업(앵커)	15	30/개	450	20
중 견 기 업	85	10/개	850	37
소 기 업	50	4/개	217	9
식 품 R & D 용지			54	2
산업시설 · R&D 용지(기업유치) 합계			1,571	67
기업 지원시설(6개 H/W) 용지			94	4
테 마 파 크 용 지			244	11
그 외 녹지·도로·이주단지 등			413	18
전체 식품산업단지 규모			2,322	100

라. 토지이용계획

□ 총괄

- 식품전문산업단지는 토지용도에 따라 산업시설, R&D단지, 기업지원 시설, 테마파크, 기타 등 5개 권역으로 조성

<산업 단지 5개 권역 현황>

구 분	면적	기업수	유 치 업 종
산 업 시 설 권 역	전략식품존 (집중육성)	350천 m ² (10만평)	50 · 기능성·바이오 등 첨단기술 융합식품, 발효식품 · 식품첨가물·설탕·전분 등 소재식품· 식자재·편이식품, 쌀 가공식품, 기호식품
	글로벌 식품기업존 (외국인투자지역)	450천 m ² (15만평)	30개 ·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지역
	물류유통존	100천 m ² (3만평)	5개 · 물류·집배송관련 업종 · 유통(운반)관련 업종 · 보관(저온 및 냉동저장) 등
	일반식품존 (지역식품 특화단지 등)	500천 m ² (17만평)	50개 · 제빵·제과류·면류, 음료, 일반주류 · 육·유가공·낙농, 수산 가공류
	식품연관산업존	100천 m ² (3만평)	15개 · 포장·용기류 · 음·식료품 가공기계류 ·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류
식품 R&D 권역	54천 m ² (1.6만평)	10개 연구소	· 민간연구소, 기업·대학 부설 연구소 등
기업지원시설(H/W) 권역	94천 m ² (2.8만평)	6개	· 식품기능성·안전성·패키징 센터 · 파일럿플랜트, 임대형공장, 지원센터
테마파크 권역	244천 m ² (7.9만평)	-	· 공원, 글로벌 테마파크, 저수지 등
이주단지 등 기타 권역	413천 m ² (12.5만평)	-	· 이주택지, 오·폐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· 도로·녹지 등

* 전략품목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(10년, 전북도)을 중심으로 작성

** 입주면적·기업수 등은 실제 투자유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□ 산업시설권역 : 1,517천 m²(460천평), 150개 기업

- 주요 업종 및 입주 기업성격에 따라 전략식품존, 글로벌식품기업존, 물류유통존, 일반식품존 등 5개 지역(Zone)으로 구분
 - **발효**(김치·간장·고추장 막걸리 등), **인삼**, **쌀가공식품** 등 종주국 위치에 있는 3대 분야 식품기업과 기능성·바이오, 소재·편이식품기업 우선 입주 추진

사업 개요		위치도
규모	1,517천 m ² (460천 평)	
기업수	150개	
주요 입주 업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략식품존 • 글로벌식품기업존 • 물류·유통존 • 일반식품존 • 식품연관산업존 	

Legend:

- 핵심전략식품존 (Red)
- 글로벌식품기업존 (Green)
- 물류·유통존 (Orange)
- 일반식품존 (Blue)
- 식품연관산업존 (Purple)

□ 연구시설(R&D)권역 : 54천 m²(16천 평), 10개소

- 산업시설권역의 중심부에 배치하고 국내외 식품연구소와 기업·대학 부설연구소를 유치, 신제품 개발 등 식품기업의 이노베이션 주도
- 민간연구소(10개) 지역과 기업지원 3대 R&D센터 등과 연계하여 식품 이노베이션 Zone(148천 m²)을 조성

사업 개요		위치도
위치	연구시설용지	
규모	54천 m ² (16천 평)	
연구소	10개	
주요 입주 업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능성·바이오식품 연구소 • 발효식품 연구소 • IT·BT·NT 등 식품융합기술 연구소 • 안전성 연구소 등 	

□ 기업지원시설권역(R&D센터 등) : 94천 m²(28천평), 6개소 등

○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6개 기업지원시설 · 편의시설 지역

- 산업단지 중심부에 랜드마크*로 배치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 추진

* 식품산업을 상징하고 미래 · 첨단을 내포할 수 있도록 구축

○ 3대 핵심 R&D시설

- 3대 R&D센터는 가장 핵심이 되는 시설로 민간 연구단지와 전략 식품존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앙에 배치
- 식품품질안전센터(식품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기관), 식품기능성평가 센터(성분 표준화, 기능성 · 안전성평가 등), 패키징센터 (기업패키징 지원 및 R&D)

○ 생산 지원시설

- 지식 창출형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구축
- 임대형공장(전략업종기업, 기술 융복합형 기업), 파일럿플랜트(시제품 테스트 및 위탁생산),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(산업단지 종합관리, 랜드마크)

사 업 개 요		위 치 도
위 치	지원시설용지	
규 모	94천 m ² (28천평)	
기 관 수	6개	
주 입 업 주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식품품질안전센터•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• 식품패키징센터• 임대형공장• 파일럿플랜트•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	

□ 테마파크권역 : 244천 m²(79천평)

○ 중앙공원(도리산공원과 중앙아고라광장), 체육공원, 연결녹지, 하천 등 글로벌 테마파크로서 푸드폴리스의 랜드마크 지역

- 낮은 야산과 저수지로 구성된 테마파크지역은 산업단지의 허파 역할 수행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장소로 활용

사 업 개 요		위 치 도
위 치	공원녹지용지(글로벌테마파크)	
규 모	244천 m ² (79천 평)	
주요시설 및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앙공원 : 173천 m² 테마파크 : 38천 m² * 연결녹지 포함 저수지 · 하천 · 체육공원 등 : 33천 m² 	

□ 이주단지 등 기타시설 권역 : 413천 m²(125천 평)

- 이주 택지단지(752세대) 조성, 오 · 폐수 및 폐기물 자동집화장 시설, 도로 · 녹지 등 공공용지 등 기타시설 지역

사 업 개 요		위 치 도
위 치	기타시설용지	
규 모	413천 m ² (125천 평)	
주요시설 및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주단지 : 95천 m² 오폐수 · 폐기물처리시설 등 : 37천 m² 도로 : 225천 m² 녹지(완충 녹지등) : 40천 m² 	

마. 토지이용계획안 및 조감도

○ 토지이용계획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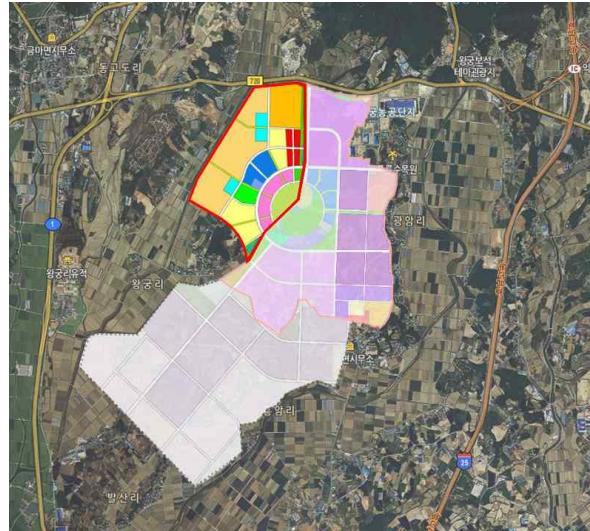


○ 토지이용계획표

구 분		면적(천 m ²)	비율(%)	비 고
총 계		2,322	100%	
자족용지	산업시설	소 계	1,517	65
		전략식품존	350	15
		글로벌식품기업존	450	20 외국인 투자지역
		물류·유통존	100	4
		일반식품존	517	22 원형지개발 포함
		식품연관산업존	100	4
	지원시설	연구시설	54	2
기타	주거용지	주거시설	주택	66 3 이주단지
	상업용지	상업시설	상업	14 1
	공원용지	테마파크	글로벌 테마파크	244 11 중앙·체육공원, 테마파크, 하천
	공공용지	기반시설	도로 등	333 14

③ 식품 종사자가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(배후도시)

- 위치 :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원
- 면적 : 126만m²(38만평)
- 사업기간 : '12년~'16년
- 사업주관 : 지자체
- 단지구성 : 4개 권역으로 구성
 - * 주거·상업·교육·문화·관광권역



가. 기본방향 및 비전

□ 기본방향

- 중·저층형 주거시설, 타운하우스 등 선진국형 주거타운 조성
- 글로벌 수준의 교육·의료 환경 조성
- 신에너지, 신교통 수단 등 U-City형 녹색 주거환경 조성
- 식품체험·전시관·박물관 등 글로벌 식품문화 도시 조성

□ 비전 및 목표

선진국 수준의 정주환경 조성

그린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

- 신에너지 기반 U-city형 주거환경
- 한옥타운, 전원주택, 고층층 주거 등 선진형 주거단지조성

글로벌 수준의 교육·의료 환경 조성

- 글로벌 수준의 교육 환경 제공
- 외국인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

식품·문화 콘텐츠의 식품문화특구 조성

- 식품, 전시·체험관, 박물관 구축
- 식품테마공원 등 글로벌 식품축제 기반 구축

나. 계획지표

- 총 면적은 126만m², 인구 약 20천명(7천여 세대) 계획
- 1개 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초·중·고등학교를 각 1개소 설치

구 분	단위	계획지표	비 고
계획면적	만 m ²	126	
인구 및 세대수	상 주 인 구	명	18,900
	인 구 밀 도	명/만 m ²	150명
	세대당 인구	명/가구	2.8
	세 대 수	가구	6,750
기초생활권(소생활권)	개소	1	19,000~23,000인/생활권
학 교	초 등 학 교	개교	1 4,000세대~6,000세대당 1개
	중 · 고등학교	개교	1 6,000세대~9,000세대당 1개
	대 학 교	개교	3
도시기반시설	근린공공시설	-	1/소생활권 주민자치센터, 소방파출소 등
	공 공 청 사	-	경찰서, 우체국 등
급수시설	급 수 량	m ³ /일	8,905
	상수보급율	%	100
	하수처리율	%	100

다. 주요기능 및 특화 전략

□ 주요기능

○ 주거지구

-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 및 외부 유입인구 수용
-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입주 근로자 특별공급 방안 강구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 지원
- 외국기업 투자 활성화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량 중 일정부분은 외국인 특별공급 실시
- 외국인 전용 및 단독·공동주택, 체류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 구축
 - * 고 · 중 · 저층형 주거시설, 타운하우스, 한옥타운 등
- 신·재생에너지(태양광·지열 등)를 활용한 탄소 저감형 주거단지 조성



<특화 주거단지 사례>



<한옥타운 예시>

- 도심농장(Urban farm), 옥상농원, 생태학습장 등 주말농장 등을 조성하여 도·농 문화교류 공간 구축



<도심농장(Urban farm) 사례>



<옥상농원 사례>

○ 상업지구

- 산업단지 및 배후단지의 금융, 유통 등 업무 기능 수용
- 산업단지 종사자와 배후단지 입주자를 위한 의료타운을 조성, 특히 외국인을 위한 전담통역 배치 등 글로벌 산업단지 기능 지원
- 한식거리, 글로벌 식품거리 등 식품산업 특화 상업지역으로 조성
- 세계 식품 유통·상업의 거점화(CBD조성*) 단지 및 체류형 숙박단지 조성
* CBD : 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업무지역



<특화 상업지역 예시>



<세계식품 상업시설 예시>

○ 교육지구

- 식품 특성화고, 식품 특성화 대학(기능성 · 발효 · 디자인대학) 등 유치
 - * 식품관련 대학원 및 국제·한식조리 아카데미 등 식품 교육기관 집적화 추진
- 외국인 학교, 국제학교, 영어마을, 외고, 특수목적고 유치 등으로 우수 인력 유치
 - * 외국 기업 및 연구소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등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설립·유치



<국제 · 한식조리 아카데미 예시>



<외국인학교 예시>

○ 문화·관광지구

- 식품문화 명소화를 위한 지역별·테마별 문화공간 구축
 - * 글로벌식품테마공원, 식품 체험·전시장, 전통식품박물관, 컨벤션센터 등
- 도리산을 중심으로 역사·문화·축제*가 조화된 식품문화복합단지 조성
 - * 미술·영화·가요제, 식품박람회, 세미나, 지역축제(서동·천만송이 국화축제 등)
- K-POP 열풍을 테마로 연계한 K-FOOD 축제 및 국제식품엑스포 개최



<세계 식품 테마거리 예시>



<식품 체험장 예시>

□ 특화전략

○ 명품화 주거단지 조성

- 타운하우스, 한옥타운, 전원주택 등 조성
- 단지내 U-city, 범죄예방시스템(CPTED*)등의 구축

*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



○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

- 태양광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단지 조성
- 공원·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 단지 조성
- * 도리산 중앙공원 및 십자형 녹지축 형성
- 폐기물 자동 차집시스템 구축



○ 식품을 테마로 한 식품문화특화도시 건설

- 글로벌식품테마파크*, 식문화 체험공간 및 전시관, 식품 박물관, 컨벤션센터 등 식품특화시설 조성

* 우리 전통인 발효식품을 상징하는 장독대공원, 에펠탑·자금성·자유의 여신상 등 글로벌 랜드마크공원, 물길로 에워싸인 태극섬, 야외 만찬장(경회루), 열린공간 등으로 구성

- 식품전시·체험 미래첨단식당*, 글로벌식품 쇼핑몰, 식물공장(버티컬팜), 업무(연구) 공간, 숙박시설(호텔), 전망대 등이 입주하는 (가칭)퓨처팜(미라클팜)빌딩**을 유치
- * 신제품 개발시 과학적 소비자 반응 조사, 개인 맞춤형 식품개발·연구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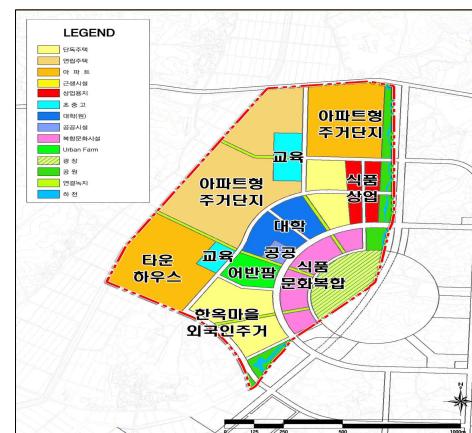
라. 토지이용계획

□ 총괄

○ 배후복합도시는 4개 권역으로 구성

- 주거시설(71만m²), 교육시설(11만m²), 상업시설(4.1만m²), 문화·관광시설(7.3만m²)
- * 기타 시설용지 32.7만m²

○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식품문화도시



- 산업과 주거, 상업 및 문화가 조화된 인간중심 자족형 주거단지
- 도시의 중심성 강화 및 산업단지 연계를 위해 주요기능 배치

□ 주거시설 지구

- 글로벌 식품문화도시, U-City 기반 스마트 주거공간 조성
 - 외국 기업·연구소를 위한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
 - 타운하우스, 고·중·저층 주거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 확보

개 요		위 치 도
규 모	710천 m ² (215천 평)	
주 요 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옥마을 •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• 타운 하우스 • 고·중·저층 주거단지 	

□ 상업시설 지구

- 글로벌 식품거리 등 상업지구 조성
 - 글로벌 식품 스트리트몰,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상업·쇼핑공간 조성
 - 관광객, 청소년 등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

개 요		위 치 도
규 모	41천 m ² (12.4천 평)	
주 요 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품테마 스트리트 몰 • 국가별 식품 상업·쇼핑 공간 • 게스트하우스, 숙박시설 	

□ 교육시설 지구

-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형 교육환경 조성
 - 영어마을, 외국인 학교 설립·유치로 국제경쟁력 확보
 - 식품관련 특성화고, 특성화 대학 설립·유치로 우수인력 확보

개 요		위 치 도
규 모	110천 m ² (33천 평)	
주 요 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 · 중 · 고등학교 식품관련 대학 및 대학원 글로벌 외국인 학교 설립 · 유치 국제적 수준의 요리학교 등 	

□ 문화·관광·공원 지구

○ 다양한 문화·관광 행사를 위한 식품문화테마복합시설 조성

- 식품 전시 · 체험장, 박물관, 식품문화관 등 유치로 제조-체험-마케팅-관광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식생활 교육 장 제공
- 식품박람회·식품 비즈니스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유치

○ 세계 각국의 주요 랜드마크 조형물*을 유치,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관광지로 육성

- * 파리 에펠탑, 중국 만리장성 · 자금성, 미국 자유의 여신상, 타지마할 등을 축소(1/2~1/10) 설치, 우리나라에는 장독대 공원 · 숯가락 타워, 첨성대 설치 등
- 세계적인 식품문화 · 관광 명소화로 식품산업의 6차 산업화 주도

개 요		위 치 도
규 모	245천 m ² (81천 평)	
주 요 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품전시체험관 식품전문 컨벤션센터 글로벌 식품관 식품박물관·문화관 8도 향토식품관 미래첨단식당* * 퓨처팜빌딩에 입주 글로벌테마파크(글로벌 테마공원, 중앙열린광장, 연결녹지 등) 어반팜, 공원 · 하천, 연결녹지 	

□ 도로, 녹지 등 기타시설 권역 : 155천 m²(51천 평)

○ 도로, 녹지 및 공공청사 ·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 지역

<참고>

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테마파크

- (위치) 산업단지와 배후단지 사이의 50m폭의 글로벌 테마공원과 태극문양의 중앙공원(도리산공원과 열린광장)과 하단의 체육공원까지 포함
- (면적) 글로벌테마공원 109천 m², 중앙공원 229천 m², 하천 27천 m², 체육공원 18천 m² 등 총 383천 m²

- (구성) 산업단지와 배후단지 사이의 글로벌 테마공원, 태극문양의 중앙공원과 체육공원 · 하천 등으로 구성

- 글로벌 테마공원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랜드마크 조형물*을 유치

* 파리 에펠탑, 중국 만리장성 · 자금성, 미국 자유의 여신상, 네덜란드 풍차, 인도 타지마할 등을 축소(1/10~1/30) 설치하고, 하천에는 세계 유수 다리모형도 설치

- 태극문양의 중앙공원은 중앙열린광장과 도리산공원, 연결녹지로 구성
 - 중앙열린광장은 잔디공원과 우리나라의 장독대 단지 · 숟가락 타워, 첨성대 등 전통 농식품테마와 경관작물단지, 세계 화원단지 등으로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활용, 다양한 축제 · 이벤트 개최 등 세계인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

* 글로벌 테마존에서 흘러오는 하천을 태극문양 중앙과 외부를 감싸고 흐르는 물길을 만들어 섬 모양으로 조성하고, 중앙의 물 광장에는 경회루형태의 야외 전통연회장을, 외부와 연결되는 곳은 우리 전통 다리모형을 각각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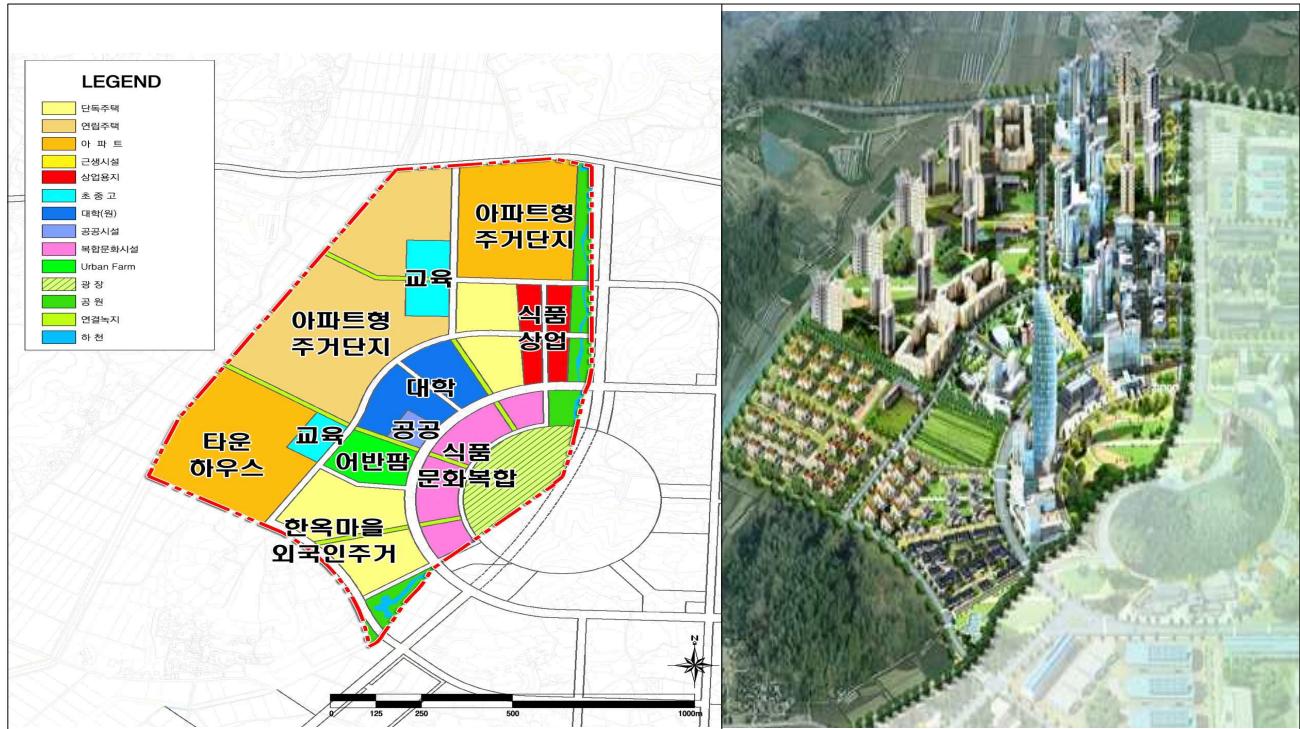


- 도리산공원에는 산이라는 지형을 활용한 대형 물레방아를 설치하고, 산의 상부는 원형 유지하되 하단부에는 세계 각국의 '나라꽃(國花)'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세계 최초의 '나라꽃동산*'을 조성,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공원을 조성
 - * 만국동산은 1국 1평 규모의 300평 규모로 조성(200여국 대상)하되, 우리나라(무궁화 동산)와 우선 조성희망 30여 국가에 대해서는 스페셜 동산(각국 부담)으로 조성
- 연결녹지는 열린광장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산업단지를 서쪽으로 주거단지를 가로지르는 30m 폭의 가로수길(사례 :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어 · 은행나무길 등)로 조성
 - 세계 유수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각국의 대표 가로수 등을 활용

- (기대효과) 글로벌 테마파크는 인근의 식품을 소재로 디자인 한 공장들과 함께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글로벌 식품문화의 관광 명소화 하는데 기여

마. 토지이용계획안 및 조감도

○ 토지이용계획 및 조감도



○ 토지이용계획표

구 분	면적(천 m ²)	비율(%)	비 고
총 계	1,261	100%	
주거용지	소계	710	56
	단독주택	153	12 한옥타운, 선진형 주택
	연립주택	259	타운하우스, 외국인 전용주거단지
	아파트	289	저·중·고층 마파트
	근생시설	9	음식점, 슈퍼 등 주민 편의시설
상업용지	상업시설	41	식품 테마파크, 스트리트몰
교육용지	소계	110	9
	초·중·고	46	초·중·고 각 1개소, 식품특성화고 등
	대학(원)	64	식품특성화(발효·기능성·디자인)대학(원)
문화·관광·공원용지	소계	245	20
	복합문화시설	73	식품전시·체험관, 식품박물관, 식품문화관, 8도향토식품관 등
	테마파크, 어반팜	172	글로벌테마파크, 어반팜, 연결녹지, 하천, 공원 등
기타 용지	도로, 녹지 등	155	12 도로, 공공시설, 녹지 등

④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 구축

1. 교통시설 설치계획

- ◆ 공항, 항만, 도로, 철도 등 종합적 광역교통망 구축
 - 군산공항 국제공항 추진시 군산항과 연계한 해외물류체계 구축
- ◆ 입주기업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선진 지역교통망 구축
- ◆ 주변교통체계와 연계 및 입주기업을 위한 단지 내 교통망 구축
 - 근로자 등 여객과 입주기업 화물발생 수요를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
 -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

① 공항

□ 현황

- 인근에 군산공항 50km(50분), 광주공항 110km(70분), 청주공항 120km(90분) 및 무안공항 130km(2시간) 등과 인접해 있고, 3시간 거리에 인천공항 위치함
 - * 제4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(2010), 국토해양부
- 인근공항은 여객운송 위주로 운영
- 항공물류는 국내 총 화물량의 0.1%(254천톤/년), 국제 총 화물량의 0.3%(2,872천톤/년) 분담(국가물류기본계획 2011~2020, 국토해양부)
 - 항공 물동량 중 농식품분야(농·수·임산물)의 비중은 0.3%
 - * 항공 수출입 화물 분석, 2011, 항공진흥협회

< 군산공항 현황 >

(단위: 년간)

구분	운항(편수)	여객(명)	시설현황	
			부지면적(m ²)	연간처리능력(회)
국내선도착	695	89,520	142,803	140,000
국내선출발	692	85,118		
계	1,387	174,638		

*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(www.airport.co.kr), 2011년

□ 수요예측

○ 새만금 및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수요 증가 예상

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될 항공 물동량은 '20년 5.4천톤, '25년 7.2천톤으로 추정(보잉 767-300 54톤, 보잉 747-400 117톤 분량)
 - * '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동량은 국제 총화물 물동량 증가율(33%)을 고려하여 추정

< 군산공항 물류수요 추정 >

(단위 : 천톤)

연도	우리나라 국제 총화물 물동량*	군산공항 물동량**	국가식품클러스터 발생 물동량
2011	4,236	-	-
2020	7,475	1.7(0.02%)	5.4
2025	9,922	2.4(0.02%)	7.2

* 국가물류기본계획, 국토부, 2011

** 전북지역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 연구, 국토부, 2009

□ 추진방향

○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공항으로 확장(승격) 필요

- 식품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어 국제항공 물류 증가가 예상되는 '17년 이전에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확장(승격) 추진
 - 관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개항*(開港) 등 추진
- * 외국무역선이나 외국 무역기는 개항에 한하여 운항 가능(관세법 제134조)

<개항의 지정 요건>

구 분		지정요건 및 기준
시설 · 장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밖에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· 장비 구축 * CIQ시설 (세관-Customs, 출입국관리-Immigration, 검역-Quarantine)
여객	공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형기급 정기여객기 주 6회 이상 입항 ○ 과거 1년간 입국 여객수가 15천명 이상이거나 향후 1년간 동일한 수의 여객 입국 예상
	항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거 1년간 입국여객수 5천명 이상이었거나 향후 1년간 동일한 수의 여객 입국 예상
화물	항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거 1년간 수출입 화물량 5만톤 이상이었거나 향후 1년간 동일한 수출입 화물량 예상, 5천톤급 이상 선박 연간 50회 이상 입항

*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 및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(관세청고시 제2009-87호)

<권역별 공항 분포>

구분	중부권	동남권	서남권	제주권	
● 중추공항	인천공항				
● 거점공항	김포공항 청주공항	김해공항 대구공항	무안공항	제주공항	
■ 일반공항	원주공항 양양공항	울산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	광주공항 여수공항 군산공항		
△ (소형공항) * 미 확정		(울릉도)	(흑산도)		

*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('11.1.5 국토부 고시)

② 항만

□ 현황

- 항만물류는 분담률은 국내총화물량의 17.4%(126,964천톤/년), 국제총화물량의 99.7%(848,299천톤/년) 분담
 - * 항공통계('10년), 국토해양부
- 푸드폴리스 인근에 군산항 40km(40분), 평택·당진항 110km(60분), 인천항 170km(150분), 새만금 신항 60km(50분)인접
 - 양곡전용보관시설(Silo)을 갖춘 항만 6개중 4개 부두에서 양곡류 취급
 - * 양곡전용보관시설 10만톤 2기 운영
 - * 국제곡물 운송 선박 규모 : 대형 7만톤, 중형 5만톤
- 전북 물동량은 군산항을 거점항으로 하여 해상물류 처리
 - 군산항은 연안국토축(환황해축)과 동서내륙축(남부내륙축)의 거점지역
 - *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00~2020)
 - 5만톤급 21척 등 31척의 대형선박이 동시에 접안 가능
 - * 1,817만톤 수입량 935만톤, 수출량 447만톤('11.11월말), 수심 9.8m
 - * 17톤/TEU으로 환산(총중량 24톤-자체중량2.3톤) × 0.8

<군산항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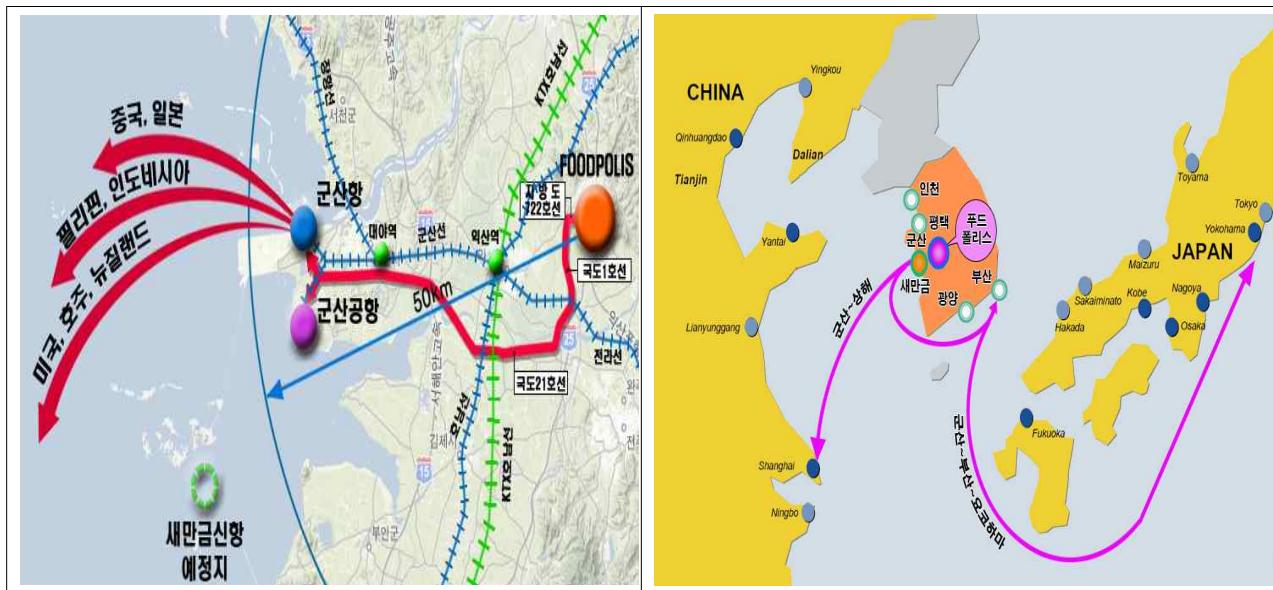
부두명	길이(m)	점 암 능 력 (DWT×선식)	약적장 (천 m ²)	창고 (m ²)	취급화물
합 계	4,626		871	83,104	
제1부두	525	20,000×1, 10,000×2	140	12,697	양곡, 원목, 잡화
제2부두	551	20,000×2, 5,000×1	53	-	양곡, 원목, 잡화
제3부두	640	20,000×3	151	12,030	양곡, 원목
제4부두	300	20,000×1	85	-	자동차
제5부두	1,680	20,000×8	262	37,809	자동차, 잡화
제6부두	930	50,000×4, (340천 톤×2척)	180	20,568	양곡, 컨테이너

*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보 발췌

<네덜란드 로테르담항 현황>

- 푸드밸리에서 102km 위치
- 항만 총면적 10,500 ha, 항만 총 길이 40 km, 터미널 총 88개
- 세계 10위, 유럽 1위 무역항(2010년) * 1위 상하이항, 5위 부산항
- '10년 물동량 18,870만톤(1,110만TEU)
- 주변 500km 이내에 유럽 인구의 40%가 집중, 유럽의 Gateway

< 항만을 통한 해외 주요국가 수출항로 >



□ 수요 예측

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되는 항만 물동량은 '20년 1,795천톤, '25년 2,063천톤으로 추정
 - * '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동량은 국제 총화물 물동량 증가률(15%) 고려
- 새만금 및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'25년경에는 군산항 용량 초과 예상(2,063천톤)

< 군산항 물류수요 추정 >

(단위: 천 톤)

연도	우리나라 국제 총화물 물동량*	군산항 물동량		군산항*** 시설 용량	부족 용량
		군산항** 물동량 추정	국가식품클러스터 물동량 추정		
2011	963,050	18,170	-	22,000	총 족
2020	1,463,144	28,037	1,795	29,863	총 족
2025	1,681,724	31,000	2,063	29,863	3,200

* 국가물류기본계획, 국토부, 2011, ** 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, 2011. 7

***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, 2011. 12

□ 추진방향

- 군산항 용량 초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새만금에 건립 계획인 새만금 신항만 활용

- 새만금 신항만을 농식품 수출·수입 원료항으로 활용 계획

<새만금 신항만 추진현황>

- 접안능력 : 컨테이너부두(3.4만톤) 2선석, 잡화부두(2만톤급) 14선석, 자동차부두 1선석, 크루즈부두(8만GT) 1선석
- 하역능력 : 1,729만톤/년
- 1단계('11년~'22년) 52만^{m²} 4선석, 2단계('21년~'30년) 436만^{m²} 14선석
- *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, 2010.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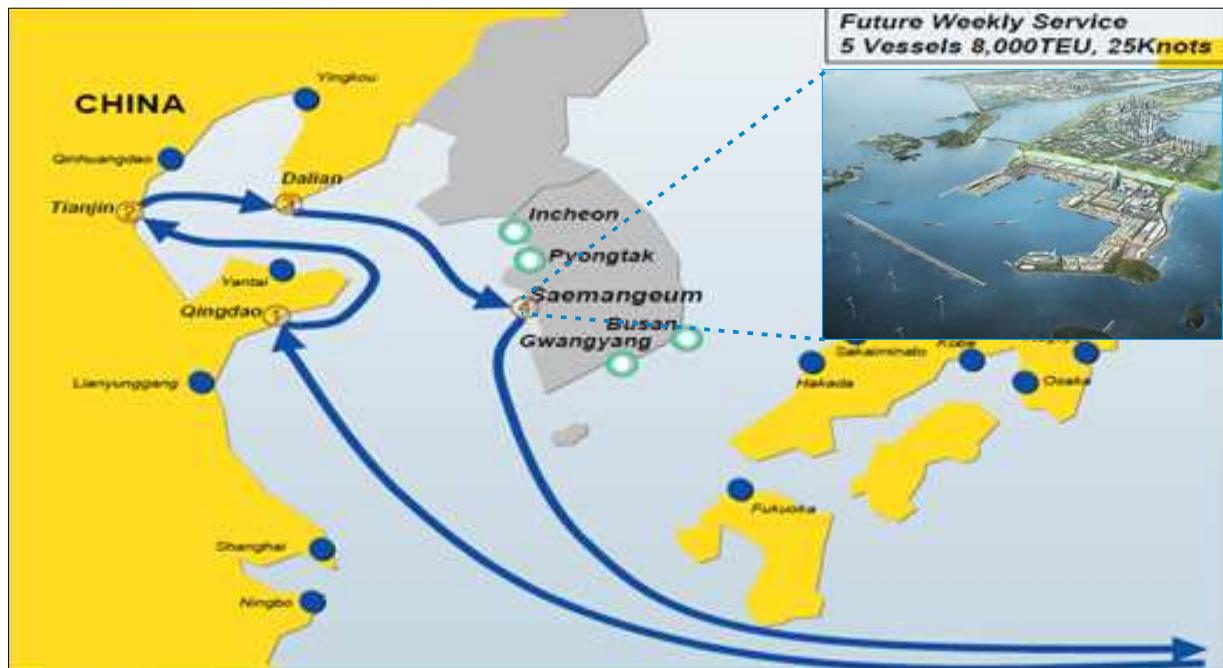
< 새만금 신항만을 고려한 항만 물류 용량 추정 >

(단위: 천톤)

연도	부족 용량	새만금 신항 발생용량	새만금 신항 신설용량*	여유용량
2020	-	1,037	2,560	총족
2025	3,200	3,307	18,000	총족

*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, 2010.10

< 2020년 이후 환황해권 원양 운송 항로 전망 >



* 전북발전연구원, 새만금 신항의 식품전용 항만 특화 방안 관한 연구

③ 철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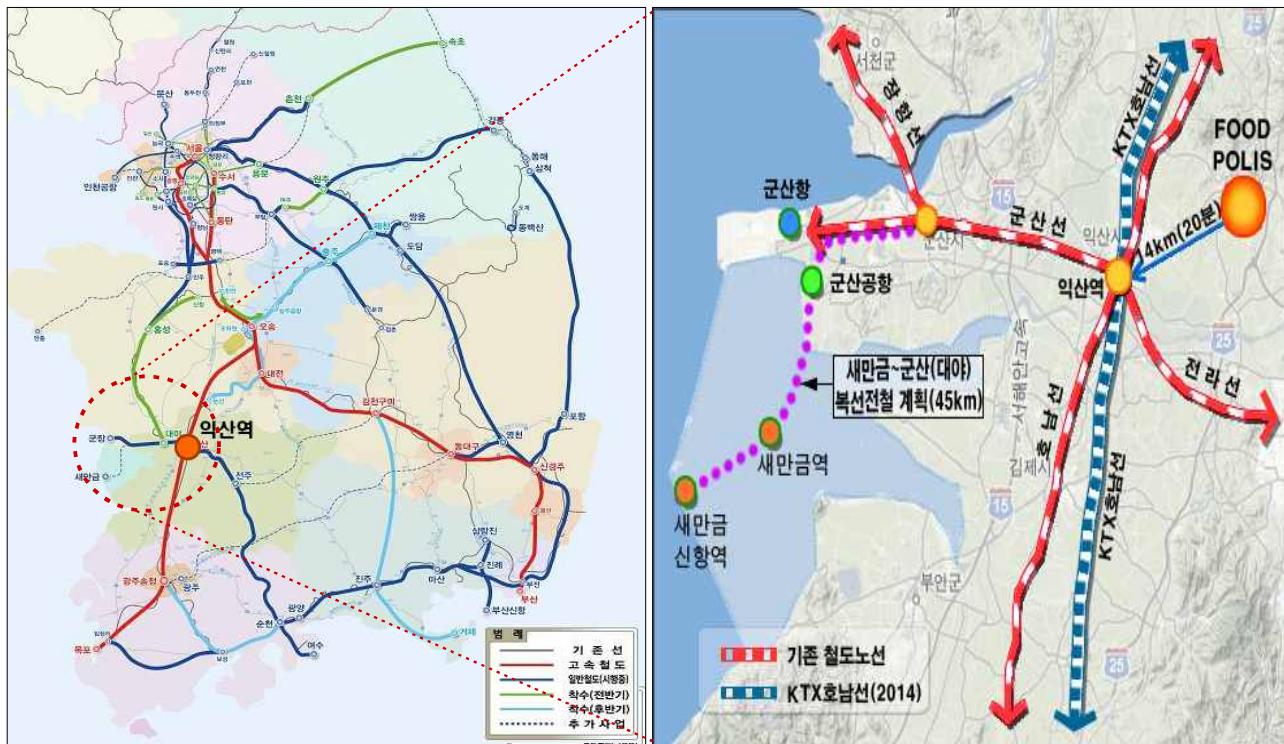
□ 현황

- 철도물류는 국내 총 화물량의 6.4%(46,805천톤/년) 분담
 - * 국토해양통계누리('09년), 국토해양부
- 익산은 4개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
 - 호남선, 전라선, 군산선, 장항선 통과로 물류량 처리 여건 양호
 - 오송~광주간 호남고속철도(KTX)는 '14년 완공을 목표로 신설 공사 진행 중
 - * 서울(용산) ~ 익산 115분 → (개통후) 68분
 - * 호남고속철도(KTX) 정착역인 익산역과 산업단지간 약 20분 소요
- 식품산업단지(푸드폴리스)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국 항만과 공항 등 주요시설까지 접근성 양호하나,
 - 국가식품산업단지에서 기존 철도망(익산역)까지 노선은 없음

□ 주요 추진과제

-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철도운송 체계 추진
 - 연장(익산역~푸드폴리스)철도 개설 전까지 셔틀화물 · 버스 등 연계망 검토
 - 군산(대야)~새만금 신항까지 총 연장 45km의 복선전철 계획과 연계하여 익산역에서 식품산업단지까지 철도노선 연장 추진 검토
 - 장기적으로 전북도 식품관광(쌀을 활용한 라이스 파크) 거점화 일환으로 인근 전주첨단과학단지, 혁신도시, 순창 장류단지 등과 연계한 화물 · 관광용 순환 경철도(경전철) 등 신교통 수단 구축 검토
- 예) 나파밸리의 와인트레인, 풍선기구 탑승 관광 상품화로 성공

< 철도교통망 현황 >



④ 도로

□ 현황

- 도로물류는 국내 총 화물량의 76.2%(555,801천톤/년) 분담
 - * 국토해양통계누리('09년), 국토해양부
- (고속도로) 남북으로 호남고속도로 2km(3분), 서해안고속도로 27km(30분)와 인접하고, 동서로는 익산~장수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물류처리 여건 양호
 - * 서울 2시간 20분, 부산 3시간 30분, 인천 2시간 30분
- (국도) 국도 1호선, 21호선, 26호선과 지방도 722호선 인접

익산 IC 3분, 전북혁신도시 10분, 새만금 30분, 행정중심복합도시 50분대 접근 가능

 - 지방도 722호선, 국도 1호선, 국도 21호선(자동차 전용도로) 활용시 새만금 및 군산항까지 30분 소요됨으로 수출입 물류교통 여건 양호

<푸드폴리스~군산항간 물류 도로망 현황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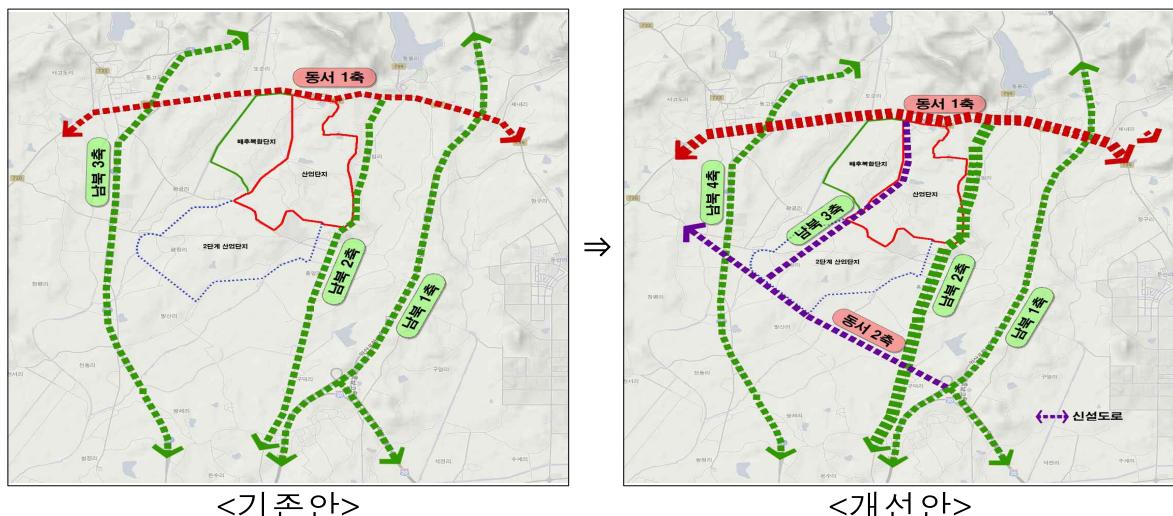
□ 문제점

- 산업단지 진입 도로 폭 협소
 - 지방도 722호선(4차선), 국도 19호선(2차선) 도로 폭 협소

□ 주요 추진과제

- 국가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장래 수요 증가에 따라 확포장
 - 동서 1축인 지방도 722호선 확장(익산C~산단간) L=2.1km, 4차선 → 6차선
 - 남북 2축인 국도 19호선 확장(지방도 722호선~사업부지) L=1.7km, 2차선 → 4차선으로 확장, 산업단지 진·출입 교통량 분산처리
- ※ 입주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필요

< 지역교통망 계획 >



< 교통시설 확충시 소요액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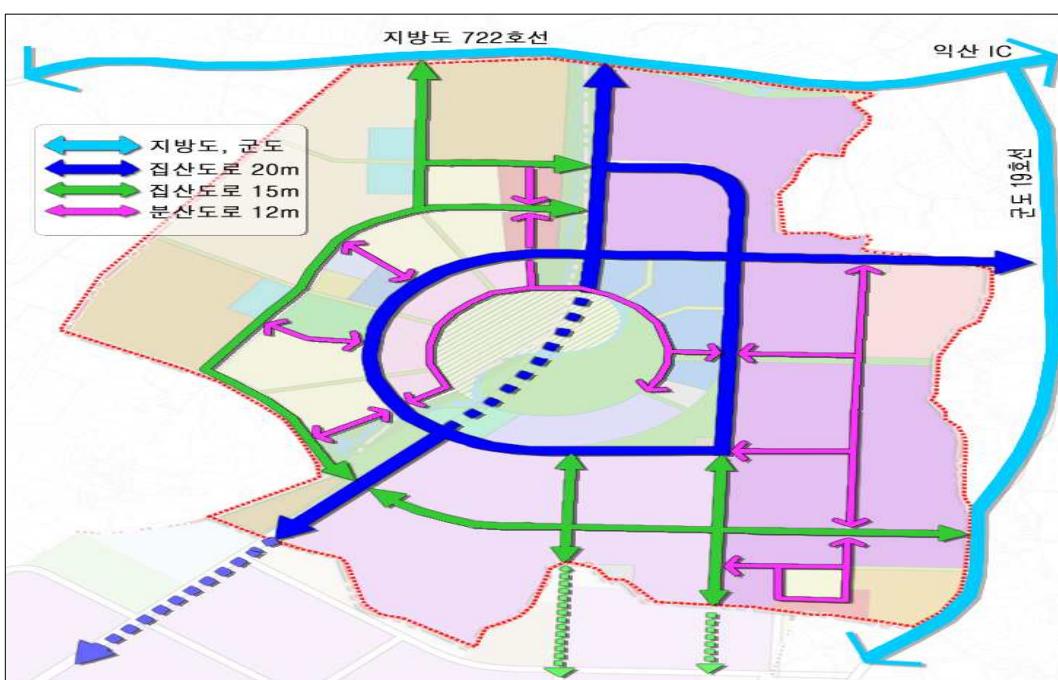
명 청	설 치 내 역	시설규모	사업비
합 계		4.1km	477억원
지방도 722호선 확장	익산IC~사업부지	- L=1.4km - 4차선→6차선 확장	263억원
군도19호 확장 및 진입도로(A,B) 신설	지방도 722호~진입도로	- L=2.7km - 2차선→4차선 확장	214억원

* 관련법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○ 국가식품산업단지 내부 교통망 구축

- 지방도 722호선 및 군도 19호선 확장과 연계하여 식품전문산업 단지 진출입 연결 및 교통량 분산
- 산업단지와 군도 19호선 연결을 위한 진입도로 2개 신설(L=400m)
-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체계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
- 효율적 토지이용과 교통소통을 위해 격자망 가로망 구축
- 단지 내 교통흐름을 위한 집산·분산도로 계획
- 근로자, 주거자 등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망 구축

< 단지내부 교통망 구축 계획도>



○ 배후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신교통수단을 활용한 저탄소형 교통체계 구축

- (신교통수단) 친환경성, 교통약자 접근성, 미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한 신교통 수단(AGT, GRT, TRAM 등)을 푸드폴리스 내 도입 검토



<AGT* 사례>



<GRT** 사례>



<TRAM 사례>

* Automated Guideway Transit ** Guided Rapid Transit

- 푸드사이언스파크와 푸드시티를 연결하는 입체적 순환링 교통체계 도입
- (복합환승체계) 신교통 수단으로 대중교통과 단지내를 연계하는 복합환승시설 도입 제안
- (자전거도로) 공간적 ·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계획 및 공용자전거 관리소 설치(프랑스 파리(Velib), 미국 UC Davis 등)
- (보행자도로) 보행자 교통량, 주변 토지이용, 보행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휴먼스케일 보행 네트워크 구축

○ 연계 교통망 확보

- 연장(익산역~푸드폴리스)철도 개설 전에는 대중교통 · 셔틀화물 등 활용
- 장기적으로 전주첨단과학단지, 전주 · 완주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신교통 수단의 광역 교통망 구축* 검토

* 푸드폴리스에서 모든 국가기간망(새만금 신항 등)까지 연결되는 광역 교통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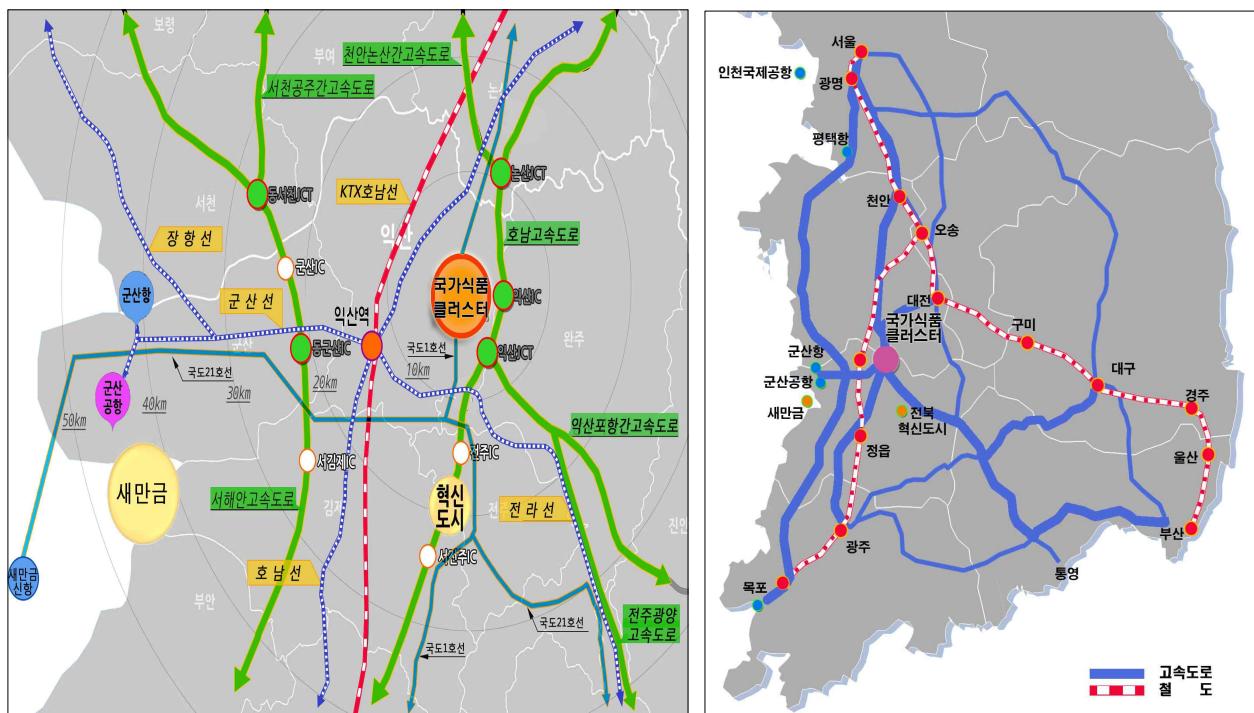
** 산업단지 조성시 신교통 저탄소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검토

○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해 주차장 지하화

- 녹지공간을 확보,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입주자 협의회 등을 통하여 주차장 지하화 추진 및 지원방안 강구

< 참고 >

푸드폴리스 교통체계 종합



<광역 도로 및 철도 현황>

<광역·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>

종류 구분	현 황	계 획	
공항	-군산공항(확장용지 6.0km ² 기 확보) -광주공항, 인천공항	-수요변화를 고려해 국제공항 신설 검토	
항만	-군산항, 평택·당진항	-새만금신항 개발예정	
철도	-호남선, 전라선 -군산선, 장항선	-호남고속철도('14년 완공) -전라선 복선화사업('11년 완공)	
도 로	고속 도로	-호남·서해안 고속도로 -장수·익산간 고속도로 -전주~광양간 고속도로	-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('13년~'20년)
	국·지 방도	-국도 1호, 23호 -국도 21호, 27호 -지방도 722호, 군도 19호선	-지방도 722호 확장(2차선→6) -군도 19호선 확장(2차선→4)

2. 용수공급계획

- ◆ 식품산업단지임을 고려하여 1급수를 정수 처리하여 용수 공급
- ◆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 및 단지 전용 배수지 신설

① 현황

□ 기존 산업단지 용수공급 현황

- 산업단지는 생활용수, 공업용수^{*}를 사용

- * 생산과정 등에 사용하는 물로 정수처리 없이 용수에서 불순물을 침전시켜 사용
 - 일부 농공단지 등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음

□ 주요 식품기업 용수 사용 현황

- 주요 식품기업들은 상수도를 공급 받아 자체에서 정수하여 사용

- 지하수는 수질 오염 우려와 수량 확보가 어려워 사용량 감소 추세

- 식품품목별로 적합한 수질 확보를 위해 상수도를 정수하여 사용

- 익산시 소재 식품기업(삼양, 오리온, 하림)은 모두 상수도 사용 중

* 삼양식품(3만톤/년), 오리온(5만톤/년), 하림(99만톤/년)

< 주요 식품기업 용수별 현황 >

식품기업	식품분류	사용량 (만톤/년)	상수도	지하수	공업용수	비고
CJ제일제당 (진천)	두부, 육가공	206	76%	23%	1%	2009 지속경영보고서
오뚜기	라면, 소스 즉석밥	57	53.6%	46.4%		2011환경보고서
삼양사 (울산공장)	제당	238	100%	-	-	2010 지속가능보고서
풀무원	생면, 두부, 생즙	272	78%	22%	-	2010 지속경영보고서

② 수요예측

○ 총 용수량 $27,552\text{m}^3/\text{일}$ 추정(공업용수 15,771, 생활용수 11,781)

○ (공업용수) 산업단지 수요예측 총 수량은 $15,771\text{m}^3/\text{일}$ 로 추정

* 식품업종의 대한 산업시설 면적(1km^2)당 $11,130\text{m}^3/\text{일}$ 로 산정

* 산출근거 : '08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(환경부, 국토해양부)

< 공업용수량 산정 >

구분	산업입지 1km^2 당 용수 원단위($\text{m}^3/\text{일}$)	산업시설용지	소요 용수량 ($\text{m}^3/\text{일}$)
식품업종	11,130	1.4km^2	15,771

○ (생활용수)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의 수용인구에 따른 수요예측 총 수량은 $11,781\text{m}^3/\text{일}$ 로 추정

< 생활용수량 산정 >

구 분	수용인구 (인)	원단위 ($\text{m}^3/\text{인} \cdot \text{일}$)	일평균급수량 ($\text{m}^3/\text{일}$)	일최대급수량 ($\text{m}^3/\text{일}$)
합 계	31,160	-	9,078	11,781
산업 단지	소 계	12,260	2,482	2,876
	산업시설용지	5,810	0.15	872
	연구시설용지	221	0.15	33
	물류시설용지	3,000	0.15	450
	지원시설용지	978	0.349	460
	상업시설용지	146	0.349	69
	이주단지	2,105	0.349	992
배후 도시	소 계	18,900	6,596	8,905
	주거용지 등	18,900	0.349	8,905

* 수도법 제4조,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(안), 2010

- (지하수) 상수도 용량의 10%를 고려하여 수요예측 총 수량은 $2,755\text{m}^3/\text{일}$ 산정
 - 일부 식품기업에서 지하수가 필요한 경우, 지하수 영향조사 등 필요

③ 주요 추진과제

- 국가식품클러스터 총 수요량을 공급할 수 있는 수원(水源)지는 기 확보
 - * 수도정비기본계획(2010), 상수도 급수시설용량
- 총 시설용량은 $21.7\text{만m}^3/\text{일}$ 로 여유용량은 $6.9\text{만m}^3/\text{일}$ 으로 원활히 용수공급
- 전북 진안의 용담댐(1급수)을 수원(水源)지로 하여 전주권광역상수도를 통해 용수공급 * 용담댐 저수용량 815백만 m^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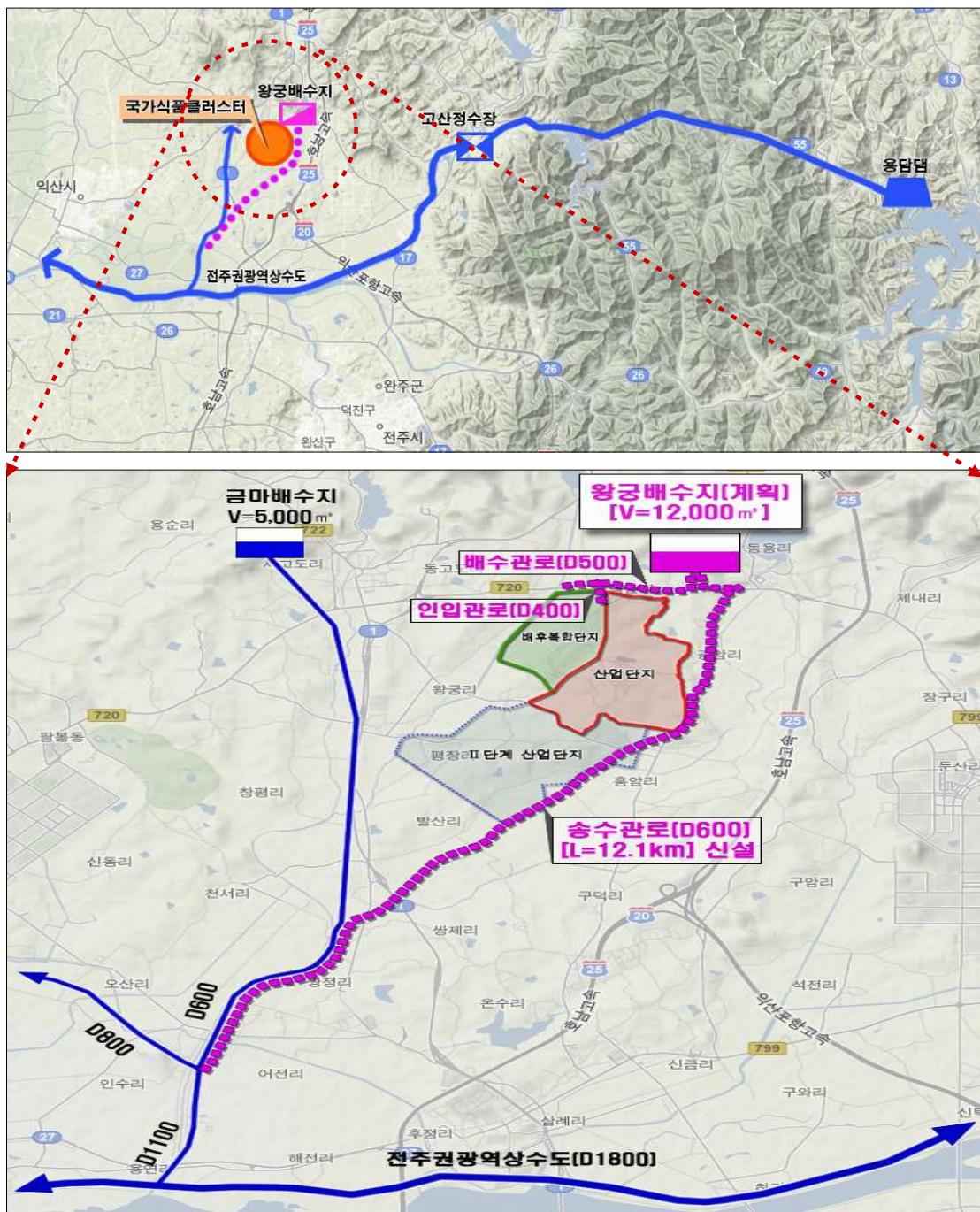
< 상수도 급수시설용량 현황 >

구 분	시설용량 ($\text{m}^3/\text{일}$)	'15년 필요 용수량 ($\text{m}^3/\text{일}$)	용수량(여유분) ($\text{m}^3/\text{일}$)
소 계	217,200	148,240	68,960
생활용수	182,200	127,980	54,220
공업용수	35,000	20,260	14,740

□ 수질 좋은 용수의 안정적 공급 추진

- 입주기업의 주생산품목이 음·식품이여서 양질의 물과 안정적인 공급 필요
 - *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, 먹는물 수질 기준 공급
- 왕궁 배수지($V=12,000\text{m}^3$) 설치 및 월 2회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
 - * 식품산업단지 지구내 $V=8,700\text{m}^3$
- 용담댐의 물을 전주권광역상수도(D1800)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왕궁배수지를 신설
 - 왕궁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해 산업단지 공급

<용수공급 및 관리체계도>



* 용수 관련시설 신설시 소요액 현황

명칭	설치내역	시설규모	사업비	비고
합계	-	-	121억원	
왕궁배수지	신설	V=12,000톤/일	46억원	
배수관로	생활+공업	L=1.5km	6억원	국고지원 포함
송수관로	생활+공업	L=12.1km D=600mm	69억원	

* 상기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3. 오·폐수 처리계획

- ◆ 생활오수·공장폐수 효율적 처리 및 방류수역 수질환경을 고려한 하수처리계획 추진
- ◆ 친환경 단지를 위한 지하 하수처리장 설치 및 처리수 활용

① 발생량 예측

- 산업단지·배후도시에서 발생되는 총 오·폐수량은 총 $21,172\text{m}^3/\text{일}$ 예측
- 공업폐수량 $11,259\text{m}^3/\text{일}$, 생활오수량은 $9,913\text{m}^3/\text{일}$ 예측

< 공업폐수량·생활오수량 예측 >

구 분	급수량 ($\text{m}^3/\text{일}$)	유효 수율 (%)	오수 화율 (%)	폐수 화율 (%)	일최대 오·폐수량 ($\text{m}^3/\text{일}$)	지하수 (10%) ($\text{m}^3/\text{일}$)	소계 ($\text{m}^3/\text{일}$)
합 계	27,552						21,172
공 폐 수 량	소계	15,771	-	-	-	-	11,259
	산업 단지	15,771	-	-	64.9	10,235	1,024
생 활 오 수 량	소계	11,781	-	-	-	9,012	901
	산업 단지	2,876	90	85	-	2,200	220
	배후 도시	8,905	90	85	-	6,812	681

- * 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(2009.12)의 원단위 근거
- * 산업입지 원단위산정에 관한 연구(2006.12)의 폐수화율 적용

② 주요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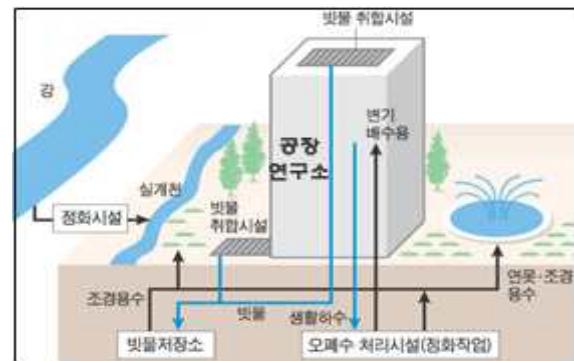
- 사업부지내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해 생활 및 공장폐수 처리
 - 악취문제, 효율적 토지이용 측면을 고려, 지하식 폐수처리장* 설치
 - 입주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필요
 - * 부지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고, 상부공간을 공원과 연계한 다목적공간시설로 이용
- (빗물) 개별건물 건축시 빗물을 차집·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지침 마련
 - 빗물 이용을 통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절감효과

<빗물 재활용방식 >

용 도	용 도 별 분 류
상업·업무용수	화장실 세정용수, 세차용수, 에어컨 용수 등
공업용수	제품처리용수, 보일러용수, 냉각용수, 세정용수
공원·녹지	공원유지용수(조경용수) 등
도시기능용수	청소용수, 테마파크용수(조경용수), 하천유지용수



< 상부공원화 폐수처리시설 사례 >



< 빗물재활용 개념도 >

※ 오·폐수 관련시설 신설시 소요액 현황

명 칭	설치내역	시설규모	사업비	비고
폐수처리장	사업부지내	Q=12,800톤/일	512억 원	국고지원 포함

- * 산입법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지침 제7조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시설
- * 상기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4. 쓰레기(폐기물) 처리계획

◆ 식품산업단지의 특성을 감안, 식품관련 쓰레기 지하 자동차집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쓰레기 없는 친환경 청정산업단지 구현

① 발생량 예측

□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으로 연간 1.8만톤* 폐기물 발생 추정

* 최종처리량(배출시설계폐기물+지정폐기물)= 61.7톤/일 × 300일 = 1.8만톤/년

<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예측 >

(단위 : 톤/일)

구 분		생 활 폐 기 물			배출시설계 폐기물			지 정 폐기물
		계	가연성	불연성	계	가연성	불연성	
주거 지역	총 발생량	0.697	0.485	0.872	-	-	-	-
	재활용량	0.381	0.242	0.139	-	-	-	-
	최종처리량	0.316	0.243	0.733	-	-	-	-
사업장	총 발생량	5.552	3.103	2.449	239.470	129.657	109.813	2.156
	재활용량	2.697	1.401	1.296	179.799	76.264	103.535	0.136
	최종처리량	2.855	1.702	1.153	59.671	53.393	6.278	2.020
합계	총 발생량	6.249	3.588	3.321	239.470	129.657	109.813	2.156
	재활용량	3.078	1.643	1.435	179.799	76.264	103.535	0.136
	최종처리량	3.171	1.945	1.886	59.671	53.393	6.278	2.020

* '11년 LH공사 산업단지(232만m²) 개발사업 기준계획 수립용역 참조

② 주요과제

□ 국가식품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익산시 기존시설 이용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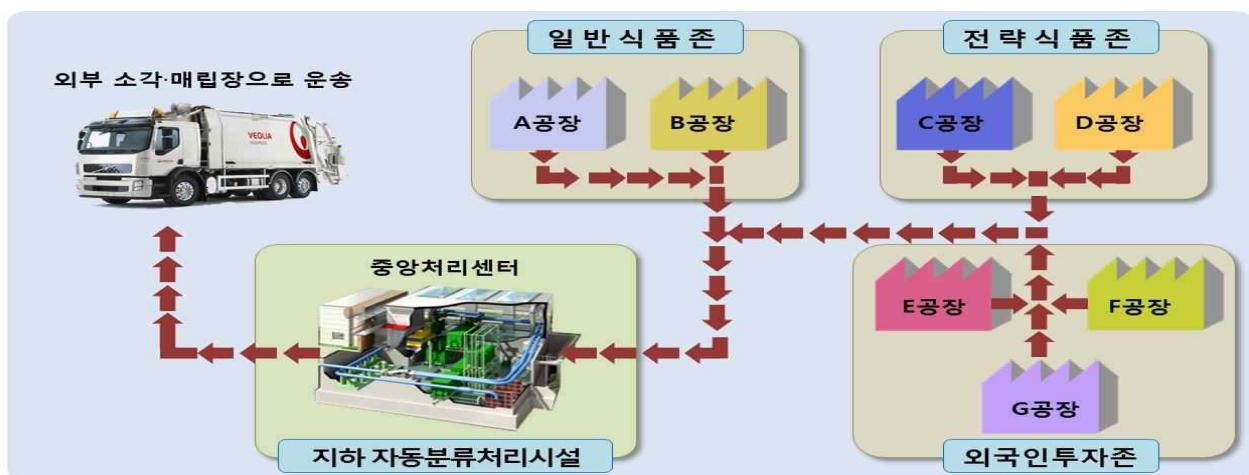
○ 추정 발생량(1.8만톤/연)은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처리 가능

*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시행령 제3조 근거, 연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산업단지의 경우 설치

○ 깨끗한 환경이 요구되는 식품산업단지의 특성을 감안, 식품관련 쓰레기(폐기물) 지하 자동차집 처리시스템* 구축

- * 배추쓰레기 등 부패하기 쉬운 식품 쓰레기(폐기물)를 지하 관로를 통해 자동 흡입·차집하는 중앙집중식 처리시스템으로 최근 일부 신도시에 적용
- 외부 처리는 지하집하장에서 컨테이너로 모아 외부로 반출,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방지하여 청정 산업단지 조성 가능
- 초기 인프라 구축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

<쓰레기 지하 자동차집 처리시스템>



○ 산업단지 추가 확장 등으로 폐기물량이 연 2만톤 이상일 경우 확장 부지내에 저탄소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장 구축 검토

<폐기물 전처리시설 활용방안>

- 저탄소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
 - MBT, RDF*시스템을 활용,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처리
 - * MBT(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전처리시설), RDF(Refuse Derived Fuel 고형연료)
- 반입된 폐기물 선별, 가연성은 RDF연소로 만들어 연료로 활용
 - * 시설비 : 3.5억원/톤, 처리단가 : 7만원/톤
- 유기성, 가연성, 불연성, 재활용 폐기물로 선별하여 분쇄·압축



5. 에너지 공급계획

- ◆ 에너지 수요 예측을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 공급 방안 수립
- ◆ 태양광, 지열, 미니 풍력발전기 등 신·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구축
- ◆ 패시브형 공장 등 에너지 절약형 녹색산업단지 지향

① 수요 예측

□ 전력 수요량*은 총 41,722MWH/년으로 산업시설 23,657MWH/년, 기타시설 18,065MWH/년으로 추정

* 산업단지내 유치시설별 업종별 전력원단위를 근거로 추정

* 지원시설 및 공공용지는 시설별 부하밀도를 적용하여 산정

<산업시설 전력소요량>

업종	부지면적 (m ²)	부지 원단위 (m ² /백만원)	전력 원단위 (KWH)	수용률 (%)	부하율 (%)	전력 수요 (KW)	총설비 용량 (KVA)
음·식료품 제조업	1,500,000	1.9	105	62	40	23,657	38,157

<추정근거>
 ① 전력수요(KW) : (전력원단위×부지면적) / (부지원단위×8760h×부하율)
 ② 총설비용량(KVA) : (전력원단위×부지면적) / (부지원단위×8760h×수용률×부하율)
 * 산업단지 개발계획 실무지침 전력원단위 적용 추정

<기타시설 전력소요량>

구 분	부지면적 (m ²)	건폐율	용적율	건축율	표준 부하 밀도 (VA/m ²)	수용률	부등률	전력수요 (KVA)
연구시설	156,000	0.5	2	0.4	30	0.5	1.1	851
상업·업무	80,000	0.7	6	0.5	60	0.6	1.15	5,259
주거시설	832,000	0.5	3	0.6	50	0.35	1.1	11,923
공공용지	120,000	0.2	0.5	0.4	25	0.35	1.3	32
소계	1,188,000							18,065

<추정근거>
 ① 전력수요(KVA) : (부지면적×건폐율×용적율×건축율×표준부하밀도×수용율) / 부등율
 * 산업단지 개발계획 실무지침 전력원단위 적용 추정

② 주요과제

□ 산업단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방안

○ 익산 봉동변전소에서 단지내 변전소로 인입하여 공급

- 비상시를 대비하여 각각의 변전소에서 2회선으로 수전 검토
- 전신주는 지중화하고, 주요시설은 비상시 발전 설비*를 구축하여 주전원 이외에 예비전원 공급

* UPS(uninterruptible power supply) 무정전전원장치를 통해 2시간 전력공급

□ 신·재생 에너지 공급을 통한 선진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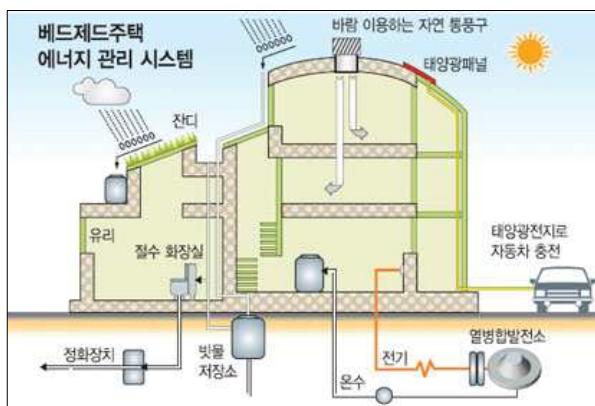
○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을 통해 전력 수요량의 일부 충족

- 기업지원시설, 가로등·공공시설 등 일부시설은 신·재생 에너지* 공급 시스템을 적용, 저탄소 산업단지(화석에너지 독립) 지향
 - *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미니(소형) 풍력발전기, 수소, 바이오에너지 등
-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문업체를 선정, 산업단지 경계면, 공장 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옥상·벽면 등을 신재생 발전기지로 활용

○ 필요시 스마트 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 시범산업단지 추진

□ 전 산업단지 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시스템 적용

○ (친환경 건축물 확대) 자연 채광, 고기능 창호, 단열, 열회수 환기 시스템 등이 도입되는 패시브 하우스 설계기법 도입



<주택에너지 녹색 관리시스템>



<패시브 하우스 개념도>

○ (에너지 효율화)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강화를 통한 에너지 독립성*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화 추진

- * 미래학자 짐데이토는 산업단지의 안정적 장기 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로 ‘에너지 독립성’을 강조(‘12.2, 서울식품포럼)
- 기업지원시설의 신·재생 에너지 공급비율* 20%로 강화하고 신·재생에너지 인증대상 건축물로 추진
 - * 해당연도별 공급의무비율조건 중 '13년기준 11%공급 → '20년이후 20%로 강화
 - *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1호 규정
- 공공기관의 업무시설 건립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* 취득추진
 - *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(석유, 원자력 등) 소비량 연 300kwh/m² 미만

○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율 20% 이상 추진

- *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시 에너지절감율은 약 16%~17%임

<참고> 신·재생에너지 적용 및 에너지 절감 방안



6.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

◆ 산업·주거·문화·업무 공간을 유비쿼터스 기술로 구성·운영하는 미래형 최첨단의 식품산업단지 지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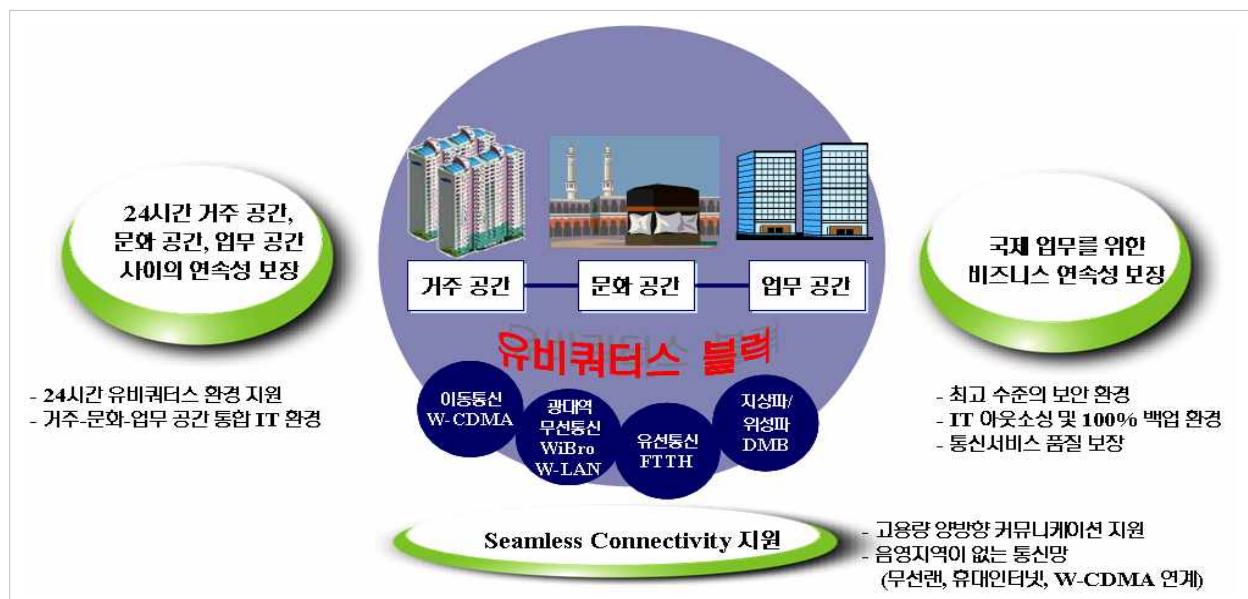
□ IT 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형 최첨단 식품산업단지 조성 추진

- 사무공간이나 외부에서 공장의 전등 및 에어콘 등의 가전제품을 켜고 끌 수 있는 원격제어 시스템 등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
- 산업단지 내 어디에서든 업무시스템 접근하는 등 Business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U-Office를 구현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증대
- 푸드폴리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, 주거,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망 및 구내망 구축

□ 실시간 관리·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관리센터 운영 검토

- 환경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난방, 전기 등의 에너지를 관리, 수출입 정보 접근 등 비용 절감과 이용자 편의 극대화

<스마트 산업단지 구상안>



2. 기업 혁신(이노베이션) 지원시설 구축

세부 실천과제

- ① 기업의 저비용 고부가 생산지원을 위한 핵심 R&D 시설 구축
 - 식품품질안전센터,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, 식품패키징센터
- ② 기업 이노베이션 지원 3대 시설 구축
 - 파일럿플랜트, 임대형 공장,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

핵심 내용 및 주요지표

- 저비용 고부가 생산지원을 위한 3대 핵심 R&D 시설 구축
 - 기업의뢰 품질안전검사 신속·종합지원
 - 기업의뢰 14개 안전성 검사기간 절반 단축(통상 14일 → 7일)
 - '25년까지 식품기능성평가기관 글로벌 Top 3 달성
 - 기능성식품 등록기간 절반 단축(통상 5년 → 2~3년)
 - 식품패키징 One-Stop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, 패키징 기술 선진화
 - 제품패키징 컨설팅부터 분석·시험, 화물유통시험등 소요시간 단축
- 기업 이노베이션 지원 3대 시설 구축
 - 기능성·융합식품·발효 등 3대 분야에 세계 수준의 파일럿플랜트 구축
 - 신기술·융합기술을 가진 푸드 이노베이션 기업 50개 육성
 - 식품 R&D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지원센터 육성

① 기업 저비용 고부가 지원 3대 핵심 R&D시설 구축

가. 총괄

- 제품 연구개발에서 가공·제조, 유통까지 일괄지원하는 시스템 구축
 - 일괄(One-Stop) 지원하는 6개 H/W 기업지원시설 중 3대 R&D 시설은 기업 혁신의 핵심시설로 산업단지 중심부에 배치
 - 3대 R&D 센터는 식품품질안전센터·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·식품 패키징센터로 구성
 - 시설과 장비는 미래 발전·확장성 등을 고려하고, GMP·GLP·HACCP 등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수준으로 구축
 - ※ 6개의 기업지원시설은 푸드폴리스를 대표하는 시설로 식품과 미래·첨단을 상징할 수 있도록 배치나 디자인 추진

□ 식품혁신(이노베이션)의 중추 기능 수행

- 3대 R&D 시설은 인근지역에 유치할 예정인 민간연구소(10개) 등과 연계하여 '식품이노베이션 Zone'을 형성, 식품 기술의 혁신을 주도



- 특히,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개 국책연구기관*과 연계하여 식품 R&D 네트워크를 구축, 식품 혁신의 핵심 기능 담당
 - * 한국식품연구원, 농촌진흥청 및 식량과학원, 농업과학원, 원예과학원, 축산과학원 등
 - 국내외 유수대학 부설 연구소를 유치, 기초 R&D 역량 강화

□ 기업 부담완화 및 신제품 개발 촉진

- 일부 장비와 사무공간을 개방형으로 운영, 고가 장비구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, 기업과 공동 R&D를 통한 고부가 신제품 개발 촉진

나. 식품품질안전센터

- ◆ 기업의뢰 14개 안전검사 신속처리 및 선진국 수준의 기호적 품질(맛, 향, 식감 등) 평가·관리의 전문기관

□ 현 황

- 식품 품질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식품안전 확보 중요성 증대
 - 세계적으로 식중독 등 식품 품질안전 사고 발생으로 기업도산* 및 사회·경제적 손실**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
 - * 일본 최대 종합식품기업 유카지르시유업은 식중독 및 품질관리 미흡으로 도산('02.4)
 - ** '00년 국내 식품품질안전사고를 조사한 결과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
- 국내 식품산업의 영세성으로 중소기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능력 미흡
 - 식품·식품첨가물 제조업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77% 수준('09, 식약청)
 - * 식품제조업체수 분포 : 10인 미만 77%, 매출액 10억원 미만 85%
 - 검사수수료 및 교육·컨설팅의 고비용에 따른 기업 부담 초래
- 품질안전관련 종합지원시스템을 보유한 기관 부재
 - 대부분의 국내 연구기관은 검사·분석* 서비스 중 일부분만 수행
 - * 법률지정검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특수분야 분석은 일부기관만 수행
 - 검사·분석과 교육·컨설팅 기능을 병행 실시하는 기관부재
- 상품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연구기관 부재
 - 세계 선진국의 품질안전 전문기관*은 기호적 품질분석 등 제품의 상품성 향상에 주력
 - * Campden BRI 식품연구소(영국), NIZO 식품연구소(네덜란드)

□ 비전 및 목표

비전
(2025)

안전을 기본으로 한 식품품질관리 선진화

목표

글로벌 수준의 품질안전 관리 기관

▷ 기호적 품질(맛, 향, 식감 등) 관리 글로벌 TOP 기관화

전략
과제

세계적 수준의
품질안전 인프라 구축

식품기업 품질안전
One-stop 지원

품질안전
글로벌 네트워크화

□ 세부 추진전략

○ 세계 수준의 품질안전 인프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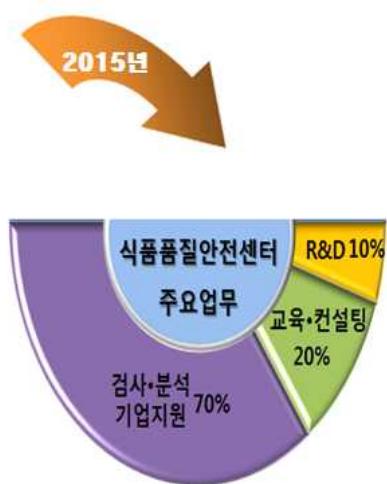
- 세계 수준의 장비·시험실을 구축하고, 관능검사 및 기계적 분석 등 기호적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
- 국내 법률검사기관 및 수출 지향형 산업단지 실현을 위해 국제 인증시험기관(KOLAS)화
-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과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우수인력 확보
- 기업 1:1 맞춤형 서비스 및 기업 개방형 실험실 운영

○ 식품기업의 품질안전검사 One-stop 지원

○ 품질안전 식품 글로벌 네트워크화

- 국내외 품질안전 관련 산·학·연·관과 MOU체결 등을 통해 상시 협조가 가능한 종합 네트워크 구축
- 국내외 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한 식품 품질안전 정보 구축·제공 등

□ 주요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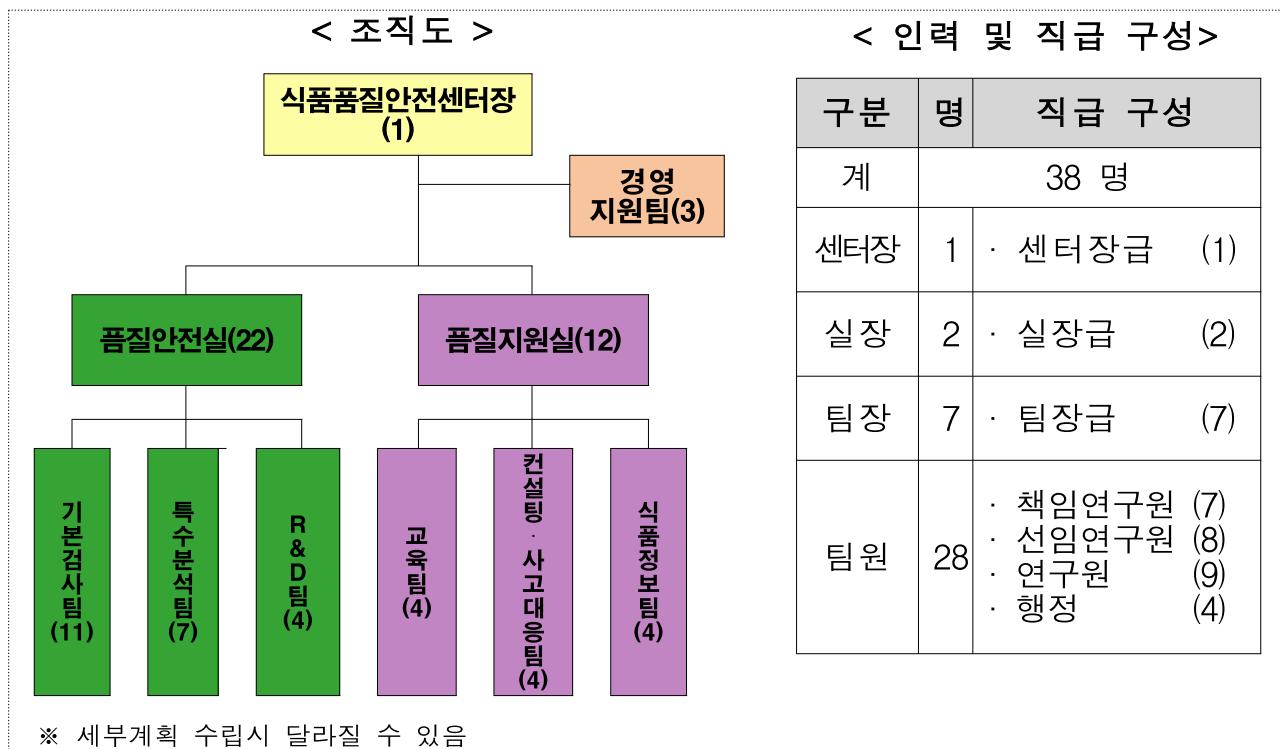


□ 시설 규모

- 부지면적 : 3,000m², 연면적 : 3,150m² ※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

□ 조직구성

- 인력 조직은 1센터장, 2실, 6개팀 총 38명 구성
 - 설계단계('12) 3명 → 건축('13~'14) 13명 → 운영(준공시) 38명



□ 추진계획

○ 시설구축

- 이화학실험실*과 미생물실험실** 등 '15년 완공

* 일반성분검사실, 기기분석실, 유기분석실 및 무기분석실, 특수분야분석실 등

** 시료전처리실, 배지제조실, 미생물검사실 등

○ 장비 내역

- 동결건조기, 초음파교반기, 전자코 등 총 233종

구 분		핵심장비 내역
기능	세부기능	
계		총 233종
이화학 실험	시료 전처리실	동결건조기, 원심분리기, 진탕혼합기 등 8종
	일반성분검사실	초음파교반기, Spectrophotometer 등 11종
	LC검사실	HPLC, HPLC-MS, HPLC-MS-MS 등 6종
	GC검사실	GC, GC-MS, GC-MS-MS, HRGC 등 8종
	유기분석실	아미노분석기, 단백질-아미노산분석기 등 7종
	무기분석실	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, 원자흡광광도계 등 7종
미생물 실험	후드실	증발농축기, 질소미세농축기 등 4종
	시료 전처리실	동결건조기, 원심분리기, 진탕혼합기 등 8종
	배지제조실	항온수조, 초음파세척기, 건열멸균기 등 10종
특수분야 분석검사	미생물분석실	Clean Bench, 협기배양기, 현미경, 콜로니카운터 등 10종
	GMO검사실	PCR, 전기영동장치, 사진촬영시스템 등 9종
	방사선조사확인실	PSE, TLC 등
기호적품질검사실		전자코, TA HPLC, GC-MS 및 관능검사실 등

○ 추진 일정

추진 내용	'12~13	'14~15	'16~17
• 조직·운영			
• 건축·시설 구축			
• 장비도입			

□ 기대 효과

- 기업의뢰 검사·분석 소요시간 절반수준으로 단축(14일 → 7일)
- 식품품질안전사고 방지(푸드폴리스내 식품품질안전사고 최소화 목표)
- 맛·향 등 식품의 기호적 품질에 대한 과학적 품질관리·평가 기반 확보

□ 소요예산

- 총 사업비 : 328.3억 원(건축비 83.3, 운영비 · 장비비 등 245)

※ 예비타당성조사결과('09. 11)를 적용한 사업비로 추후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다.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

◆ 기업 의뢰에서 기능성식품 인증까지 소요기간을 절반수준으로 단축

□ 현 황

○ 식품 선진국에서는 기능성 평가기관^{*} 운영으로 R&D 활발

* 네덜란드 니조연구소, 캐나다 리차드슨 기능성식품센터 등

-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건강식품(Health Food)에 대한 관심은 100여년 전부터 시작, 기능성식품 R&D 강화

○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법 제정('02년)으로 기능성 평가체계 마련

- 건강기능성 식품시장 규모는 1조원(10)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 수입(3천억원)에 비해 수출은 미미한 수준, 적극적인 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

○ 대부분 국내 연구기관은 기능성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일부기능^{*(30~50%)}만 수행하고 있어 기업 불편 초래

* 원료 농산물의 기능성 소재 발굴·표준화 연구와 안전성 평가 등을 각 대학·연구소별 일부 실시

- 기업 의뢰에서 기능성식품 인정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전과정의 One-stop 처리 기관 필요

□ 비전 및 목표

비전
(2025)

기능성 식품 강국 실현으로 식품 고부가가치화 선도

목표

식품기능성 평가 글로벌 허브 기관

- ▶ 센터 위상 : 세계 3대 식품기능성 평가기관
- ▶ 기능성식품 인정 소요기간 단축(통상 5년 → 2~3년)

전략
과제

세계 최고 기능성 평가
국가 인프라 구축

식품기업 기능성평가
One-stop 지원

기능성식품 연구
허브기관화

□ 세부 추진전략

○ 기능성 평가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

- 기능성 평가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최신 장비 및 시험실 구축
- 국제 신기술 도입 등으로 표준화·기능성 연구를 위한 특화기술 선도

○ 식품기업 기능성 평가과정을 One-Stop으로 지원

- 성분표준화·기능성·안전성 평가과정의 독자-협업 병행* 추진
 - * 소재발굴, 시험관, 동물시험과 설치류 독성시험은 독자수행하되, 비설치류 독성시험, 임상시험등은 타 기관과 협업으로 수행
- 식품기업과 공동 R&D로 기업 신제품 개발 촉진

○ 기능성식품 연구 허브 기관으로 육성

- 산·학·연·관과 공동 R&D 및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R&D 허브 기관화
- 특히, 기능성 식품 연구·생산의 메카 육성을 위해, 입주기업·연구 기관 등과 일부시설의 공동사용·연구 지향
- 신소재 원료에 대한 DB 구축, 연구단계별(기초연구, 동물시험, 임상 시험 등) 필수 정보 구축·제공 등

□ 주요기능

기능성평가 기업지원

- 기업의 기능성 원료(제품) 인증을 위한 기능성 평가 지원
① 원료 표준화 → ② 시험관 시험 → ③ 동물시험 → ④ 독성시험 →
⑤ 임상시험 One-Stop 수행
⇒ 자체수행(30~50%→70) 강화 및 평가과정 One-stop 수행

교육 컨설팅·정보제공

- 기능성 평가 관련 제규정 및 해외 제도 등 교육·컨설팅
- 정보 DB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허브 기관화 추진

기업 공동 R&D

- 기업 신제품 개발 및 기능성 평가 기술 고도화 연구 등
⇒ (초기) 원료 표준화 연구에 집중, (중장기) 특화된 기능성평가 역량 강화
* 기능성 평가 지원 예산(169억원) 활용(예타 반영)



□ 시설 규모

- 부지면적 : 3,000m², 연면적 : 3,150m² ※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

□ 조직 구성

- 인력 조직은 1단계(준공시점) 1센터장, 1실, 6개팀 총 38명 구성
 - 설계단계('12) 3명 → 건축('13~'14) 13명 → 운영(준공시) 38명

< 조직도 >			< 인력 및 직급 구성 >		
구분	명	직급 구성	구분	명	직급 구성
계	38 명		센터장	1	· 센터장급 (1)
팀장	1	· 실장급 (1)	팀장	6	· 팀장급 (6)
팀원	30	· 책임연구원 (8) · 선임연구원 (8) · 연구원 (9) · 행정 (5)			

* 세부계획 수립시 세부조직 달라질 수 있음

□ 추진계획

- 시설구축
 - 기능성 평가를 위한 분석실험실, 동물 · 독성실험실 등 '15년 완공
- 장비도입
 - 우선순위에 따라 수요 맞춤형으로 도입 · 구축

구분	1단계(준공시점)	2단계
시설 구축	사무실, 분석실험실, 동물 · 독성시험실(설치류)	독성시험동, 임상시험동
장비 도입	성분표준화, 시험관·동물시험· 독성 시험에 필요한 장비 도입	* 2단계 시설은 사업수요 감안 * 민자유치 또는 제3섹터 방식 검토

○ 장비 내역

- 분쇄기, 동결건조기, 농축기, 혈액분석기 등 총 163종

구분		핵심장비 내역
기능	세부기능	
계		총 163종
표준화 연구	전처리	세척기, 분쇄기 등 5종
	추출 · 농축	초임계추출기, 농축기 등 8종
	건조	동결건조기, 분무건조기 등 6종
	분쇄 · 혼합라인	유동층건조과립코팅기-Pilot 등 11종
	멸균	레토르트 멸균기 등 2종
	품질관리/분석	입도측정기, 색차계, 수분측정 등
	제형포장	액상충진기(파우치, 병) 등 8종
기능성· 안전성 평가	생리활성시험	
	동물 실험 실	동물 사육 케이지 세척장치, 설치류 사육장치 등 24종
		수술 · 부검 수술대, Operating microscope 등 25종
		조직처리 혈액분석기 등 7종
		동물실험 근전도측정기 등 7종
	기타	배양기 등 11종

○ 추진 일정

추진 내용	'12~'13	'14~'15	'16~'17
• 조직·운영			
• 건축·시설 구축			
• 장비도입			

□ 기대 효과

○ 기능성소재 인정 소요시간 절반 수준으로 단축(통상 5년 → 2~3년) 및 국내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및 해외 기능성원료 수입 대체

□ 소요 예산

○ 총 사업비 : 314.2억 원(건축비 109.6, 운영비 · 장비비 등 204.6)

※ 예비타당성조사결과('09. 11)를 적용한 사업비로 추후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라. 식품패키징센터

◆ 기업의 식품 패키징(포장) 기술향상 및 맞춤형 패키징 지원체제 구축

□ 현 황

○ 세계 패키징재 시장 총 48백억달러(505조) 중 식품패키징 분야는 33백억달러로 69%(식음료포함)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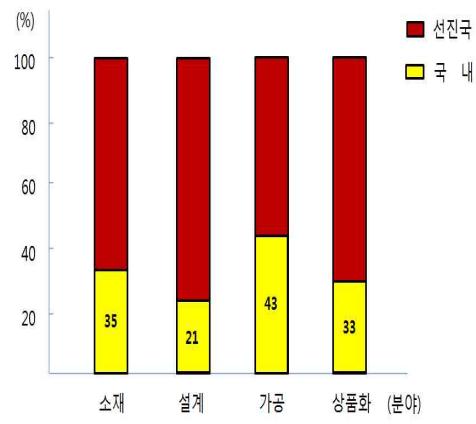
- 국내 시장규모 약 27.4조원 중 식품패키징 시장은 2/3 수준인 약 18조원으로 추정

○ 대부분의 식품기업이 영세하여 패키징 기술 부족

-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하며 패키징재도 대기업 OEM 형태가 많아 패키징 기술력이 낮은 상태

- 패키징 가공·상품화기술은 평균 30~50% 수준, 기술격차 약8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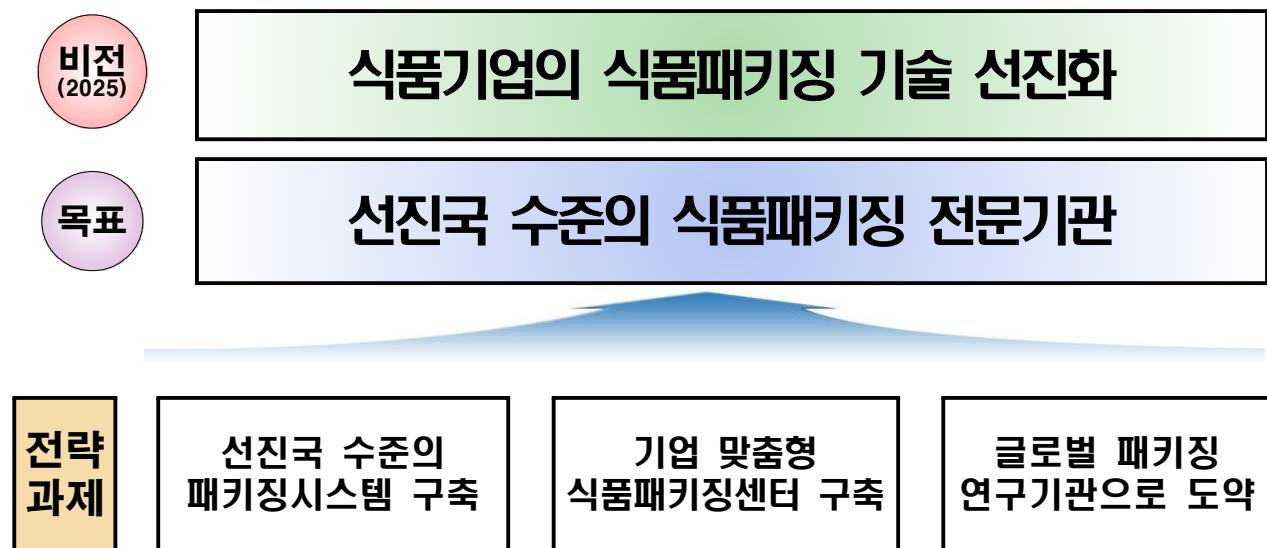
- 패키징 소재·설계기술은 평균 20~40% 수준, 기술격차 약10년



○ 식품패키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식품패키징 전문기관 부재

- 자체분석·시험 능력이 취약하고, 기업에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 미흡
- 식품기업을 위한 패키징 교육·컨설팅 기관 부족

□ 비전 및 목표



□ 세부 추진전략

○ 선진국 수준의 패키징시스템 구축

- 최신의 장비 및 시험실 구축하고, 상품성 향상 및 新기술개발을 위한 R&D 지원으로 공신력 있는 글로벌 기관으로 육성

○ 기업맞춤형 식품패키징센터 구축

- 개별기업의 특성 고려 및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중심으로 신속한 기업의뢰·분석 시험 실시
 - * 제품개발단계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One-Stop 지원으로 新기술개발 기간 단축
- 식품패키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·운영

○ 글로벌 패키징 연구기관으로 도약

- 국내외 글로벌 기업·연구소와 식품패키징관련 연구 공동수행
- 국제회의 개최·참가 등 국제 교류·협력과 국내외 산업동향 DB구축

□ 주요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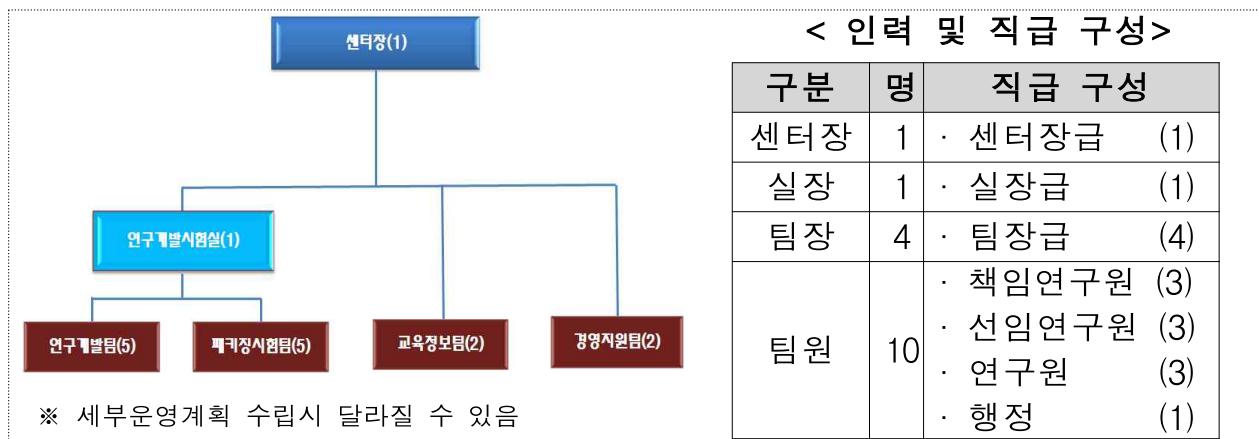


□ 시설 규모

- 부지면적 : 6,600m², 연면적 : 2,400m² ※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

□ 조직구성

- 인력 조직은 1단계(준공시점) 1센터장, 1실, 4개팀 총 16명 구성
 - 설계단계('12) 3명 → 건축('13~'14) 7명 → 운영(준공시) 16명



□ 추진계획

○ 시설구축

- **패키징시험실**(패키징재료시험실, 유통환경시험실 등) 및 **사무실**(패키징시험, R&D, 기술컨설팅, 디자인, 교육 등), **교육실** 등 '15년 완공

○ 장비 내역 : 투습도시험기, 낙하시험기, 진공챔버, 세척기 등 총 53종

구분		핵심장비 내역	'14~'15
기능	세부기능		
합계		총 53종	
물리적 시험 분석 장비	강도측정	파열강도시험기, 인장·인열강도시험기 등 6종	O
	연신률측정	내절도시험기 등 2종	O
	필름두께측정	필름두께측정기 2종	O
	흐림도측정	필름흐림도시험기 1종	O
	수분측정	투습도시험기 등 2종	O
	기체투과도측정	기체투과도측정기 등 2종	O
	고분자재료	시차주사열량계 등 2종	O
화학적 시험 분석 장비	순도·이행시험	HPLC(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), GC, LC-mass 등 8종	O
	재질분석	적외선분광기 등 2종	O
	전처리	세척기, 흡후드 등 14종	O
화물 유통 시험 분석 장비	유통환경분석	낙하시험기, 충격시험기 등 7종	O
	가압시험	진공챔버 1종	O
	RFID	RFID Full Supply Chain Simulation 1종	O
	기타	샘플설계대 등 3종	O

○ 추진 일정

추진 내용	'12~13	'14~15	'16~17
• 조직·운영			
• 건축·시설 구축			
• 장비도입			

□ 기대효과

- One Stop-Total Packaging Service의 실현으로 클러스터 내 식품기업에 효율적인 식품패키징 소요 기간 단축

* 제품 컨설팅부터 식품패키징 이화학적 분석·시험, 화물유통시험까지 소요기간 단축

□ 소요예산

- 총 사업비 : 175.9억 원(건축비 40.5, 운영비·장비비 등 135.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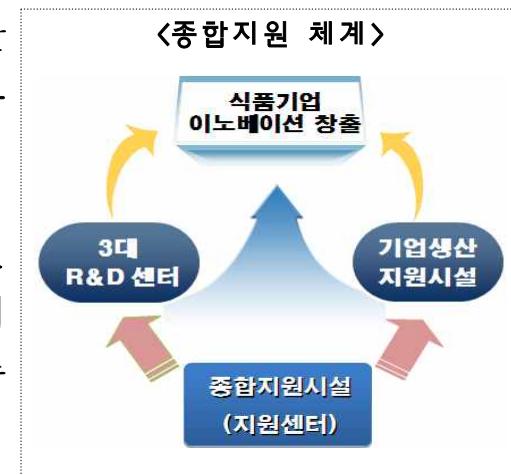
※ 예비타당성조사결과('09. 11)를 적용한 사업비로 추후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② 기업 생산지원 시설 구축

가. 총괄

- 3대 기업지원 H/W 시설은 파일럿플랜트, 임대형공장,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구성, 기업의 생산활동 전반지원

- 파일럿플랜트는 기능성 · 발효 · 첨단 식품분야 등에 선진국 수준의 장비와 기술 · 인력을 갖추도록 설립
- 임대형공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전용임대형공장으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을 입주 대상으로 하여 운영 계획



- 연구 · 제조 · 판매 전과정을 통해 신기술 상품화 지원

- 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제공,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
- 특히, '입주기업 협의회' 등을 통한 사용자 중심 운영
- 파일럿플랜트는 인근 창업센터 기업도 이용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
- 임대형공장은 창업센터 보육기업들 중 우수기업은 입주토록 하여 성장발판을 제공하는 등 창의기업 중견기업화에 역점



나. 파일럿 플랜트

- ◆ 기업의 시험생산 지원을 위해 '식품 전용 파일럿플랜트' 구축
 - 연구개발에서 시험생산 및 소량 위탁생산까지 One-stop 지원

□ 현황

- 선진국*은 파일럿플랜트를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적극 추진
 - * 푸드밸리 NIZO연구소는 파일럿플랜트를 통해 시제품생산·위탁 소량생산까지 수행
- 우리나라는 식품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'식품전용 시험생산시설' 부재
 - 시험생산시설의 대부분은 바이오·해양분야 위주로 운영
 - 우리나라 일부기업은 시제품테스트를 위해 해외 파일럿플랜트를 활용
- 중소 식품기업의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시험 생산시설 구축 필요
 - 다양한 식품의 연구, 시제품테스트 및 제품화로 식품시장 변화 대응
 - 융·복합 식품기술로 개발한 신제품의 시제품 생산 인프라 필요

□ 비전 및 목표



□ 세부 추진전략

○ 글로벌 TOP 수준의 인프라 구축

- HACCP, GMP 기반의 시제품·소량 생산 및 위탁가공 생산시설 구축
- 3대 R&D센터와 연계한 One-stop 연구·개발·생산 체계 마련

○ 저비용·고효율 운영체계 구축

- 전문 연구·생산 인력지원과 연계·운영으로 경쟁력 확보
- 일부 장비는 기업이 구축하는 참여형 장비 구축
 - * 캐나다 사스카툰의 식품발전연구센터의 파일럿플랜트에서 활용

○ 글로벌 수준의 파일럿플랜트로 도약

- 대학, 연구기관, 산업체, 지역클러스터의 파일럿플랜트와 네트워크를 구축, 기술·정보 교환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
- 세계 푸드 클러스터의 파일럿플랜트와 교류·협력을 강화

□ 주요 기능

○ 기업 연구·시범·위탁생산 지원

- 제품개발 연구에서 시제품생산·소량 위탁생산까지 장비·시설 지원
- HACCP, GMP 및 국제적 식품안전 인증을 위한 ISO22000 기본시설 구축
- 생산품목에 따라 범용라인 및 특화라인으로 구분해 구축
 - * 범용라인은 일반가공식품의 생산공정에 따라 Wet, Dry zone으로 구축
 - * 특화라인은 기능성·바이오 등 융합·첨단 식품생산 장비로 구축

○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

- 3대 R&D센터와 연계하여 GMP 인증·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 확보

○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

- 산·학·관 및 지역 파일럿플랜트 등과 정보·기술을 공유하고, 글로벌 파일럿플랜트와 기술교류·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 추진

□ 시설 규모

- 부지면적 : 8,000m², 연면적 : 4,000m² ※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

□ 조직 구성

- 인력 조직은 1지원단장, 1개팀 총 4명으로 구성

- 설계단계('12) 1명 → 건축('13~'14) 2명 → 운영(준공시) 4명
 - * 지원센터(파일럿플랜트팀) 인력으로 운영

<조직도>			<인력 및 직급 구성>		
구분	명	직급 구성	구분	명	직급 구성
지원단장	1	· 단장급(1)	지원단장	1	· 단장급(1)
팀장	1	· 팀장급(1)	팀장	1	· 팀장급(1)
팀원	2	· 팀원급(3)	팀원	2	· 팀원급(3)

※ 세부운영계획 수립시 달라질 수 있음

□ 추진계획

○ 시설구축

- 파일럿플랜트, 실험실, 창고, 유틸리티 등 시험생산시설 '15년 완공

○ 장비도입

- 생산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수요 맞춤형으로 도입·구축
- 범용라인(일반가공식품)과 특화라인(기능성·바이오식품)으로 구축

구분	1단계(준공시점)
시설 구축	시험생산실(범용라인, 특화라인), 실험실, 창고
장비 도입	범용라인(일반가공식품), 특화라인(기능성·바이오) 시험생산 장비 도입

○ 장비내역

- 범용라인 139종 161개, 특화라인 43종 63개, 총 182종 224개

기능	구분		핵심장비 내역
	기능	세부기능	
	합 계		총 182종 224개
범 용 라 인	소 계		139종 161개
	Wet zone	전처리	박피기, 분리기, 세척기 등 8개
		발효, 여과·선별	고체 발효기, 발효조, 분체기 등 16개
		혼합, 가열	균질기, 배합기, 멀균기, 살균기 등 45개
	Dry zone	냉각	급속냉동장치, 냉각시스템 등 3개
		기타장비	다목적 유동상 가공시스템, 공급탱크 등 26개
		분쇄, 건조	밀, 절단기, 세절기, 동결·분무건조기 등 38개
		포장	캡슐충전기, 스틱포장기, 날인기 등 25개
특 화 라 인	소 계		43종 63개
	Dry zone	농축, 추출	진공박막증발기, 초임계추출장치 등 16개
		발효, 분리정제	고체 발효기, 한외여과장치 등 28개
		성형	과립기, 당의기, 타정기, 제환기 등 12개
		NT형 장비	초미세분쇄장치 1개
		BT형 장비	초고압살균장치, 무균포장시스템 등 3개
		신공정, 첨단제품	Multi Stage Spray Dryer, 압출과립기 등 3개

○ 추진 일정

추진 내용	'12~13	'14~15	'16~17
• 조직 운영			
• 건축·시설 구축			
• 장비도입			

□ 기대효과

- 입주한 중견기업(85개사)의 신제품개발에 따른 시험생산시 자체 장비 구축비용의 대체효과 225억 원 절감
- 식품 R&D육성 및 특성화(융합·첨단식품분야 등) 수출확대 및 매출증대

□ 소요예산

- 총 사업비 : 257.6억 원(건축비 75.0, 운영비 · 장비비 등 182.6)

※ 예비타당성조사결과('09. 11)를 적용한 사업비로 추후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다. 임대형공장

◆ 식품 융합·신기술을 접목한 강소식품기업 집중 육성

□ 현황

○ 식품기업 대부분은 영세하여 신규 공장설립 등에 애로

- 식품·식품첨가물 제조업 10인 미만 77%, 매출액 10억원 미만 85%('09, 통계청)
- 식품안전시설을 갖춘 공장설립시 고비용 발생
 - * 식품공장(HACCP, GMP) 구축비 500만원/3.3m²

○ 식품 안전시설을 갖춘 ‘식품 전용임대형공장’ 부재

- 기존 임대형공장은 IT분야 위주로 건축되어 식품 생산시설로 부적합
- 식품기업이 일반 임대형공장 입주시 공급처리(스팀, 정제수 등) 및 폐수처리 문제로 입주에 애로

□ 비전 및 목표

비전
(2025)

식품 융합·신기술을 접목한 강소 식품기업 육성

목표

혁신형 식품기업 육성 전문기관

▷ '20년까지 강소 식품기업 50개 육성

H/W

S/W

N/W

전략
과제

첨단 기반형
인프라 구축

식품 혁신 창출
지원체계 구축

중견기업 성장 촉진

□ 세부 추진전략

○ 첨단 기반형 식품 전용 임대형공장 구축

- HACCP, GMP, ISO22000 시설기준^{*}에 부합하는 시설을 구축하고, 입주기업은 내부시설 구축 후 HACCP, GMP 인증기관화 추진
 - * 작업장의 위치, 작업장, 바닥, 벽, 천장, 배수 및 배관, 폐기물 처리 등
- 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 및 맞춤형 시설 구축

○ 융·복합 식품기술을 활용한 혁신 창출 지원체계 구축

- 융합기업 및 5대 전략식품^{*} 기업위주로 운영하고, 입주기업의 혁신 성과 평가 후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
 - * 기능성·바이오식품, 전통·발효식품, 유기가공식품, 쌀가공식품 등

○ 지속적인 관리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유도

- 입주기업과 R&D기관 등이 ‘혁신 커뮤니티’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
- 글로벌 혁신 기업 등과 교류·협력 지원하고, 졸업기업간 교류·협력

□ 주요 기능

○ 식품분야 혁신 창출형 인프라 제공

- 첨단기반형 식품 전용 임대형공장(50실) 구축
- HACCP, GMP, ISO22000 설비를 구축, 입주기업의 관련 인증 획득 지원

○ 입주기업 선정·지원 및 평가·관리

- 식품첨단기술 융합기업 및 5대 전략식품 기업 유치하고 임대기간·임대비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
- 3대 R&D센터 및 파일럿플랜트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 연구개발 등 지원
- 매년 성과 평가 후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, 부실기업은 폐널티 부여

□ 시설 규모

- 부지면적 : 10,000m², 연면적 : 9,000m² ※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

□ 조직 구성

- 인력 조직은 1단계(준공시점) 1지원단장, 1개팀 총 3명으로 구성
 - 설계단계('12) 1명 → 건축('13~'14) 1명 → 운영(준공시) 3명
 - * 지원센터(임대형공장팀) 인력으로 운영

<조직도>		< 인력 및 직급 구성 >		
구분	명	직급 구성		
지원단장	1	· 단장급(1) ※ 파일럿플랜트 업무 포함		
팀장	1	· 팀장급(1)		
팀원	2	· 팀원급(2)		

※ 세부운영계획 수립시 달라질 수 있음

□ 추진계획

○ 시설구축

- 유망 식품기업유치를 위한 임대형공장(50실), 창고 등 '15년 완공
- GMP, HACCP, ISO22000 등 식품기업 요구조건 부합하는 시설 구축
 - * 작업장, 바닥, 벽, 천장, 배수 및 배관, 환기시설, 방충·방서 등

○ 추진 일정

추진 내용	'12~13	'14~15	'16~17
• 조직·운영			
• 건축·시설 구축			

□ 기대효과

- 우수유망기업 고용창출 500명, 매출액 330억 중대
 - * 고용창출 : 50개 기업 × 10.1명(수요조사 평균 근로자수) = 505명
- 혁신 창출형 스타 중견기업 성장 견인

□ 소요예산

- 총 사업비 : 168.7억원(건축비 168.7) * 인건비 · 운영비는 지원센터 예산에 반영
 - * 예비타당성조사결과('09. 11)를 적용한 사업비로 추후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라.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

- ◆ 식품전문단지 조성, 식품 기업유치, 참여 기업지원, 대외협력, 홍보 등
국가식품클러스터 총괄 운영 · 관리

□ 설립목적

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· 관리 종합 기구(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 2)

□ 주요내용

- 운영 기본방향

- ◆ 입주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R&D·수출 전주기 One-Stop 지원
- ◆ 산·학·연 커뮤니티 운영 및 식품산업-농어업 동반성장
 - 지식(기술)의 '창출-확산-활용'이 선순환 구조로 식품이노베이션 주도
- ◆ 입주기업 중심의 親 기업형 산업 인프라 구축

- 비전 및 목표

비 전
2025

식품기업의 일류화를 지향하는
세계 일등 클러스터 지원기관

3 대
전 략
과 제

NW

1. 이노베이션 창출형 네트워크 체계 구축

- 식품네트워크 총괄기구 설치 · 운영
- 글로벌 기업 · 연구소간 네트워크(G-N/W)
- 국내 산 · 학 · 연 · 관 네트워크(N-N/W)
- 단지내 기업 · 연구소간 협업 커뮤니티(I-N/W)

SW

2. 첨단기술 융복합 식품기업 육성

- 식품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
- 입주기업 One-Stop 지원 체계 구축
-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· 유치 및 금융지원
- 글로벌 식품기업 · 연구소 유치

HW

3. 선진형 식품산업단지 조성·관리

- 첨단 · 문화 기반형 식품산업단지 조성 · 운영
- 입주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
- 지원센터 및 기업지원 H/W 시설 관리 선진화

○ 주요 기능

< 단지준공 前 >		< 단지준공 後 >
대외협력 투자기업 관리	국내외 기업·연구소 투자유치 클러스터 홍보	유치기업 사후관리 대내외 클러스터 교류협력
기업경쟁력 강화지원	고부가 S/W* · 상생** S/W 추진 계획수립 및 협력체계 사전준비	고부가 S/W · 수출 S/W, 상생 S/W 등 운영
산업단지 조성 H/W 건축	단지 조성지원, 용지분양, H/W 시설건축	단지 및 H/W 시설 유지·보수, 입주기업 One-stop지원

* 고부가 S/W: 기능성평가사업 지원, 특화기술 개발사업 지원, 인적자원 개발사업 지원, 기업지원 서비스사업

** 상생 S/W: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발전, 식품무역 거점 기지화, 글로벌 네트워크, K-food 글로벌화

□ 시설규모

○ 부지면적 7,000m², 연면적 16,500m²

※ 설계, 총사업비 변경협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

□ 조직구성

○ 1이사장, 3단, 1부, 10개팀 총 38명 구성(이사장 1, 직원 37)

* 초기단계('11~'12) 10명 → 구축('13~'14) 20명 → 운영(준공시) 38명

< 조직도 >			< 인력 및 직급 구성 >		
구분	명	직급 구성	구분	명	직급 구성
이사장	1	이사장급 1	이사장	1	이사장급 1
감사실(비상임)			실장	2	실장급 2
			단장	2	단장급 2
기획관리실			팀장	11	팀장급 11
기업지원실			팀원	22	팀원급 22
기획평가센터(38)					
품질안전센터 (38)					
식품패키징센터(16)					
전략기획단	3 개 팀				
산업단지관리단	1부, 4개팀				
	3 개 팀				

※ 세부운영계획 수립시 달라질 수 있음

□ 단계별 추진계획

1단계(~'17)

기반 구축 및 운영 착수 단계

○ 초기단계('12)

- 투자유치·홍보활동 전개(앵커 기업·연구소) 및 교류협력·네트워크 구축
- 산업단지 조성업무 지원 및 H/W 시설 설계 수립

○ 구축(건설)단계('13~'14)

- 투자유치 · 홍보활동, 교류협력 및 기업지원 S/W 프로그램 구축
- 산업단지 조성공사 · 분양 업무지원 및 6대 H/W 시설 건설 공사

○ 운영 단계('15~'17)

- 기업 · 연구소 입주 · 사후관리, 기업지원 S/W 운용 등
- 산업단지 및 6대 H/W 시설 건설 공사 준공 · 관리

2단계('18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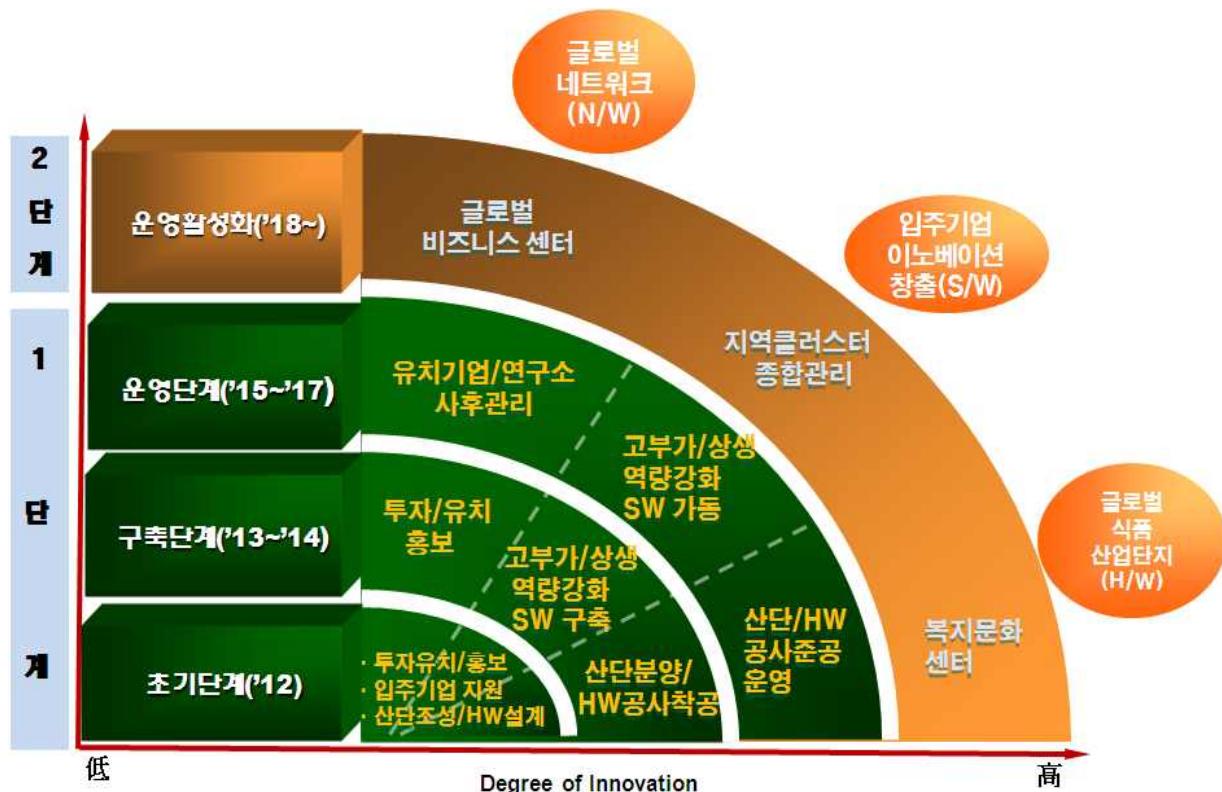
운영 활성화 단계

○ 지원센터를 '(가칭)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'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

- 푸드폴리스와 지역 등 타 클러스터간 연계 강화 및 종합관리 기능 수행

○ '입주기업 복지문화센터'(민자) 조성 및 '(가칭)글로벌 식품비즈니스 센터'(국제전시장, 회의장 등, 민자) 유치 추진

< 단계별 운영 확대 방안 >



□ 추진일정

추진 내용	'12~'13	'14~'15	'16~'17
• 조직 · 운영			
• 건축 · 시설 구축(1단계)			

□ 기업지원 6개 HW 시설 관리체계 및 배치방안

○ 지원센터와 5대 HW 시설의 관리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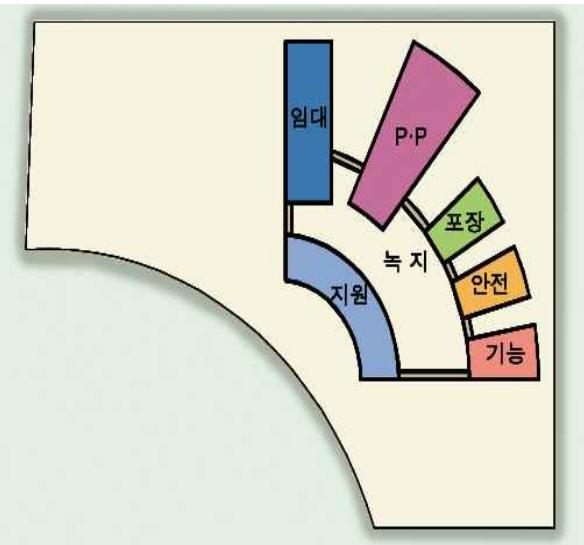
- 지원센터의 부속기관(5대 H/W)에 대한 인사 · 예산 · 사업관리 통제 범위
- 3대 R&D 센터 : 중간관리형*(부설기관)
 - * 이사장이 각 부속 센터장에 대한 인사권 · 예산권을 갖고 각 센터의 직원 인사권은 위임
- 임대형공장 · 파일럿플랜트 : 직접관리형

구분	3대 R&D 센터	임대형공장 파일럿플랜트
관리체계	중간관리형	직접관리형
인사	기관장	이사장
	직원	일부위임
예산	예산	이사장
	재정	각 센터장
사업감독		일부위임

지원센터
이사장

□ 6개 HW 시설 배치방안

- ### ○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각 H/W 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연결 독립형으로 배치하되, 식품의 상징성 고려한 랜드마크로 배치 · 건축
-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5개 시설이 복도로 연결이 되나 안전을 위해 독립적으로 배치
 - * 세부 배치형태는 추후 건축기본계획 수립시 부지공간 확장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검토



□ 기대효과

【직접적 효과】

- 국내·외 식품기업 150개, 민간연구소 10개 유치
- 기업매출 약 40억\$(수출 8억\$), 고용창출 2만여명

【간접적 효과】

-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- 식품기업 성장을 통한 농어업 성장 및 농어가 소득증대^{*} 기여

* 한국은행의 1차 산업 연계효과 34% 적용시 약 7조원 규모

□ 소요예산

- 총 사업비 : 343.5억 원(건축비 185.1, 운영비·장비비 등 158.4)
 - ※ 예비타당성조사결과('09. 11)를 적용한 사업비로 추후 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3. 고부가 식품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

세부 실천과제

- ①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연구개발 지원
- ②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육성
- ③ 국내외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

핵심내용 및 주요지표

- 5대 전략식품을 중심으로 스타상품(20개) 개발에 주력
 - 국제공동 식품 연구개발, 중개연구 등을 통해 상품화 연구 강화
 - * ① 기능성 · 바이오 및 융합기술 식품 4개 ② 발효 · 전통 식품 4개
 - ③ 천연첨가물 · 식품소재 식품 4개 ④ 쌀 등 곡물식품 4개 ⑤ 글로벌 식품 4개
 - 입주기업의 R&D분야 지원 ·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식품연구개발 혁신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
-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육성
 - '20년부터 매년 2개 이상의 스타 기능성제품 개발, '기능성식품강국'으로 도약
 - 주요 원료농산물(인삼 · 김치 · 과채류 · 한약재 · 쌀 등)의 기능성 발굴 집중
 - 대학 · 국책 · 연구소 등과 협업연구 및 글로벌 공동 R&D를 통해 기능성 개발 추진
- 국내외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
 - 푸드폴리스를 중심으로 전주혁신도시 · 새만금 · 대덕연구단지가 '식품과학벨트'를 구축, 글로벌 R&D네트워크 선도
 - 기업, 연구소, 대학 등이 참여하는 30~40여개 식품 커뮤니티 운영

①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연구개발 지원

- ◆ 발효·식품소재 등 5대 식품분야에서 스타상품(20개) 개발 주력

가. 현황

- 식품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
 - 국내 식품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.57%로 선진국(1.6~2.6%) 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구개발(R&D) 강화 필요
 - 식품기업의 영세성으로 R&D 투자 여력 부족(5인 미만 업체85%)
- 연구개발 상용화가 미흡, 연구성과 활용체계 강화 필요
 - 식품산업은 IT·BT등 타 분야와 융합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기초·응용연구에 비해 실용화·상용화는 미흡
 - 선진국은 기술의 민간이전이나 중개 등을 활성화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 비율이 15.3%에 불과(지식경제부, 2004)
 - 기업수요(니즈)를 바탕으로 제품화로 연결하고,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 집중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

나.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- 농업과 연계성 및 성장성이 큰 5대 핵심분야 연구개발에 집중 지원
 - 바이오·나노기술 등 융합기술 식품, 발효·글로벌 식품 등 5대 핵심분야 연구에 '20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, 스타제품 20개 이상 개발 지원
 - 종주국 지위를 가지는 3대식품(발효-김치·인삼·쌀)과 기술융합 식품·맞춤형 식품*·건강 및 기능성 식품 등 3대 특화식품에 중점 지원
 - * 각 개인마다의 특성(유전자 DNA)을 고려한 식품
- 식품 제조·설비·포장기술 및 관련 기기·실험기자재 자립화 기반 마련



□ '식품 R&D 2.0 플랫폼*(가칭)' 시스템 구축으로 상품화 연구 강화

* 기초연구·임상시험 등을 마친 연구를 활용, 기업이 참여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을 창출하는 '융합적 증개연구'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

- 기초 연구개발의 기술 사장을 방지하고 실용화·상용화율을 높이기 위해
'증개연구' 시스템 도입·운영
 - 기초·응용 연구자나 기술과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연구 추진
 - 선진국 독일의 Steinbeis 재단 사례, 지식경제부의 'Bio 2.0 Platform' 사업 사례를 벤치마킹, 식품분야에 적용



- 지원센터가 '식품 R&D 2.0 플랫폼' 사업 관리
 - 식품기술 수요자·공급자 및 상품화 연구과제 발굴·선정, 기술이전·특허·규제 등에 대한 교육·컨설팅 실시

□ 파일럿 연구-본연구 2단계 상품화 연구개발 연구시스템 도입·운영

- 일정규모(잠정 10억원) 이상 투입되는 연구개발은 파일럿연구를 선행, '(가칭)
미래첨단식당(소비자 반응연구소)' 등을 통한 시범 테스트 후 본 연구 진행
 - 대규모 연구개발의 매몰 비용을 방지하고 스타 제품화율 제고

□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·대학 등과 공동 연구개발 추진

- 상품화 R&D에는 상품사용 기업 참여를 기본으로 국내·국제적 연구기관·대학 등을 망라한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추진
 - 입주기업·민간연구소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
-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·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

□ '식품 이노베이션(R&D·가공) 시스템 구축 등 식품 R&D 허브화 추진

- 입주기업의 식품 R&D를 통한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시스템 강구
 - 입주 기업 중 식품분야 R&D 우수기업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선진국의 '이노베이션 박스*' 개념 도입 등 검토
 - * 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소득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인세 5%의 세율만 납부하는 네덜란드의 R&D 우대 조세 제도
- 글로벌 식품 R&D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인센티브 제공* 등을 통한 국내·외 최고급 연구인력 확보 필요
 - * 세계적으로 저명한 원로급 박사 등의 유치를 위해, 선진국 수준의 처우와 주거·문화를 비롯한 연구 생활환경 조성
- 기존의 서울 국·공립대학의 식품대학·연구소나 신설을 통해 Branch 대학·연구소(분원)를 푸드폴리스에 설치, 식품 R&D 기능 강화

□ 기존 식품 R&D 성과의 산업화 지원

- 지원센터 내에 스웨덴의 성과확산사무국(TTO*)과 같은 역할을 하는 '상품화연구촉진팀'을 설치·운영 * TTO : Technology Transfer Office
 - 기 특허 출원·등록된 R&D를 DB화,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
-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은 제품화·사업화를 추진, 일정기간 기술료를 납부 받아 '(가칭)식품R&D 펀드'를 조성하여 식품R&D에 재투자

다. 기타사항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·연구소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되, 타 식품 기업·연구소도 희망기업에 대해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

라. 추진일정

구 분	< 구축 단계 >		
	'12~13	'14~15	'16~
사업추진 계획수립			
사업 본격 추진			

마. 기대효과

- 5대 핵심전략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자립화
 - 글로벌 스타 제품 20개, Hidden Champion 기업 10개 탄생에 기여
- 농어업 성장견인과 함께 신규시장 창출 기대

바. 투자계획

-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반영 : 500억 원
- 5대 핵심분야 연구개발 지원 450억 원, 식품패키징·설비 등 연구지원 50억 원 등
 - * 예비타당성조사결과('09. 11)를 적용한 사업비로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② 건강 및 기능성식품 개발 · 육성

◆ 주요 농산물*을 대상으로 매년 2개 이상의 스타기능성 식품 개발 추진

* 5대 전략 농산물에 집중 : 인삼, 김치, 과채류, 한약재류, 쌀 등

가. 현황

□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*은 연평균 6~10% 이상 성장세 지속

* ('03년) 1.8천억\$ → ('08년) 2.7('03 대비 48.9% 증) → ('14년 P) 4.0

- 우리나라는 시장규모가 세계시장의 약 1%('08년 기준) 정도로 낮은 수준
 - 미국, 유럽, 일본 등 선진국이 세계시장 80% 이상 차지



□ 선진국은 생명공학 등과 융합한 기능성 식품연구 활발

- 네덜란드의 '니조연구소'에서는 닭 사료에 기능성 색소를 개발·첨가, 노화로 인한 시력감퇴와 눈 질병을 예방하는 달걀을 연구·생산하는 수준
- 덴마크는 자작나무와 해조류 추출물질을 활용, 당뇨·암 환자·운동 선수·성장기 어린이에 적합한 저지방·고단백 기능성 아이스크림을 생산

□ 우리나라는 기능성 식품 R&D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제품개발 애로

- 시험관시험, 동물실험, 독성·임상시험 등 여러 과정을 거쳐 기능성을 평가하는데 많은 비용과 장기간 소요
 - 평가기간 장기화(3~5년), 고비용(3~5억원), 높은 실패율 등으로 중소기업은 애로

나.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□ 주요 농산물의 기능성 원료표준화, 기능성·안전성평가 지원에 집중 투자

- 기업이 참여하는 원료 표준화, 기능성·안전성평가 과정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기능성 식품 개발 촉진

- 5대 전략 원료(인삼, 쌀, 김치, 과일, 한약재) 소재에 집중
 - 20년까지 식품 기능성 연구에 투자를 강화하여 매년 2개 이상의 스타기능성 제품* 개발
- * 스위스 파마تون사는 인삼의 사포닌 추출 기능성식품(진사나)으로 연 30억\$ 매출
- 국내 협업연구를 기본으로 하되, 필요시 국제 공동 연구개발로 진행

< 지원분야>

구분	지원분야
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 설정	지표·기능성분 발굴, 기준 규격 설정 등
안전성평가	독성시험, 임상시험 등
기능성평가	시험관시험, 동물시험, 인체적용시험 등

*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설립 기본계획(2011)

-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인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헬스식품(다이어트·동안·건강한 노화 등) 연구개발 추진

- 가칭 '헬스아카데미'와 '캠퍼스'를 개설, 국제기구와 공동R&D 추진 등 인간미래 연구의 허브화
- 건강 및 기능성 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

□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 및 협업연구를 통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 촉진

- 네덜란드 NIZO(니조) 연구소, 캐나다 리차드슨 연구소 등과 기능성 식품분야 공동 연구를 통해 선진기술 도입 촉진 및 기술 고도화 추진
- 매년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해 국제 공동 R&D 프로젝트 추진
 - 입주기업·연구기관 등과 일부시설 공동사용·연구

- 기능성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'식품품질안전센터'는 물론 인근의 국책연구소·국내 대학연구소·민간연구소 등과 협업연구 실시
 - 독성실험, 인체시험 등은 국내외 유수 연구소와 협업연구 추진

□ 기업의 기능성 식품 인증을 위한 교육·컨설팅 및 성분분석 지원

-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단계에 필요한 식품품질안전^{*} 인증회득 관련 교육·컨설팅 지원
 - *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, HACCP 및 필요시 ISO22000으로 지원 확대 등



- 식품의 제조·가공 과정에 필요한 원료 및 성분 분석 비용 일부 지원
 - 중소기업 및 농업관련 법인을 대상, 수출 등을 위한 분석비용^{*}을 지원
 - * 식품영양표시,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, 자가품질 분석 등

□ 기능성 식품 상품화 R&D 통합관리 추진

- '15년부터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등 평가과정 지원을 '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'로 관리 일원화하여 기능성 식품 상품화 연구의 시너지 효과 창출
 - * 기능성연구 76억원(농기평), 임상시험지원 지원 14억원(한식연) 등 총 90억원('10)
- 독성실험·인체적용시험 등 식품기업의 식품기능성 인증과정의 One-stop 지원^{*} 시스템 구축
 - * 기능성 인증과정에 필요한 연구·시험은 각 기관과 협업·위탁으로 수행

다. 기타사항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, 타 식품기업도 희망 기업에 대해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

라. 추진일정

구 분	< 구축 단계 >		
	'12~13	'14~15	'16~
사업추진 계획수립			
사업 본격 추진			

마. 기대효과

- 기능성 식품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로 '기능성 식품강국' 실현에 기여
 - 기능성식품의 협업연구와 국제 공동 연구개발로 기술 선진화 촉진
 - 기능성식품의 Hidden Champion 발굴 등 식품산업의 '캐시카우' 역할
- 기능성소재의 산업화 촉진으로 국내 기능성제품의 수출 견인

바. 사업별 투자계획

□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반영 : 169.9억 원

- 기능성 식품 국제공동 연구, 기능성평가 지원, 성분분석 지원, 교육 · 컨설팅 등 지원
- ※ 추가 소요액 : 200억 원(추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반영)

③ 국내외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

- ◆ 푸드폴리스를 중심으로 전주혁신도시·새만금·대덕연구단지가 '식품과학벨트'를 구축, 글로벌 R&D 네트워크 선도

가. 현황

□ 식품 선진국은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·운영

- (네덜란드) 고급 R&D 인력과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산·학·연·관의 네트워크 구축·운영으로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발전
- (스웨덴-덴마크)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(OFN) 조직을 통해 산·학·연 간합작연구·기술개발·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포럼, 세미나 개최

□ 우리나라에는 많은 식품기업과 연구소가 있으나 상호 연계·협력 미흡

- 국책 식품연구소 3개, 지자체 주요 식품연구소 8개, 민간식품 연구소 330개, 대학(식품) 206개 등이 있으나 체계적인 네트워크 연구 미흡

계	공공기관 (국책식품연구소+지자체식품연구소)	민간연구소	대학
547	11	330	206

- '05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(지역클러스터) 67개, 향토 산업 139개가 조성되어 있으나, 상호연계 활동 미흡
- 식품기업의 관심사항에 대한 식품연구소간 협력연구 필요

□ 푸드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식품 네트워크 구축·활용 필요

- 전국의 주요 식품기업·연구소와 글로벌 식품기업·연구소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교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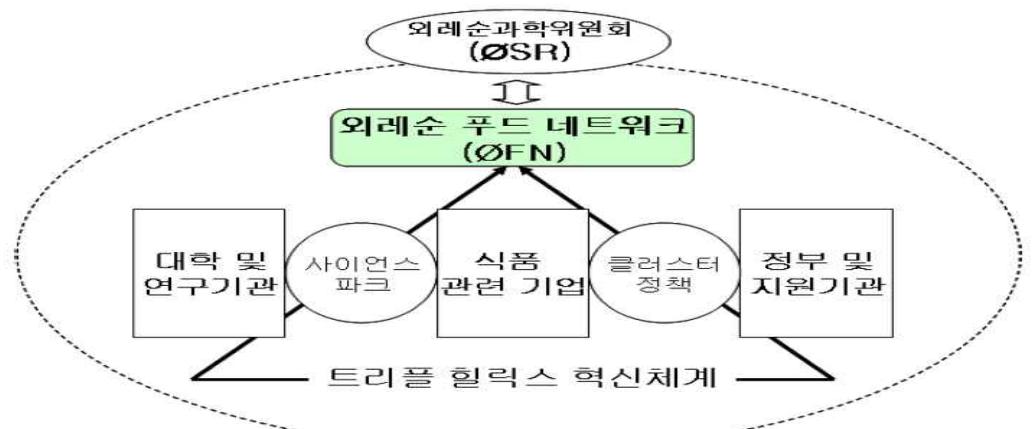
해 외 사례

◇ (푸드밸리) 4개의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주체가 프로젝트별로 협력체계 구축·운영

운영 주체*	주요 기능 · 역할
① 푸드밸리 재단	· 산학연 네트워크 코디네이터(푸드밸리 소사이어티 운영)
② 동 네덜란드개발청	· 기업혁신 역량제고(지역산업 진흥 전담 공공기관)
③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	· 교육 및 식품 R&D
④ 신텐스	·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· 운영

◇ (외레순) 외레순 지역의 분야별(산업별) 산학연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운영주체는 상·하층 개념의 메커니즘으로 구분·운영

- (상층) ‘외레순 지역 과학기술 협의회(OSR)’ 가 지역의 주요 분야별(산업별)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기관(7개)*에 대해 협력 주도
 - * 식품(외레순푸드네트워크), 의료(메디콘밸리), 환경(외레순환경아카데미), 물류(외레순로지스틱스), 정보통신(외레순IT), 창업·경영(외레순기업기정신), 나노(나노커넥트스킨디나비아)
 - 각종 사업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각 산업별 클러스터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(21명)에서 결정되며 전문성·독립성이 철저히 보장
- (하층 : 식품네트워크) 3가지 전략분야(① 식품·보건 ② 생산과 지속성 ③ 요리법과 화산) 산학관 협력을 주도하고, 식품 네트워크를 지원
 - 전략분야별 1~2명의 프로젝트 리더 선임·활동
 - 이사회는 외레순 푸드네트워크 회원(78개사)에서 2/3, OSR에서 1/3로 구성·운영



나.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□ 글로벌 식품 네트워크 구축

- 3대 R&D 센터, 입주기업, 국내외 식품 기업·연구소^{*} 등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·교류협력 추진

* 푸드밸리 NIZO 연구소, 영국 캠든 BRI, 캐나다 리차드슨 등



- 글로벌 학회·포럼 유치 및 개최로 식품연구·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

- 세계 식품공학 포럼(ICEF, 4년마다 개최), CODEX(전 세계 연중개최) 등 저명한 학회·포럼·심포지엄 등 유치 또는 개최
- 푸드밸리, 외레순, 나파밸리 등 세계 식품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(GFN)를 구축하고, '(가칭)글로벌식품개발기금' 공동 조성 방안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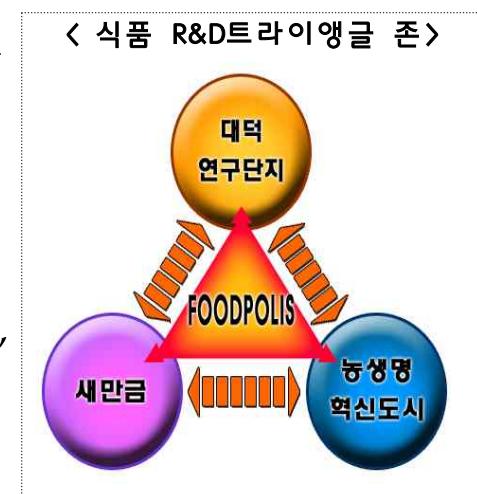
- 국내외 유관기관·기업과 인적교류를 통한 Manpower 네트워크 구축

- 지원센터, 3대 R&D 센터 등 각 기관별 국내외 기관과 교환 근무·파견 등
- 입주 식품기업·민간연구소 등도 글로벌 기업·기관과의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프로그램 연계 운영

□ 국가식품클러스터(푸드폴리스)를 중심으로 '식품 과학 벨트'를 구축

- 새만금지역, 국책 연구기관이 있는 전주 혁신 도시와 연계하는 '식품 R&D 트라이앵글 존'을 중심으로 반경 50km내의 연관 연구기관^{*}을 포함하는 R&D 네트워크 구축

- 종자를 연구하는 Seed-Valley를 포함, '종자에서 부터 식탁까지' 연구기반 확보
- * 대덕연구단지, 정읍 안전성연구소, 순창 장류연구소 등



□ 국내의 식품기업, 국책·민간연구소, 대학, 지역클러스터, 생산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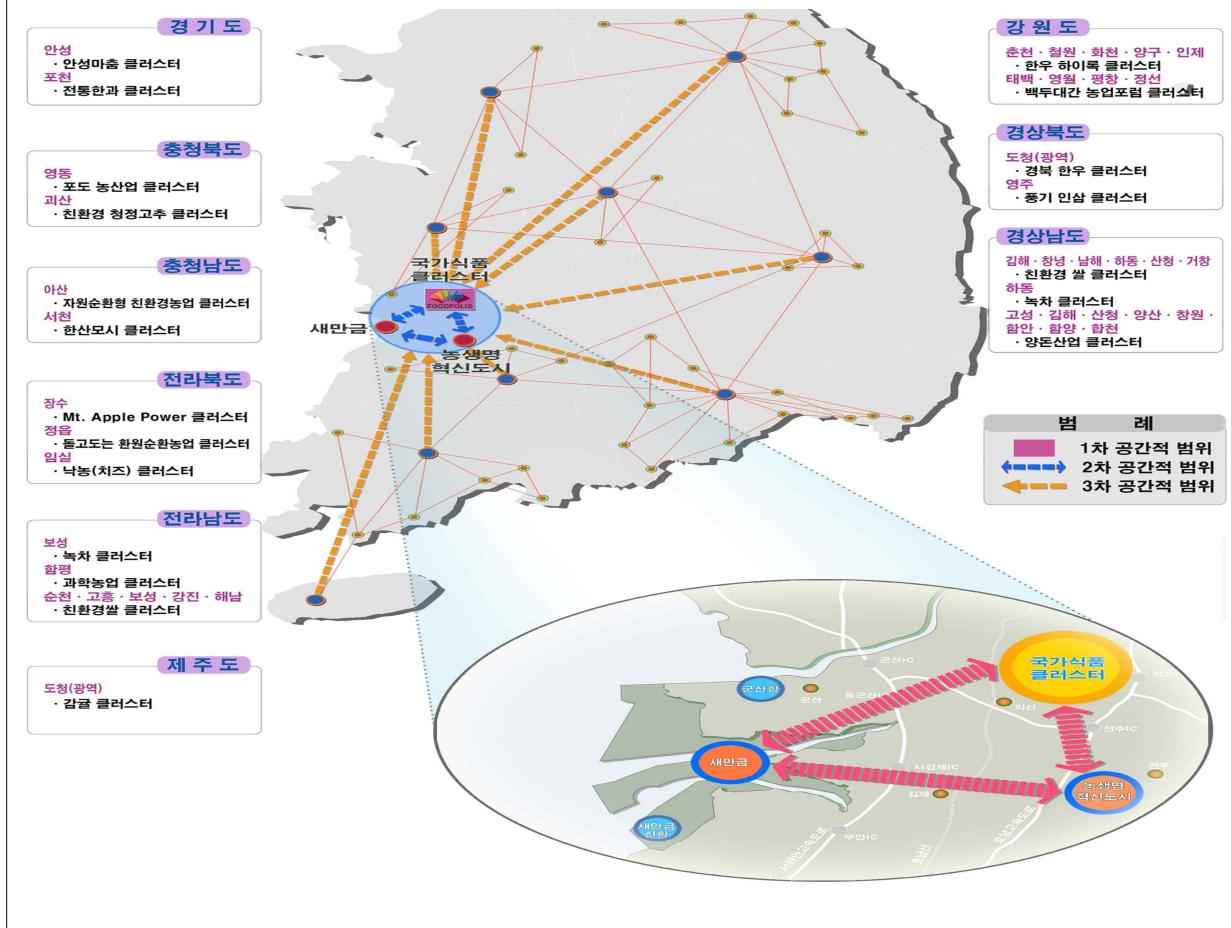
- '(가칭)식품 이노베이션 Top 커뮤니티*'를 구성, 식품 이노베이션 주도
 - * 식품기업 · 연구소, 정부 · 지자체 · 지원센터, 입주기업 · 연구소 대표 등 20~30명으로 구성
 - 국가적 또는 범기관적 연구(R&D)과제 발굴 등 주도
 - 기업·연구소·대학·지역클러스터 등이 참여하는 30~40개의 중소 푸드커뮤니티 운영, 1개 커뮤니티에 30여명으로 구성하여 최대 1,200여명의 전문가 참여
- 유수대학·농진청, 한식연 등 국책 연구기관 등과 통합 R&D 시스템 (협업체계) 구축
- 인력양성, 기능성 식품개발, 패키징 기술개발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(S/W)과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(협업) 체계 구축 촉진
 - 푸드폴리스 H/W시설, S/W프로그램 활용시 협업체계 우대

□ 지역클러스터 및 향토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, R&D 등 지원

- (지역클러스터) 지역 클러스터*의 가용자원을 통합·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수산업 주체들과 협력 · 보완체계 구축
 - * 전북 임실 낙농(치즈) 클러스터, 경남 김해 친환경쌀 클러스터 등 총 67개 운영('11년)
- (향토산업) 전국의 향토산업단지*가 푸드폴리스의 H/W 시설 등을 활용, 안전검사·패키징 연구·시제품 생산 등의 협력체계 구축
 - * 김포 인삼쌀맥주, 고흥 석류기능성식품개발, 제주감귤명주산업 등 총 139개 운영('11년)
- 지역클러스터사업단과 향토 산업단지에서 파일럿플랜트, 3대 R&D 센터 등 우선 활용토록 인센티브 부여
 - 푸드폴리스와 지역클러스터 등이 참여하는 '(가칭) 식품클러스터협의회(KnRFC*)'를 구성 · 운영, 협력 활성화 * Korea National and Regional Food Cluster

< 참고 >

클러스터 통합을 통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방안 예



□ '(가칭)입주기업·기관협의회'를 구성·운영, 협력발전 방안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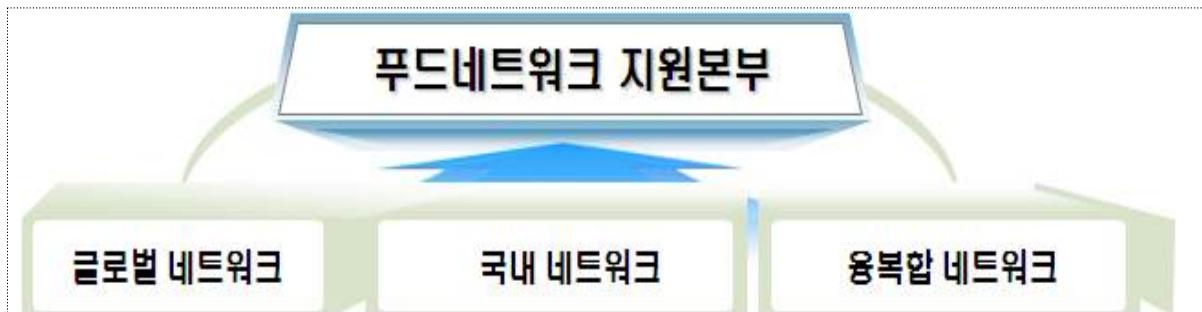
- 각 분야별 지속적 이노베이션 활동을 위해 상호협력·공동학습·정보공유 커뮤니티 활동
 - 일부시설을 개방형 운영, 입주기업·연구기관 등과 공동사용·연구 추진
- 업종별, 이노베이션 요소별 또는 업종과 이노베이션 요소를 결합한 다양한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

< 운영 유형 예시 >

구분	R&D 중심형	생산 중심형	마케팅 중심형
개요	핵심기술력을 보유한 R&D 전문기업이 R&D, 생산, 마케팅 기업들과 협업추진	생산시설 및 능력을 보유한 생산전문기업이 R&D, 생산, 마케팅기업들과 협업추진	특정업종 분야의 국내외 판매 네트워크를 가진 마케팅 전문기업이 R&D, 생산기업들과 협업추진

□ 지원센터 내 '(가칭)푸드네트워크 지원본부' 설치·운영

- (구성) 글로벌 네트워크팀, 국내팀, 융복합산업팀 등 3개팀 10명 내외로 구성, 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



* 외국사례 : 외레순의 푸드네트워크(OFN), 네덜란드 푸드밸리 재단

- Food Value Chain에 관계되는 연구기관·기업·정부(지자체)를 하나로 연결, 기업·연구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기반의 네트워크* 구축

* (외 레 순) 푸드네트워크(OFN), 스웨덴 영양재단 등
(푸드밸리) 푸드밸리 소사이어티, TIFN(대기업), FND(중소), FINE 등

- 식품뿐만 아니라 IT·BT 등과 협력적 활동 기획·추진
-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방향 결정, 세미나·컨퍼런스 개최 등
- 식품업체들의 공동 관심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센터, 국내 센터, 타 산업과 융합 센터로 나누어 협력 활동 전개

라. 추진일정

구 분	'12~'13	'14~'15	'16~
사업 추진 계획수립			
사업 본격추진			

마. 기대효과

- 국내외 공동연구, 학회·포럼 개최 등으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
 - 입주기업·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혁신(이노베이션) 창출
- 기업·연구소의 식품기술 현안 문제 신속해결에 기여
 - 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기능을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간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

바. 투자계획

※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지원대상 명시화에 따른
추가 소요액 : 56억 원(추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반영)

4. 식품 수출기지화 및 농어업 동반성장

세부 실천과제

- ① 글로벌 식품수출 거점기지 구축
- ② 식품기업 수출시장 개척 지원
- ③ 입주기업 물류지원 체계 구축

핵심내용 및 주요지표

■ 글로벌 식품수출 거점기지 구축

- '식품 수출거점 기지' 구축을 통한 농식품 글로벌 수출산업 단지화 추진
 - 수출시 수입 원재료 관세가 면제되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
 - 검역·통관 통합사무소 설치·운영, 수출입 행정 통합지원

■ 식품기업 수출시장 개척 지원

- aT와 합동으로 One-Stop 종합 수출지원 체계 구축
 - 수출정보 제공, 애로상담 및 기업별 맞춤형 수출업무 지원
- 해외시장 박람회 참가·공동 마케팅 등 해외시장 합동개척단 운영
 - 유수 박람회에 참가 푸드폴리스 특별 상품전 개최, 바이어 초청 등
 - 할랄, 지중해 식품시장 등 특수시장 선제적 개척 지원

■ 입주기업 물류지원 체계 구축

- 저비용 고효율 물류체계 구축 및 동북아 식품 물류허브 구축
 - 입주기업 전담 메이저 물류회사 선정(1~2개)을 통한 푸드폴리스 중심 물류 구축
 - 군산항·공항을 중국·일본·동남아 식품 관문 항만·공항으로 활용

① 글로벌 식품 수출 거점기지 구축

◆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검역·검사·관세 '통합사무소' 설치·운영

가. 현황

□ '11년 우리나라 농식품 교역규모는 총 409억불(수출 77, 수입 332) 수준

- 수출 증가율도 크지만 여전히 수입이 줄어들지 않아 식품 수출 가공단지조성 등 획기적인 수출대책 필요

구분	'00	'07	'10	'11	비고
교역량	128억 불	229억 불	315억 불	409억 불	
수출	30억 불	37억 불	58억 불	77억 불	'00년대비 157% 증
수입	98억 불	192억 불	257억 불	332억 불	'00년대비 239% 증

- 국내 식품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매출 규모 비교시 중소기업 수준에 해당
 - 네슬레 매출('10) 130조원이나 CJ제일제당은 3.9조원으로 1/30에 해당

□ 식량 자급률이 낮아 식품 원료의 해외조달 의존도가 높음

- 식량 자급률은 '07년 기준 27.2%로 OECD 국가중 하위 수준
 - * '03년 FAO 통계 기준으로 OECD 29개국 가운데 26위 기록
 - 프랑스(329), 독일(147.8), 영국(125.3), 미국(125.0), 한국(25.3), 일본(22.4)

□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해외 식품원료 조달 불안정성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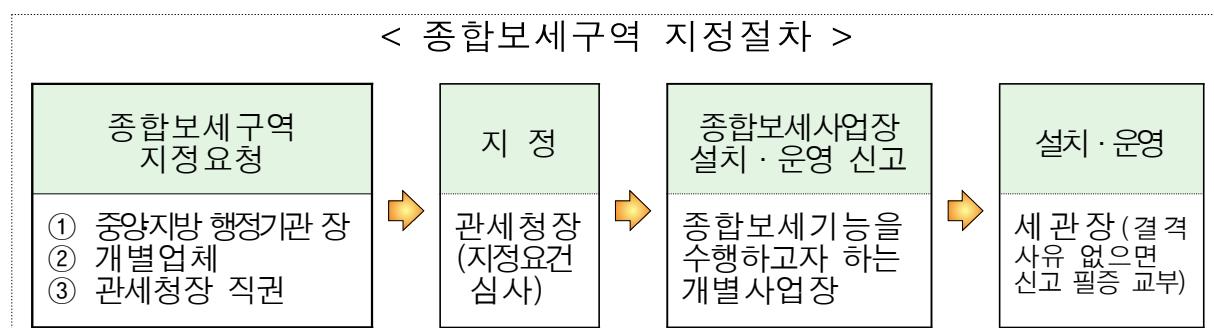
-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 등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 추세 지속
 - 밀 : ('07) 237 \$/톤 → ('08) 309 → ('09) 206 → ('12.3) 239
 - 대두 : ('07) 318 \$/톤 → ('08) 454 → ('09) 375 → ('12.3) 497
-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제한조치 등을 확대하는 반면, 수입선 다변화, 해외곡물생산기지 확보 등의 구체적인 대응은 미흡한 수준

나.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□ '식품 수출기지' 구축을 위한 종합보세구역* 지정 추진

* 보세공장, 보세창고, 보세판매장 등 2개 이상 기능을 하는 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

-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산업시설 구역에 대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, 개별기업별 종합보세 사업장 설치 신고 후 운영



- 종합보세구역은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가공·

수출시까지 보류되는 지역으로 원료 수입 후
가공하여 수출하는 수출전문 기업에 유리

- 원료 수입(밀 · 콩, 오렌지, 커피 등) 의존도가
높은 업종 적합
- 국내외 식품기업의 중국 등 동북아시장 진출의 전초기지화 여건 조성



- 특히, 곡물 수입국에서 곡물 고부가식품 수출국* 전환 기반 제공

* 사례 : 원유 수입국에서 석유화학 등 석유류 제품 수출 강국으로 도약

<종합 보세구역 지정 · 운영>



□ 수출 식품 통관을 위한 통합 검역·검사 체계 구축

- 검역·검사 및 통관을 위한 '통합사무소'를 설치, 수출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One-stop으로 신속처리
 - * 농식품 검역검사 본부, 관세청, 식품의약품안전청, aT센터 등

□ 해외 수출 물류거점 기지를 활용한 수출 물류 종합지원

- '농식품 수출 해외 전진기지(aT)'를 활용, 대 중국 수출 지원
 - 냉장·냉동 보관시 저렴한 물류비용, 기존 진출 한국 유통 업체와 제휴할 수 있는 시장개척 등을 지원
- 해외 7개국 12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활용

□ 곡물 등의 해외 원료시장 정보제공 및 원료 조달 안정화 지원

- aT 등 수입 농산물관리기관 및 곡물 메이저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계약이나 장기구매, 공동구매 등으로 해외 농산물 조달방식 다원화
 - 통합 구매관리를 통해 구매 협상력 제고 및 원가절감 도모
-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, 옥수수, 콩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자체 해외 곡물 유통망 모색 및 국가곡물조달 시스템(aT) 활용
 - 푸드폴리스내 국제 곡물 유통회사를 유치, 해외 곡물정보 확보
- 해외곡물 원료 조달 안정화·교섭력 제고 위해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'수입원료정보망'을 구축하고, '(가칭)수입원료협의회'를 구성·운영
 - 국내외 글로벌 메이저 유통회사와 MOU를 통한 협력체계도 구축

다. 기타사항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되, 타 식품기업도 희망 기업에 대해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

라. 추진일정

구 분	'12~13	'14~15	'16~
사업추진 계획수립			
• 종합보세구역 지정			
• 검역/통관 통합사무소			
사업 본격 추진(운영)			

마. 기대효과

- 종합보세구역 지정·운영으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(수출시)로 가공식품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
 - 원료에 대한 원가부담 감소로 글로벌 식품기업의 투자 촉진에 기여
- 수출 제품에 대한 검역·검사·통관 통합사무소 설치로 수출 절차 소요기간 단축 및 간편화
- 해외 공동물류센터(냉장·냉동 유통시스템)와 연계, 고품질 제품의 안정적인 수출 가능
- 해외 원료 공동 구매 등으로 원료조달 안정화 및 비용 절감

바. 투자계획 : 해당사항 없음(비 예산사업)

<참고>

종합보세구역 지정 제도

○ 의의

- (개념) 외국인투자 유치, 무역진흥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
- (목적) 외국인투자 유치 ·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제도로 지원제도로 '98.12.28 관세법 개정시 도입

○ 지정 요건

구 분	요 건 (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
지 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 및 수출금액 연간 미화 1천만불 이상•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톤 이상
개별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•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• 위 자본금 또는 수출금액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통관을 위한 일시장치 기능과 보관 · 분할 · 병합 · 재포장 · 분배 등 국제물류 촉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

○ 지정 효과

- 원재료 과세보류 사용, 원료과세 · 제품과세 선택 적용
- 제3자물품 가공 허용, 보관물품 장치기간 미적용 등
- 특허수수료 절감, 창고보관료 절감 등

○ 지정 현황

- 대덕테크노밸리,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, 인천북항다목적부두,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, 대한항공 김해공장 등 총 26개소

② 식품기업 수출시장 개척 지원

◆ aT와 협동으로 입주기업 One-stop 수출 종합지원 체계^{*} 구축·운영

* 수출정보 제공, 애로상담 및 검역·검사·통관업무 일괄처리 지원

가. 현황

□ 수출업체가 영세하고 대량 수출품목과 글로벌 식품 부재

- 농식품 수출업체 약 80%가 100만달러 이내로 수출하는 영세한 구조
- 프랑스 와인(7억\$)과 같은 대표성 있는 수출품 부재
- 수출국이 일본,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집중 경향
 - 유럽 등 식품산업 거대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 미약

□ 농식품 수출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

- 국내 식품산업 육성과 한류 확산, 한식세계화로 우리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기회로 작용
- 다만, 다국적 식품기업^{*}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는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진출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

* 네슬레(120개국), 다논, 유니레버, 크래프트 식품, 맥도널드 등

□ 식품기업 대부분이 수출 상대국에 대한 기초정보 및 지식 부족

- 수출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현지 시장 및 바이어에 대한 정보, 제도·절차 등에 대한 기초 정보 획득 곤란
 - 해외 시장 및 식품산업동향 정보 제공,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필요

나.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와 협동으로 One-Stop 수출지원 체계 구축
 - aT와 연계 '입주기업 수출종합지원단(가칭)'을 설치·상설 운영
 - 검역·검사·통관 '통합사무소'와 연계하여 수출 행정 일괄처리 지원
 -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 상담실 병행 운영
 - 수출 상대국의 시장 현황·규제·제도 및 기업진출 여건 등 무역 정보 제공과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무역실무 교육 실시



수출정보 제공

- ◇ 주요 국가별·품목별 수출 관련 정보 심층 조사·분석
 - FTA체결 국가들의 소비패턴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조사
 - 주요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의 유망시장별 진출 현황 및 유통실태 분석
 - 해외정보조사기관 및 해외 aT 모니터 정보 활용, 이슈 분석·제공
- ◇ 농식품 수출업체들에 대한 전자상거래 인프라 지원 강화
 - AgroTrade(www.agrotrade.net)와 연계, 입주기업 농식품 프로모션에서 수출까지 인터넷 업무 지원
 - Google 등 '검색엔진 마케팅'을 통해 푸드폴리스 농식품 인지도 제고
- ◇ 세계 식문화^{*} 연구 및 DB 구축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 기반 마련

□ 수출 식품의 안전관리 및 검역관리 강화로 품질 신뢰도 제고

- 식품품질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수출 식품의 검사 지원 및 관리
 - 현장중심의 수출교육을 통해 안전성·검역에 대한 인지도 제고
- '수출기업 협의회'를 구성, 수입국 검역환경 개선과제 발굴·해소 추진

□ 푸드폴리스 '입주기업 특별 기획전'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 지원

- 해외 유수 박람회 참가 및 푸드폴리스 특별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한 수출 상담·계약 촉진
- 푸드폴리스 공동 브랜드 개발로 기업 제품 마케팅 지원 강화
 - 권역별 주요 수출국에 수출기업 합동으로 '(가칭)푸드폴리스 제품 AS센터'를 운영, 해외 소비자 불만의 신속한 해결 및 모니터링 강화
- 주요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 대형 유통업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

□ 할랄 식품시장 등 지역 특수시장 개척 지원

- 할랄식품 인증기관 유치 등 수출 희망 기업의 할랄인증* 업무 지원
 - * 이슬람권에서 섭취하는 식품 제조시 금지된 식품 또는 성분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증
 - * 할랄 식품시장 : 전 세계의 25%(16억여명) 인구분포 및 6,500억 달러
- 할랄인증 제도 소개, 기업대상 할랄인증 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등
- 인도·지중해 식품, 멕시코 등 중남미 식품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 포럼·세미나 개최 및 정보제공 등으로 미래 시장성이 큰 시장 진출 지원
- 신흥시장 및 FTA 체결국에 대한 시장 개척 지원
 - 농무관 등 현지 주재관 및 코트라, aT 해외지사 등을 활용

□ 입주기업 수출 종합평가 시스템을 통한 지원 차등화

- 안전성이 높은 원료농산물 사용실적, 수출바이어 개척 능력 등을 평가
- 농식품 수출 우량기업 선정 및 포상, 금리 차등화 등 인센티브 제공

다. 기타사항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되, 타 식품기업도 희망 기업에 대해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

라. 추진일정

구 분	< 구축 단계 >		
	'12~13	'14~15	'16~
사업추진 계획수립			
· One-stop 지원체계 구축			
사업 본격 추진(운영)			

마. 기대효과

- 푸드폴리스 식품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
 -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 행정 통합화로 수출절차 간소화 등
- FTA 등 복잡해진 무역환경을 분석한 정보를 입주기업에 제공, 기업별 국가·지역별 수출전략 수립 용이
 - 포장용기, 라벨, 외형 개선 및 식품기호를 반영한 제품개발에 기여
- 인도·할랄식품·남미·아프리카 등 특수지역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
 - 특수지역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, 관심유도 등으로 선제적 대응력 제고

바. 투자계획

※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지원대상 명시화에 따른 추가 소요액 : 120억원(추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반영)

③ 입주기업 물류지원 체계 구축

- ◆ 입주기업 전담 메이저 물류회사를 1~2개 선정, 저비용 고효율 물류체계 구축
- ◆ 군상항·공항을 식품관문(게이트) 항·공항으로 활용, 동북아 식품물류 허브 구축

가. 현황

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될 입주기업의 물류량은 '20년 9백만톤* 발생 예상(1.5조원 소요**)

* 매출 100\$(≒100천원)에 61kg 물류량 발생 추정(2010년 농식품부 수출현황)

** '20년 15조원 매출액 추정 및 물류비 비중이 매출액 대비 10% 산정 인용
(자료 : '08년 수출입물류 실태조사, 한국무역협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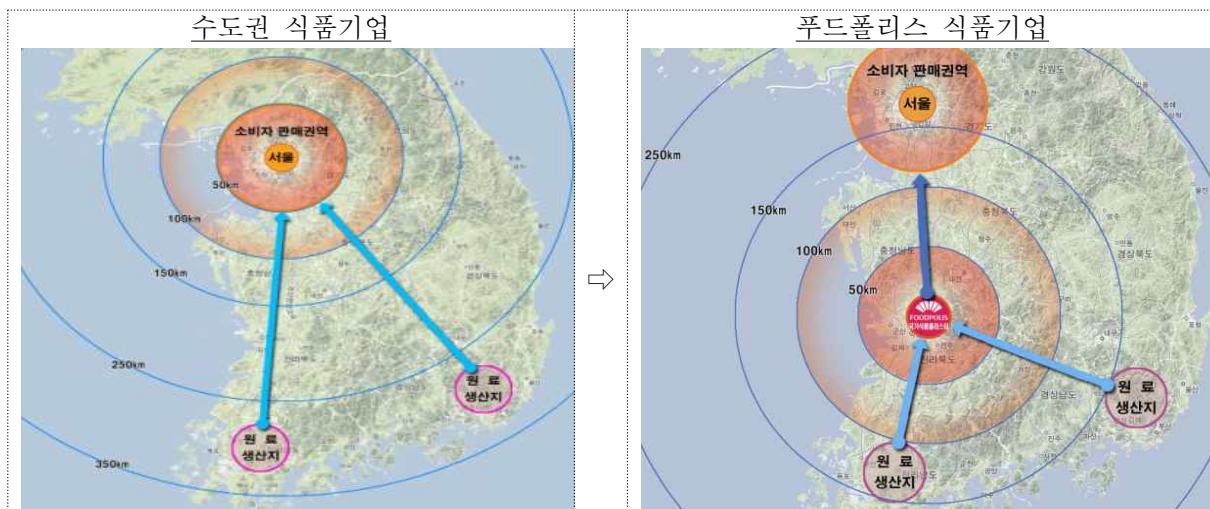
- 수출 물류량은 '16년 1.2백만톤, '20년 1.8백만톤 발생 예상(매출액 대비 20% 규모시)

국가식품클러스터 연도별 예상 매출액별 추정 물동량

구분	'16	'20
매출액	100억\$(10조원)	150억\$(15조원)
물동량	6.1백만톤	9.2백만톤
수출액	20억\$(2조원)	30억\$(3조)
물동량	1.2백만톤	1.8백만톤

- 식품기업의 국내 소비시장 유통을 위한 물류비 부담 완화 필요

- 수도권보다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대응 필요



□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 인프라는 양호한 편

- 군산항이 45Km(40분), 새만금항(50분)·당진항(60분)· 평택항(100분) 등

* 네덜란드의 경우, 푸드밸리의 거점항구인 로테르담항이 푸드밸리와 102Km 위치에 소재

- 수입원료(주로 곡물)가 주로 들어오는 항만이 인천항(60%), 군산항(19%), 울산항(11%), 부산항(10%) 등 다수 존재*

우리나라 항만별 곡물처리 현황('07기준)

구분	계	인천항	군산항	울산항	부산항
수입량(천톤)	12,719	7,707	2,395	1,387	1,230
비율(%)	100	60	19	11	10

* 자료 : '새만금신항의 식품전용 항만 특화방안에 관한 연구(전북발전연구원, 2008)

- 우리나라는 세계 농산물 수입의 12%를 차지하는 중국·일본과 인접하고, 수출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요서류가 중국·일본보다 적음

한국·중국·일본의 수출입 물류 특징('09년 조사)

구분	수속서류개수(건)		소요일(일)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
한국	3	3	8	8
중국	7	5	21	24
일본	4	5	10	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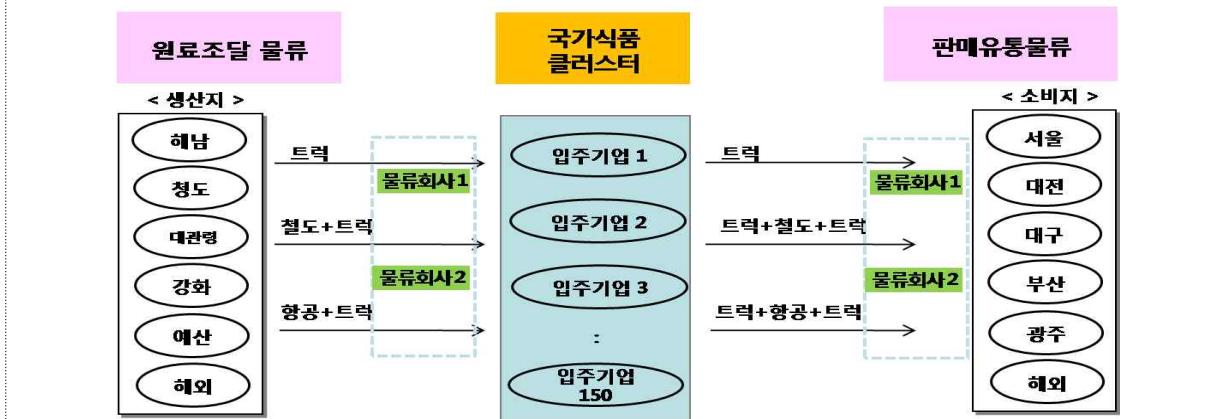
* 자료 : 세계은행(Doing Business 2010)

나.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□ 종합물류회사 선정 및 물류정보시스템 구축

- 입주기업의 물류를 전담할 물류회사(1~2개)를 선정, 통합물류정보 제공·공실률 최소 등을 통한 저비용·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
 - 전담물류회사는 입주기업의 원료조달 및 제품판매(수도권 물류비 절반수준 감축), 수출입 물류 등 물류 종합처리 기능(물류정보시스템 운영) 수행

국가식품클러스터 新 물류 시스템 구상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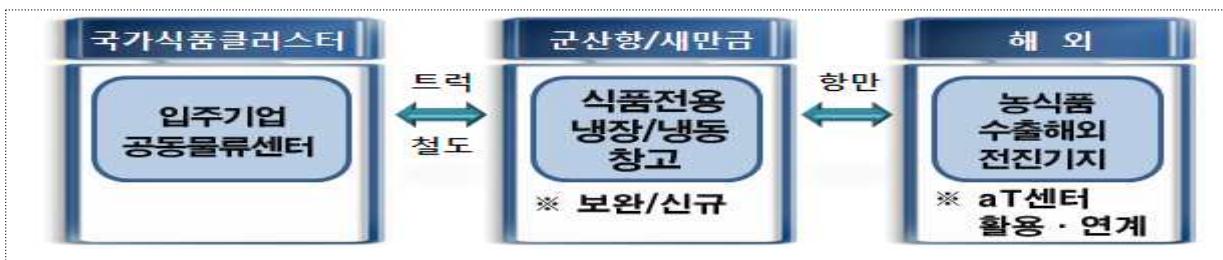
< 新 물류체계 적용시 물류비 분석 >

수도권 식품기업		푸드플러스 식품기업		전담물류 회사 운영시
○ Inbound (원료조달)	1,800억원(200Km)		900억원(50~100Km)	630억 원 (30%절감)
○ Outbound (소비자판매)	900억원(50~100Km)		1,800억원(200Km)	1,260억 원 (30%절감)
○ 총 물류비	2,700억 원		2,700억 원	1,890억 원

- * 총 물류량 : 18백만톤(Inbound 900만톤, Outbound 900만톤)
- 톤당 물류량 : ① 15톤 트럭으로 200Km 운반시(익산→서울) 요금 적용 : 32만원
② 15톤 트럭으로 50~100Km 운반시(수도권→서울) 요금 적용 : 15만원
* 화물터미널연합 운임료

□ 선진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·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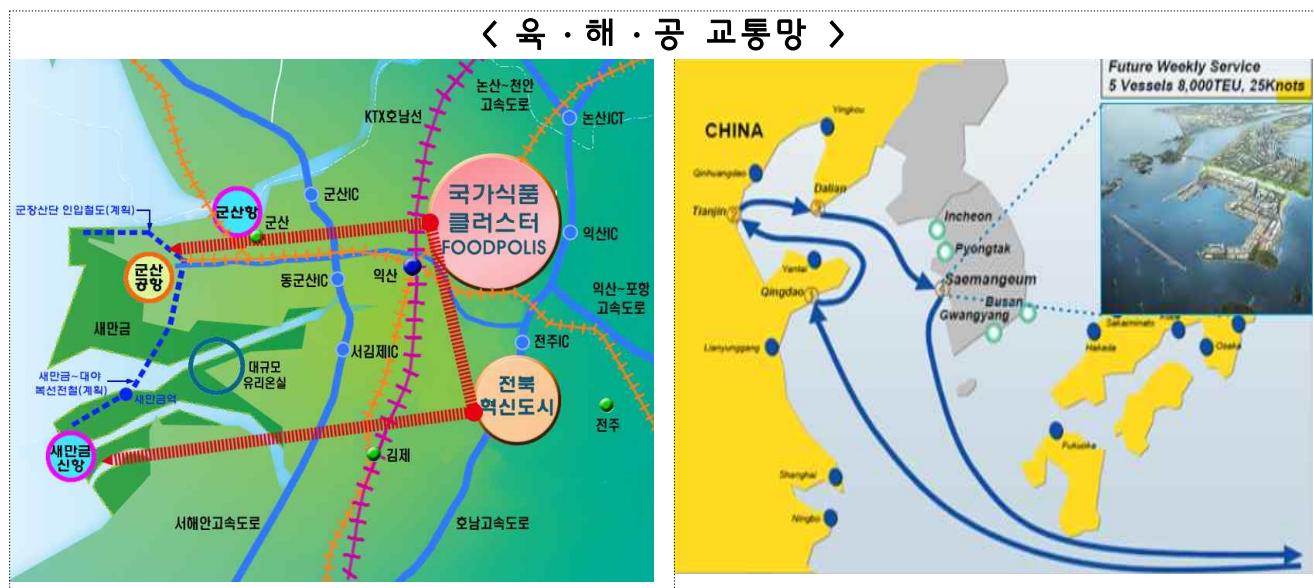
- 군산항에 식품전용 온습도 관리(냉장 · 냉동) 시스템을 구축하고, 농식품 수출 해외 전진기지('11년 7개국 12개 지역 운영)와 연계



□ 군산항 · 공항을 중심으로 한 식품수출입 물류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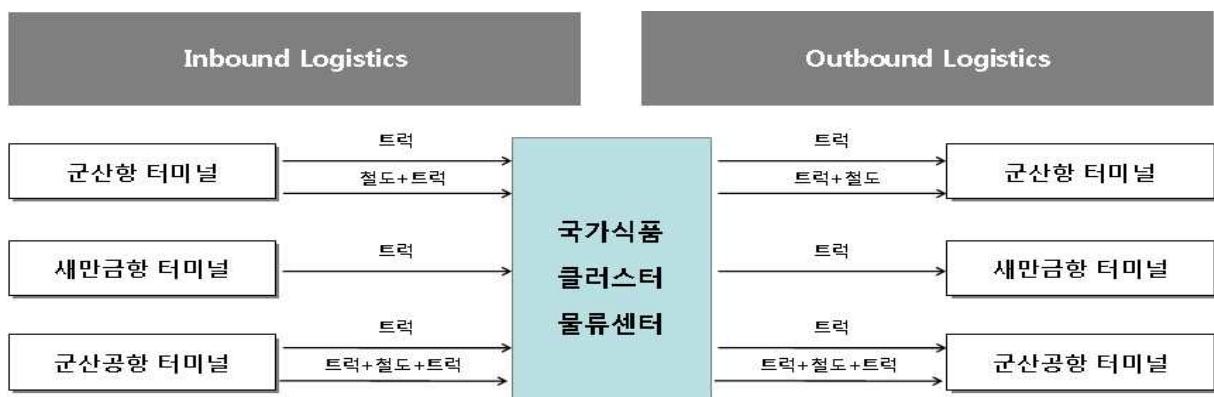
- 군산항, 군산공항을 중국(상해 · 청도) · 일본, 동남아 수출입 관문 공항·항만으로 활용, 동북아 식품 물류 허브 역할 강화

- 다만, 군산공항·항만 활성화시까지 평택항·인천항, 인천공항 활용
 - 군산항을 식품전용 부두로 활용, 냉장·냉동 창고 등 보완
- 군산항, 군산공항, 새만금 신항을 연결하는 역 “그”자의 육·해·공 수출입 물류체계 구축
 - 새만금 신항 개항시 신항을 적극 활용, 유럽·미국 수출입 담당



- 철도의 경우 익산역을 거점역으로 활용, 익산역과 푸드폴리스간에는 셔틀 화물차를 운영
 - 익산역-푸드폴리스(20km)간 관광·화물 열차(경전철·모노레일 등) 신설도 검토

< 육 · 해 · 공 교통망 >



* 군산항 이용의 경우 트럭, 트럭+철도, 새만금 신항은 트럭, 군산공항은 트럭, 트럭+철도+트럭의 교통수단 활용

다. 기타사항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되, 타 식품기업도 희망 기업에 대해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

라. 추진일정

구 분	< 구축 단계 >		
	'12~13	'14~15	'16~
사업추진 계획수립			
• 전담물류 회사 유치			
사업 본격 추진(운영)			

마. 기대효과

- 공동 집배송 시설 운영으로 운송비용(약 30~40%) 절감 및 수출입 물류체계 구축으로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
- 식품특화 수출입 물류 운송기반 시설 및 물류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동북아 식품 물류허브 구축에 기여

바. 투자계획 : 해당사항 없음(단기적 비예산사업)

세부 실천과제

- ① 농어업-식품산업 연계발전 체계 구축
- ② 관광산업과 연계로 식품산업의 6차 산업화

핵심내용 및 주요지표

■ 농어업-식품산업 연계발전 체계 구축

- '20년부터 매년 5조원의 농어업 생산유발 효과 기대
 - 농·수협을 중심으로 '산지 - 식품기업'간 원료 조달 매칭 시스템 구축·운영
 - 전북지역과 새만금 등 간척지역을 대규모 원료 공급 기지로 활용

■ 관광산업과 연계로 식품산업의 6차 산업화

- 생산-가공-문화·관광이 어우러지는 식품의 6차 산업화 추진
 - 식품 제조시설 견학·체험, 지역축제와 결합한 관광 산업화
 - 푸드폴리스가 식품·음식·문화·관광 등 체류형 관광의 중심
 - 과거와 미래(첨단식당)가 공존하는 음식거리, 글로벌 Food-Street 등 구축
- '25년 세계 식품 EXPO 개최를 통한 세계 식품산업의 중심으로 도약
 - 세계 최초의 '식품(Food)'을 테마로 한 Expo개최 추진

① 농어업-식품산업 연계발전 체계 구축

- ◆ 농·수협을 중심으로 한 산지 - 기업간 원료조달 매칭 시스템 구축
 - * '17년부터 매년 5조원의 농어업 생산유발 효과

가. 현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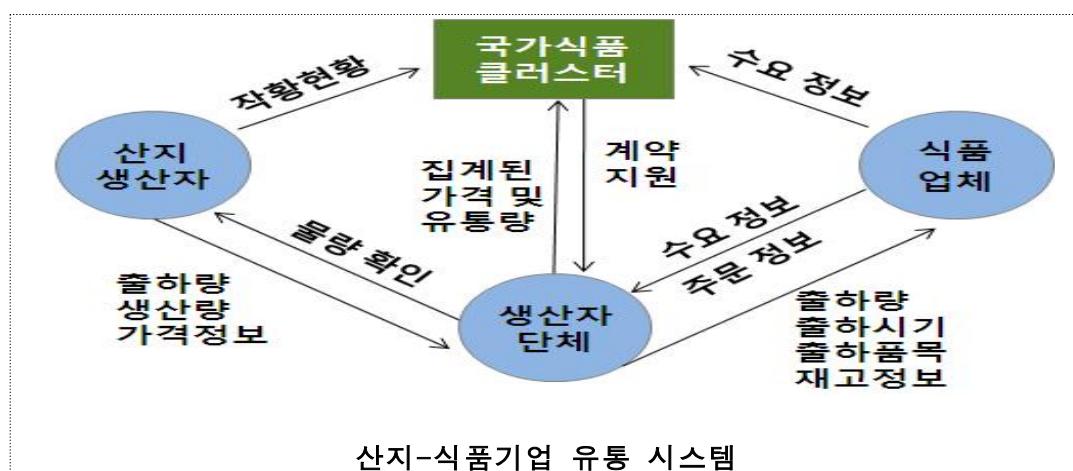
- 식품 제조업을 통한 농어업의 성장 견인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
- 식품제조업의 발전이 농어업 등 1차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생산 유발 효과는 34%로 타 분야에 비해 큰편
 - * 식품제조업 10억원 성장시 농림어업분야 3.4억원 생산유발효과
 - 쌀 10Kg 제조가공 예시 : 쌀 20천원 → 햅반 100 → 떡 125 → 증류주 213
 - 외식산업 10억원 성장시에는 1.6억원, '08년 한국은행)
- 식품 산업화에 의한 농수산물의 판로확대는 곧 농어가의 소득 증대로 연결
- 식품기업에게는 국내 농산물 원료의 적시·적량 공급이 관건
- 식품기업은 규격화된 재료, 적정 양의 원료에 대해 안정적 수급을 희망하고, 생산자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희망
- 국내농산물의 낮은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원료의 품질유지와 안정적 공급이 중요(수입산 곡물가격은 국산의 1/2~1/4 수준)
- 국내산 원료 생산의 규모화 및 공급의 지속화가 필요
- 국내 생산 기반은 농가당 생산 면적이 1ha 내외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량의 원료 공급에 애로
- 가격변화에 따른 잦은 판로 변경도 식품기업의 국내산 원료사용 기피 요인으로 작용

나.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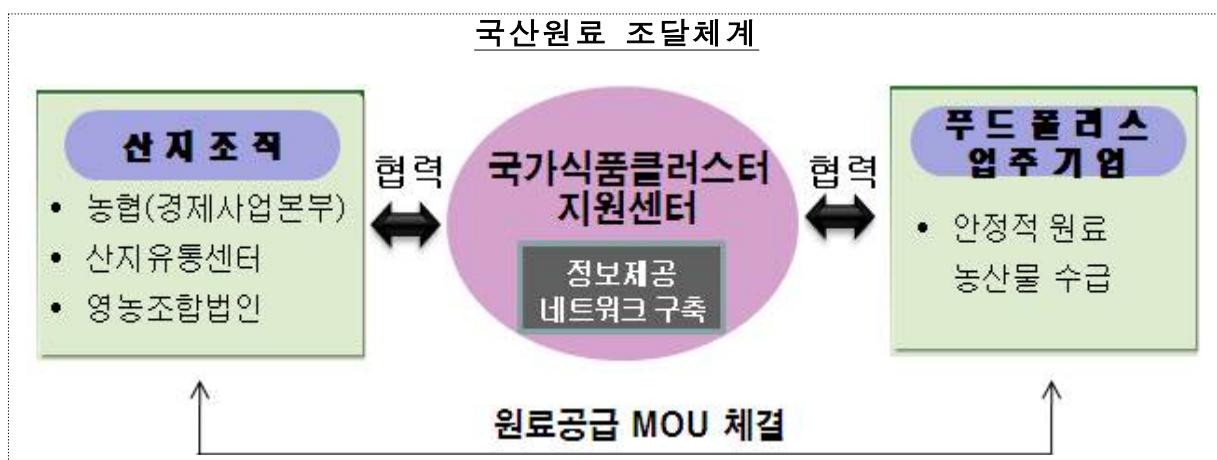
□ 산지 생산자(공급)-식품기업(수요) 원료조달 매칭(중개) 시스템 구축

- 농협(경제사업)·수협 등은 입주기업과 원료조달 계약을 맺고 국내산 원료농산물의 적시·적량 공급에 중추 역할 수행

- 산지 생산자-기업간 계약재배를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중개자역할 강화



- 기업 자회사(법인체 등)가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-농가 협작 투자를 통한 농산물 조달 활성화 도모
- 산지 생산자의 푸드플리스 기업 방문행사 등 개최, 이해와 교류 확대
- 클러스터내 산지 정보 및 기업 원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, 산지 동향과 기업의 수요를 실시간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



□ 충청·전북 등 호남을 중심으로 한 원료 주산지 적극 활용

- 쌀·인삼·채소류 등 전국 주산지별 원료농산물의 안정적·대량공급 체계 구축
 - 전남북이 쌀 주산지임을 활용, 쌀을 주제로 한 연구·가공·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(가칭)라이스파크(Rice Park) 조성 추진
- 장기적으로 새만금 등 간척지를 입주기업 원료 공급기지로 활용
 - 필요시 전국의 간척지를 식품기업에 장기 임대하여 대량 원료 공급처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

□ 고부가가치 원료농산물의 전략적 발굴, 산업화 추진

- 클러스터내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를 활용, 다양한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 발굴을 통해 가공제품 등 수요처를 확대
 -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 발굴을 통한 수요처 확대로 산업화 추진
- 천연첨가물·소재식품기업 등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
- 식품가공이 용이하도록 원료농산물 표준화를 강화
 - 기업 맞춤형 원료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(예: 삼각김밥용 쌀 육종)
- 품질안전센터를 활용, 원료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

□ 원료농산물 사용 등 푸드마일리지 표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

- ‘입주기업 협의회’ 중심으로 원료농산물 사용 등 푸드마일리지 표시 평가대회를 개최, 우수자에게 기업지원 H/W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

다. 기타사항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되, 타 식품기업도 희망 기업에 대해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

라. 추진일정

구 분	< 구축 단계 >		
	'12~13	'14~15	'16~
사업추진 계획수립			
사업 본격 추진			

마. 기대효과

- 식품산업 발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(매년5조원) 기여
- 원료농산물 매칭 시스템 구축으로 입주기업에 안정적 원료 공급 기여
 - 특히, 지역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

바. 투자계획

※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지원대상 명시화에 따른
추가 소요액 : 56억원(추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반영)

<참고>

농어업-식품산업 동반성장 체계



② 관광산업과 연계로 식품산업의 6차 산업화

- ◆ 식품산업과 지역축제·관광과 결합한 6차산업화 추진
- ◆ '세계 식품 EXPO'를 개최(잠정), 한국을 '세계 식품의 중심'으로 도약

가. 현황

- 나파밸리, 푸드밸리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산업을 관광산업과 결합, 국부 창출에 활용
 - 나파밸리 와이너리 체험, 열기구·열차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
 - * 미국 나파밸리는 '90년대 이후 고급레스토랑, 호텔 입주 등 고급화 전략, 관광 열기구·열차 등으로 관광산업화로 연결, 경쟁력 확보
 - 푸드밸리는 미래식당 운영으로 연구와 체험을 병행, 기업·관광객을 유인
- 최근 한류영향으로 우리식품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
 - 특히, 비빔밥, 인삼, 김치, 막걸리 등 한국 음식·농산물·식품(K-food)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
 - 이러한 K-Food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K-Food의 글로벌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필요
- K-food 식재료에 대한 정보 부재, 맛의 생소함(체험기회 부족 등)이 극복할 과제
 - 우리식품과 식재료·음식에 대한 정보·체험기회 제공 필요
 - 국내외 소비자의 취향과 스타일, 맛의 선호도, 식품에 대한 생활 패턴 등 식품에 대한 종합연구 필요

나.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- 푸드폴리스를 지역축제와 연계한 식품산업 관광 중심지로 조성
- 서동축제, 국화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시 푸드폴리스가 투어 코스의 중심으로 체류 장소 제공
- 지역 클러스터·축제, 식품명인* 및 인근 관광지 등과 푸드폴리스를 연계한 식품 사이트 투어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* 전주비빔밥 명인(김년임), 송화 백일주(조영귀), 이강주(조정형) 등
- 푸드폴리스 내 푸드시티에 체류형 숙박·레스토랑 시설 유치
 - 푸드시티에 과거 시대별(백제, 신라, 고구려, 고려, 조선 등) 식당거리를 재현하고 미래 식당거리와 글로벌 음식거리 등을 조성
- 푸드폴리스를 중심으로 익산, 군산(새만금), 전주(혁신도시), 남원, 순창, 부여·공주 등을 포함한 백제 문화권을 투어코스로 활용
 - 주변의 식품기업, 국책연구소, 원료생산지 등 다양하게 구성

투어 코스 예시

【코스 1】

서울	1일 차	한식문화 체험(중가집 김치월드 or 풀무원 김치박물관) → 문화공연 관람 → 서울소재 호텔 숙박 →
전북	2일 차	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 → 새만금 홍보관 · 전주혁신도시 → 식품기업(하림, 삼양식품) → 한옥마을 · 템플 스테이 · 호텔 중 선택 →
	3일 차	① 김제평야(벽골제, 파프리카 농장), ② 발효식품 · 지역클러스터 (순창 고추장 or 고창 복분자), ③ 한국식품문화 체험(대형마트 등) 중 선택

【코스 2】

전북	1일 차	문화공연 관람 → 발효식품 · 지역클러스터(순창 고추장 or 고창 복분자) → 한옥마을 · 템플 스테이 · 호텔 중 선택 →
	2일 차	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 → 김제평야(벽골제, 파프리카) → 새만금 홍보관전주혁신도시 → 한옥마을 · 템플 스테이 · 호텔 중 선택 →
	3일 차	① 임실치즈 → ② 왕궁터 · 미륵사지 → ③ 식품기업 중 선택

□ 식품산업을 테마로 한 ‘세계 식품 EXPO’ 개최 추진

- 대전 엑스포(전자), 여수 엑스포(바다)에 이은 식품을 테마로 세계 최초의 ‘세계 식품 EXPO’ 개최 추진
 - 생산·연구·판매(유통) 및 컨벤션을 결합한 식품종합 박람회를 개최, 푸드폴리스를 세계식품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도약

□ 푸드폴리스 Day 주간 지정, 자전거 도시, 여성친화도시 등 유니크 소재를 활용한 관광 상품화

- 푸드폴리스 Day 주간을 활용, 입주기업 제조시설 체험·참여형 (견학 → 체험→ 시음·시식) 프로그램 운영
- 여성근로자가 많은 식품산업단지임을 활용, 여성친화 도시와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이벤트 개최
- 구릉지에 위치한 도시임을 활용, 자전거로 100% 이동가능한 자전거 특화 도시를 구현, 식품과 연계한 다양한 자전거 타기 이벤트 개최

□ 해외 식품박람회, 국제 심포지엄, 한류문화 등 각종 행사와 연계된 K-food 글로벌화 추진

- 글로벌 테마파크*를 활용, 대륙별 · 주제별 식품전시회, 글로벌 요리대회, 식품영화제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한 K-Food 세계화
 - * 푸드폴리스 중앙에 위치, 주요국의 랜드마크(에펠탑 등)등이 축소 · 설치되는 24만m² 규모
- K-POP과 연계한 K-Food 홍보 추진
 - K-POP 콘서트 행사에 K-Food 전시·홍보 및 홍보대사에 K-POP 활용
- 국제 학술대회·심포지엄 등을 통한 K-food 공동연구 및 우수성 발표
- 해외지역별 식품산업, 식품·식문화에 대한 연구 및 정보수집·분석을 담당하는 ‘(가칭)글로벌 식품문화 연구팀’을 지원센터에 운영
 - 글로벌 식품 및 문화 연구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
 - 주요 식품시장별 식품의 전통 · 문화 등을 연구, K-food 진출 여건·방안 제시

- 푸드폴리스를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활용
 - 공장 투어, 식품 체험 전시장, 식품문화관 등은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활용
 -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맛·향·질감·향상 등 식품관련 감성 체험 및 식문화^{*} 연구
- * 푸드시티내 '(가칭) 미래첨단식당(소비자 반응연구소)'을 유치·운영, 연구와 체험 병행

다. 기타사항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되, 타 식품기업도 희망 기업에 대해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

라. 추진일정

구 분	< 구축 단계 >		
	'12~13	'14~15	'16~
사업추진 계획수립			
• 식품사이트투어 실시			
• 세계식품 EXPO 개최준비			
사업 본격 추진			

마. 기대효과

- 식품의 제조와 체험·전시 등 관광산업을 결합한 6차 산업화로 新 국부 창출에 기여
- K-Food의 글로벌화로 우리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
 - K-Pop과 함께 K-food의 글로벌화는 우리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
- '세계 식품 EXPO' 개최시 한국이 세계식품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도약

바. 투자계획

※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지원대상 명시화에 따른 추가 소요액 : 50억원(추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반영)

5. 식품기업 인력 공급 및 역량 강화

세부 실천과제

- ① 입주기업 인력양성·유치 지원
- ② 식품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

핵심내용 및 주요지표

■ 입주기업 인력양성 및 유치 지원

- 전국 식품 관련학과 학생의 인턴·연수, 공동 R&D를 통한 우수인력 공급
 - 3대 R&D센터, 파일럿플랜트, 민간연구소 등에 인턴·연수 후 취업
 - 식품대학과 공동 R&D 참여 인력의 취업과 연계
- 식품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
 - 지역 특성화고, 폴리텍 대학을 활용한 기능인력 공급
 - 식품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경영, 전문인력 양성·공급
- 인력증개 시스템을 통한 기업 소요 인력 적기 공급 지원
 - 채용박람회 개최, 인력증개 홈페이지 등 운영
 - '해외우수인력 유치 전담팀' 운영으로 R&D 센터 등 해외 우수 인력유치

■ 식품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

- 입주기업 세제·자금 및 마케팅 지원으로 성장촉진
 - 푸드폴리스 주거래 은행 선정 및 입주기업에 저리자금 지원
 - 푸드폴리스 기금(지자체)을 운영, 창의적 중소기업 육성
 - 중소 식품기업에 마케팅·컨설팅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지원

① 입주기업 인력 양성·유치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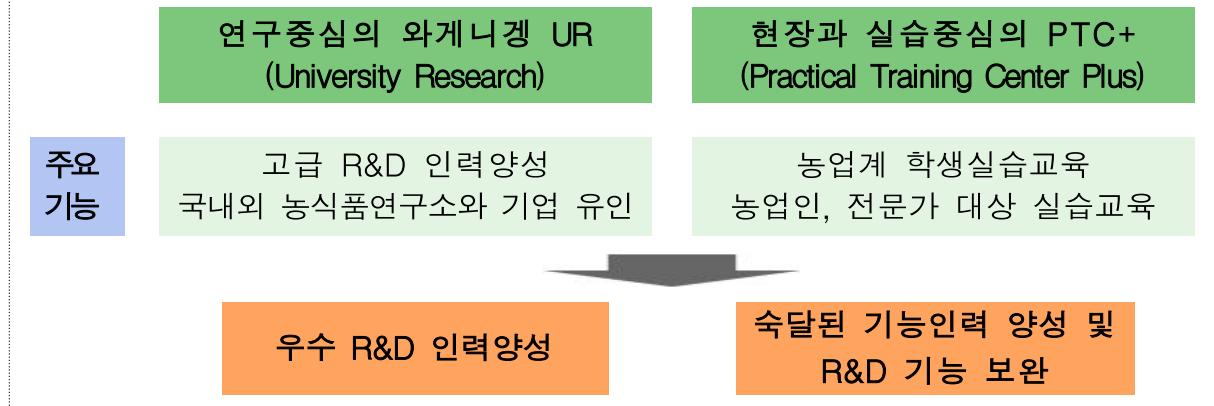
- ◆ 식품학과의 인턴·연수, 식품 공동 R&D 등을 통한 고급 인력공급
 - 지역 특성화고와 특성화대학을 통한 기능인력 적기 공급

가. 현 황

- 식품클러스터는 생산공간(산업단지), 생산주체(기업), 생산자·R&D(인력)를 기본요소로 발전, 우수한 인력확보가 중요
 - (고급R&D) 3대 R&D 센터, 민간연구소 등에 고급 R&D 인재 필요
 - (생산인력)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된 기능 인력 필요
- 우수기능 인력과 R&D 인력 부족 현상 심화
 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전후로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고용상황은 수요창출 20천명, 전라북도 자체 공급가능 인력은 4천명으로 전망, 공급부족 예상
 -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약 2.3만명, 이중 기업이전에 따른 인력이전을 60% 수준으로 볼 경우 신규고용 인력은 약 9천여명 예상
 - 생산인력뿐만 아니라 식품 R&D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인력과 능력을 갖춘 경영(식품전문 마케팅·기획) 인력이 필요
- 인력 수급균형 유지를 위해 인력수급 정보 제공 필요
 - 인력 수요자 및 구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·인재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, 정보부족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최소화가 요구됨
- 해외는 현지 대학을 중심으로 필요 인력 공급
 - 푸드밸리의 경우, 와게닝겐 대학을 중심으로 한 R&D 인력공급
 -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·실습 중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

< 해외사례 >

* 네덜란드의 경우, 연구중심의 와게니겐 UR과 기능실습 중심의 PTC+를 통해 인력 공급



나.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□ 기업 · 대학 · 연구소 공동연구를 통해 고급 R&D 인력을 양성, 참여인력은 고용으로 연계

- 공동연구 참여 인력에게는 축적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기반으로 졸업이후 해당기업 채용시 우대, 연구장학금 지급



□ 식품학과 및 관련학과 학생의 입주기업·연구소 취업 강화

- 대학과 사전 MOU 체결 등을 통해 파일럿플랜트, 3대 R&D 센터 및 입주기업·연구소등에 인턴·연수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
 - 학점 인정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과 인턴·연수생 중 희망자는 취업기회 부여하고 산·학·연·관 커플링 사업 등 추진

- 대학생이 방학기간 중 식품기업과 연계된 현장 연수시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 중소기업 현장체험 추진
- 푸드시티내 발효대학 · 기능성식품대학, 디자인대학 등 기능대학 유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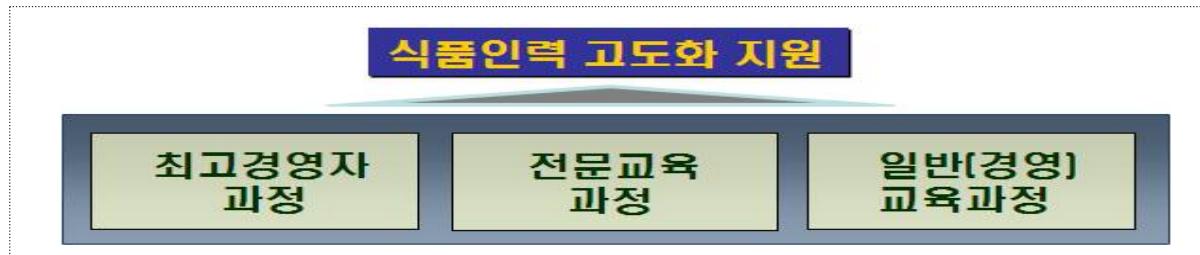
□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

- 식품 특성화고* 신설이나 인근 특성화고 교육 과정에 식품과정을 추가
 - * 특정분야의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 실시
 - * 독일은 수습제도를 활용,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은 공공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동안 폭스바겐, 지멘스 등의 기업에서 수습생으로 수련
 - 수습생이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고숙련 근로자로 대우받고 대기업에 취업
- 푸드시티 내에 ‘식품 폴리텍 대학’*을 유치, 식품 전문 기능인력 양성
 - *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학사제도 운영으로 기술인을 양성하는 종합기능전문학교
 - 필요시 한국농수산대학 제2캠퍼스로 식품대학 신설, 식품분야 기능 인력 양성 및 신기술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
- 식품산업의 특성을 감안, 주부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최상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은퇴자(50~65세) 활용 강화
 - 수요에 따라 직장내 또는 단지내 거점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
 - 본격적인 노령화시대에 대비, 은퇴자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
-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비, 외국인 전용 공동 아파트 등을 제공하고 퇴근 후 한국 식문화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

□ 식품기업 ‘최고경영자 과정’, 식품전문가 양성을 위한 ‘전문교육’, ‘일반교육’으로 구분하여 식품인력 고도화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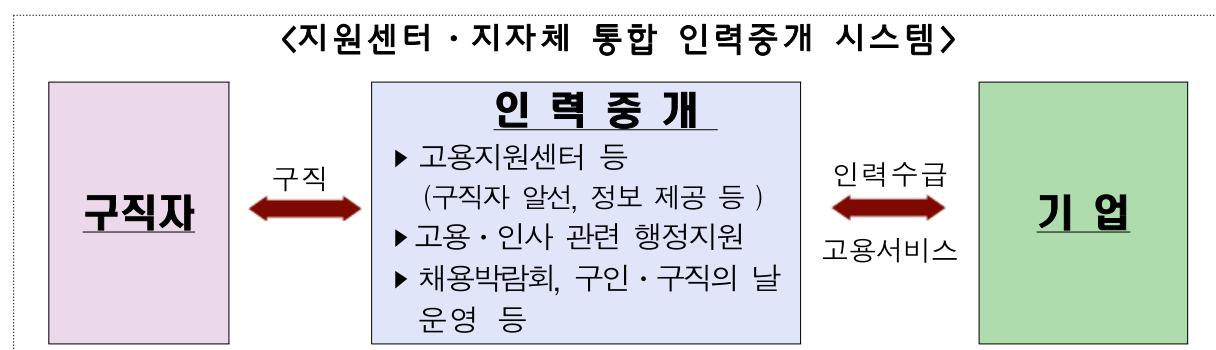
- (추진기구) ‘최고경영자 과정’, ‘전문교육’, ‘경영일반교육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 내 ‘(가칭)식품아카데미’ 운영

- (최고경영자) 최고경영자 협업, 경영 노하우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을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
- (전문교육) 식품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별 특화교육
 - 기능·생산인력, R&D 인력, 판매·지원 인력의 직무별 차별화된 교육
- (일반경영교육) 인사조직, 마케팅, 생산관리, 품질관리 등 교육



□ 인력증개 체계를 통한 기업 소요 인력 적기 공급 지원

- 지자체 · 지원센터에 ‘통합인력증개시스템’을 구축, 인력정보 적기 제공
 -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등과 함께 식품 인력풀 구성, 채용박람회, 구인구직 만남의 날, 상설 채용관 운영 등을 통해 구직자 알선



-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전담팀 및 인재정보 DB 구축 · 운영
 - 3대 R&D센터 등에는 해외우수인력*을 선진국 수준(30%)으로 유치 계획
 - * 인력 수준의 중요성을 감안, 선진국 수준의 임금, 외국인 전용 타운, 게스트 하우스 등

다. 기타사항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되, 타 식품기업도 희망 기업에 대해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

라. 추진일정

구 분	'12~'13	'14~'15	'16~
사업추진 계획수립			
사업 본격추진			

마. 기대효과

- 전국 식품학과 졸업생 등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의 차질 없는 공급에 기여
 - 기능인력, R&D 인력, 사무인력 등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·공급
- '식품아카데미' 운영으로 식품기업의 고급·전문인력 양성
-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·공급으로 푸드폴리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바. 투자계획

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반영 : 46억 원

- 식품아카데미 운영, 인력증개시스템 구축·운영, 우수인력 유지 등 지원
- ※ 추가 소요액 : 24.7억 원(추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반영)

② 식품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

- ◆ 푸드폴리스 주거래 은행 조기 선정, 입주기업 금융지원 강화
 - 중소식품기업의 자금·마케팅·컨설팅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 지원

가. 현황

- 푸드폴리스 중소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지원 체계 필요
 - 영세한 중소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선순환적인 자금조달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
- 마케팅 및 브랜드 파워 영향력 증대로 종합 마케팅 기능 강화 필요
 - 식품수출을 위한 상품개발, 마케팅, 유통전략 및 해외진출에 대한 종합적인 마케팅 및 수출지원 체제 필요
- 중소 식품기업은 전문화·대형화·국제화 등에 대응력 취약
 - 우리식품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국내 중소 식품업체는 자금·마케팅 능력 부족 등으로 대응력은 취약

나.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- '주거래 은행'과 '(가칭) 푸드폴리스 기금' 운영으로 입주기업 금융지원 강화
 - 네덜란드 라보뱅크^{*}와 같은 기능을 하는 입주기업 주거래 은행(1~2개) 선정
 - * 네덜란드는 농업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식품기업 금융지원
 - 신속한 자금지원 및 재무컨설팅 등 입주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금융지원 체제 구축
 - 지자체 중심의 '(가칭) 푸드폴리스 기금'을 조성, '12~'13년 조기 투자 결정 기업에 대해 부지 매입비, 건축비 등을 차등 지원에 활용

- 창의적 첨단식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, 해외우수 인력 유치 활성화 지원 등에 우선 활용
 - ‘농식품 모태펀드’ 자금 등을 활용한 푸드폴리스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, 입주기업의 신제품개발, 해외진출 등 경영활동 지원
- 세제, 재정지원 등으로 입주기업 부담 완화
- (국세*) 법인·소득세 5년간 100%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
 - *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시 해당
 - (지방세) 취득·등록세 100% 면제, 재산세 5년간 100% 면제
 - 지자체(전북·익산)에서 투자보조금, 고용·교육보조금, 근로자 정착 보조금 등 재정 지원
-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외국기업 지원 (50년간 임대로 감면 등)
- 중소기업 신제품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
- 입주 기업의 품질관리와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푸드폴리스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과 기업 간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
 -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등 마케팅* 지원을 위해, 지원센터와 입주기업 합동으로 ‘(가칭)푸드폴리스 제품 홍보·마케팅 사업단’ 운영
- * TV홈쇼핑 ‘중소기업 우수상품전’, 대기업 등과의 제휴마케팅 등
-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홍보(박람회 참가 등) 지원
 -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한 입주기업의 해외진출, 해외 M&A 등 지원

□ 입주기업 음부즈만제도 운영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원

- 규제개선 등 기업 요구사항,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지원센터내 '기업 음부즈만 담당제' 운영
- 중소 식품기업이 취약한 인사·조직, 재무,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지원

□ '(가칭)푸드폴리스 식품기업 혁신대상'을 신설, 기업혁신 촉진

- 기업 혁신·경쟁촉진 차원에서 매년 5개분야*에 대한 우수 기업 선발, 푸드폴리스 Day주간에 포상

* ① 신기술 개발 ② 스타제품 개발 ③ 해외진출 ④ 농어업 성장견인 ⑤ 기업간 협력

다. 기타사항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되, 타 식품기업도 희망 기업에 대해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

라. 추진일정

구 분	< 구축 단계 >		
	'12~13	'14~15	'16~
사업추진 계획수립			
• 주거래 은행 선정			
• 푸드폴리스 기금조성			
사업 본격 추진			

마.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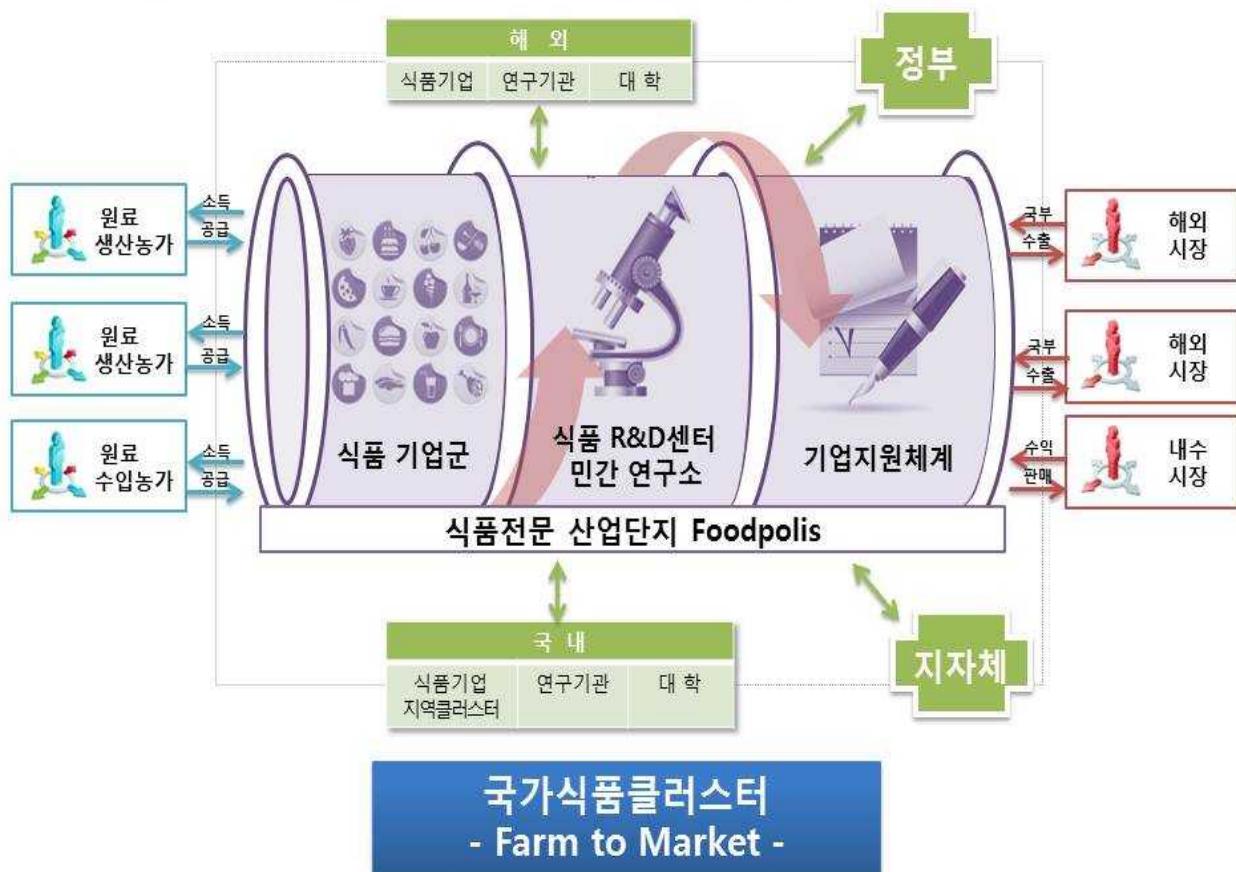
- 기술·경영·마케팅 관련 컨설팅, 자금지원·조달 강화를 통해 중소 기업의 중견·대기업으로 성장을 촉진
 - 중소 식품기업의 역량강화로 신제품 개발 촉진 및 수출 증대 도모
- 주거래 은행을 통한 식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세계 일류 식품기업 성장에 기여

바. 투자계획

□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반영 : 112.5억 원

- 입주기업 자금·마케팅 지원, 식품기업 혁신 대상 운영 등

<참고> 국가식품클러스터 통합시너지 창출구조



6. 투자유치 및 홍보

① 투자유치 계획

◆ '15년까지 식품기업 150개*, 민간 식품연구소 10개 유치

* 선도(앵커)기업 15개, 중기업 85개, 신기술융합 중소기업 50개

가. 투자유치 여건 분석

① 국내·외 식품기업 여건

□ 국내 여건

○ 매출액 규모별 현황을 보면(100대 식품기업, '09년)

-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 3,000억원이상인 기업은 40여개
- 중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 300억원이상 3천억원 미만 기업은 60여개
- 특히, 매출액 1조원 이상의 리딩기업은 15개(CJ, 농심, 삼양, 롯데 등)

○ 종업원 수 5인미만 업체가 84.5%, 매출액 100억원미만 업체가 77.3%로 매우 영세('09. 통계청)한 수준



□ 해외기업 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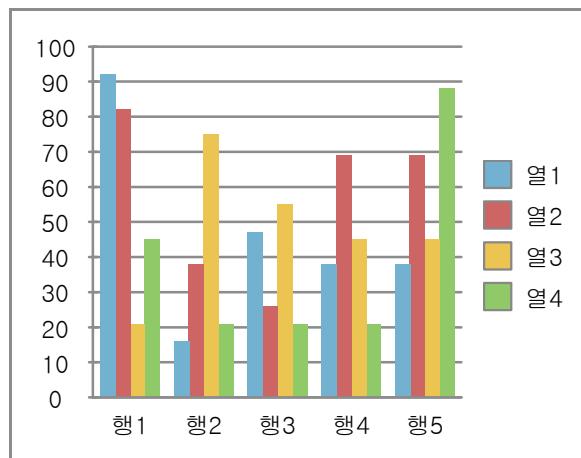
○ 글로벌 앵커 식품기업은 120여개* 수준

* 포브스지 선정('10년) 2,000개 기업에 속한 기업으로 Nestle 26위(1,120억\$), 유니레버 103위(593억\$), CJ 가 1,714위(83억\$) 등

○ 식품부문 세계 120여개 기업을 대륙별로 보면 유럽지역 35개, 미주지역 49개, 호주/아시아 지역에 36개 업체가 분포('10년)

<글로벌기업 매출액 규모>

업체명		매출액 (억달러)	국가
1	네슬레	1,120	스위스
2	테스코	796	영국
3	유니레버	593	네덜란드
4	펩시코	578	미국
5	크래프트	492	미국
6	안호이저 부시	368	벨기에
7	코카콜라	351	미국
8	필립모리스	272	미국
9	맥도날드	241	미국
10	브리티시토바코	232	영국
107	CJ	83	한국



포브스지('10년)

○ 네슬레, 유니레버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해외진출이 활발

- 네슬레 120개국, 유니레버 180개국, 다른 72개국에 진출

② 우리나라 투자유치 여건

□ 인근에 큰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양호한 지리적 여건

○ 세계 식품시장은 2020년까지 6.4조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, 이 중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이 40% 차지 전망(IGD '05자료)

* 세계 식품시장 중심이 아시아·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중

○ 비행거리 2~3시간 이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60여개가 있고, 중국 등 15억 인구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위치

-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화물처리능력 세계 2위, 유럽 북미와 함께 3대 물류 교역권으로 급부상하는 등 물류 강국

□ 개방화된 금융·무역 여건 및 세계 3위의 경제영토 확보

- 개방화된 금융 시스템을 보유, 자유로운 투자·금융거래 선진화
- FTA 등 국경 없는 글로벌 무역환경 구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
 - 칠레, 인도, EU 등 FTA체결·발효 45개국, 추진 중 12개국

구 분	국가수	현 황
발효·타결	45	· EU, 미국, 칠레, 인도, 싱가포르, 폐루 등
협상 진행중	12	· 호주, 캐나다, 멕시코, 콜롬비아, 뉴질랜드 등
협상 준비중	24	· 이스라엘, 중국, 일본, 인도네시아 등

* '11.12월 현재

〈 FTA 추진 현황 〉



□ 인재·IT-BT기술 기반 등 비즈니스 환경 우수

- 우수한 고급인력, IT 기술, 선진 수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보유
 - 대졸 학력자 비율 OECD 국가중 1위(58%)
- 통신·인터넷 보급률 세계 최고 수준
 -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OECD 34개국 중 1위(89.8%)
 - 한국 ICT(정보통신기술) 세계 1위(일본 13위, 미국 17위)

□ 항공·항만 등 양호한 교통·물류 인프라 구축

- 항만·공항·철도·고속도로의 중심지역인 교통의 요지

- 호남고속도로 5분, 서해안고속도로 20분이내에 접근
- 호남고속철도 완공('14년) 이후 서울 66분, 대전 18분, 광주 25분 소요



□ 강력한 R&D 기반 구축

-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등 3대 R&D센터를 설립, 기업의 부족한 R&D를 전폭적으로 지원
- 인근 혁신도시의 국책 연구단지(20분 거리)와 네트워크 구축

□ 정부와 지자체 주도 식품클러스터 조성

-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식품산업단지로서 높은 추진 의지
 - 전북·익산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프로그램 마련
- 조세감면, 재정·금융 지원,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
나. 투자 수요 분석

① 투자 발생원인과 투자 유형

<국내식품기업>

- 신상품 개발에 따른 신규확장, 노후시설 이전, 자금부담에 따른 지방이전 등에 따라 투자요인 발생
- (대기업) 신제품 런칭에 따른 공장신축,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신축, 재무구조 개선이나 도시개발 등에 따른 이전 수요
- (중기업) 주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도시개발 등에 따른 이전 신축
- (소기업) 초기 자금부족 등에 따른 임대형 공장 입주 수요
- 대기업 투자유치는 그 자체 뿐만아니라 유관시설 유입 유발효과 큼

<해외 식품기업>

- 동북아 시장진출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, 라이센싱·생산시설 신축, Hidden Champion 기업의 합작투자 등에 투자수요 발생
- (다국적기업) 대상국가 시장공략 또는 권역별 거점 마련을 위해 합작* 또는 단독 투자 * 다논-LG 생활건강과 요거트 유통 제휴
- (중견기업) 대상국가 진출을 위한 OEM 계약, 라이센싱 계약·가공수출을 위한 신축을 통한 투자

<식품연구소>

- 선도식품기업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수요, 식품기업 집적화로 연구 수요 증가에 따른 민간·공공연구소 이전·신설 등
 - 민간연구소의 경우 입주 기업에 대한 R&D 수요창출 가능

② 투자유치 유형별 요구사항(니즈) 분석

- 투자 발생 요인을 토대로 투자유치 대상을 유형화 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음
 - 대기업의 신규상품 런칭기회 유치, 중견기업 노후시설의 전환유치,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 유치, 해외 기업의 생산·수출기지 유치, 연구소 유치 등
- 투자유치 대상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5~6가지로 요약가능
 - 가장 큰 니즈는 투자비용의 부담완화로 볼 수 있고, 안정적 인력 확보, 인프라 비용절감, 저렴한 유tility 사용, 안정적 원료 확보, 정주시설 확보 등이라고 할 수 있음

다. 투자유치 목표 및 전략

목표

글로벌 식품기업 유치로 경쟁력 있는 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

- ▷ 식품기업 150개 유치 ▷ 민간 식품연구소 10개 유치
 - * 글로벌 앵커기업 15개, 중견기업 85개, 중소기업 50개 유치

유치
전략

단계별 투자유치

- 기반형성기
 - DB구축, 네트워크 홍보
- 산업단지 구축기
 - IR, 초청 · 방문 등
- 산업단지 완성기
 - 인 · 허가 One-Stop

맞춤형 투자유치

- 권역별 맞춤형
 - 국내/해외권역
- 규모별 맞춤형
 - 선도/중/소기업
- 업종별 맞춤형
 - 핵심전략/일반/연관

차별화된 인센티브

- 세제감면
 - 국세/지방세
- 재정/금융지원
 - 교육 · 고용 · 투자 등
- 입주부담 경감 및 경영 지원 s/w

< 참고 >

외국인 투자유치 의의 및 단계별 전략

□ 외국인 투자(FDI: Foreign Direct Investment)

-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, 공장설립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 수립, 시장 확대 등의 목적으로 하는 투자

□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

- (기본전략) 투자유치는 장기간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고려하여 투자 마케팅 전개

전략	투자유치활동	세부 실행전략
이미지 빌딩 (여건 조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투자유치기관이 잠재 투자가가 향후 투자계획 시 투자입지로서 호의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홍보하는 활동▪ 주로 투자유치 초기에 활발히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투자박람회 참가, 심포지엄 개최▪ 특정 산업 미디어에 광고▪ 금융미디어에 광고▪ 일반적 투자기회 정보 세미나 개최



투자창출 활동 (투자유치 전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투자대상물 거래알선, 투자가 접촉을 통한 투자의사 확인 등 실제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▪ 유치국을 투자 친화적 입지로 인식하고 투자 가능성이 있는 그룹의 특정 투자자들을 겨냥해 시작해야 효과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우편 및 텔레마케팅 캠페인▪ 투자 홍보 강화▪ 투자촉진 사절단 파견▪ 투자기회 설명회 개최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

투자서비스 활동 (투자 완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투자 결정▪ 투자 결정 시 필요한 서비스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투자 상담 서비스 제공▪ 투자 지원 및 허가의 신속한 처리▪ 사후 투자 서비스 제공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라. 세부 추진계획

① 단계별 투자유치

□ 산업단지 조성단계와 연계한 3단계로 투자유치 추진

- 1단계('09~'12, 산단기반 형성기) : 인지도 제고 등 투자유치 여건 조성
 - 투자에이전시를 통한 운영 국내외 식품기업 DB 구축 및 투자 관심도 분석
 - 우수 식품박람회 참가, 투자유치관 운영, 투자설명회(IR) 개최와 국제심포지엄, 포럼개최 등을 통한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
- 2단계('13~'14, 산업단지 조성기) : 선도기업 투자 MOU체결 등 투자 창출
 - 타깃기업 선정·유치, 1:1 맞춤형 투자유치 및 투자 디시전메이킹 위주의 고위급 중심 투자유치로 MOU 체결
- 3단계('15년이후, 산업단지 완성기) : 투자기업 사후관리
 - 투자유치 기업의 공장설립 인·허가 One-Stop 서비스 제공 등

〈 단계별 투자유치 전략 〉

구 분	1단계('09~'12) 〈산업단지 기반형성기〉	2단계('13~'14) 〈산업단지 조성기〉	3단계('15~) 〈산업단지 완성기〉
개발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마스터플랜 수립▪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▪ 산업단지 지정 · 착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산업단지 조성공사▪ 용지분양 실시▪ 기업지원시설(H/W) 착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지원시설(H/W) 운영▪ 입주기업 착공▪ 기업 활성화 초기
투자유치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투자여건조성 단계 (이미지 빌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투자유치 본격화 단계 (투자 창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관리 단계 (투자 실행)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국내 외 기업 70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선도기업 5개(국내 3)▪ 국내 외 연구소 4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국내 외 기업 80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선도기업 10개(국내 6)▪ 국내 외 연구소 6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공장 건축허가 등 투자One-Stop 서비스제공
투자유치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간접적인 투자유치 활동▪ 식품박람회참가, IR 개최▪ 투자유치 대상 DB구축▪ 투자에이전사자문단 운영▪ 투자 네트워크 형성▪ 교류협력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직접적인 투자유치 강화▪ 타깃기업 위주 유치활동▪ 전략 · 의향기업 방문 및 초청 강화▪ 1:1 맞춤형 투자유치▪ 투자유치 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One-Stop 서비스제공▪ 투자기업 맞춤형 관리▪ 투자전담 매니저제 운영

② 맞춤형 투자유치

□ 권역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

- 투자유치 권역을 국내권역과 해외권역으로 나누고, 국내권역은 수도권과 지방권역으로 나누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
- (국내권역) 지원센터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투자유치 전개
 - 수도권은 지방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중점을 두고 지방권역 소재 기업은 R&D센터 등과의 집적화 이점을 강조
- (해외권역) 투자에이전시와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권역별 투자 유치 설명회(IR) 개최, 박람회 참가 등 투자유치 추진
 - 유럽 및 미주권역 : 동북아 식품시장 급성장, 전초기지 역할 강조
 - 일본·중국권역 : 선진화된 식품안전시스템, 자연재해 안전지대 부각
 - 기타 아시아 : 식품안전 프리미엄 강조 및 한류 적극 활용

〈 권역별 맞춤형 투자유치 〉

구분	국내(120개)		해외(30개)			
	수도권	지방	유럽권	미주권	일본/중국	기타(아시아)
주요 지역	서울, 경기	지방	프랑스, 독일, 영국, 네덜란드, 벨기에, 이탈리아, 스페인	미국, 캐나다, 중남미, 호주	일본, 중국, 홍콩, 대만	태국, 말레이지아, 인도, 아랍, 중앙아시아
기업 유치	70개	50개	10개	8개	8개	4개
주요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• 관심부문 적극홍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R&D 센터 등과의 집적화 이점 부각 • 공장이전 확대 유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북아 식품시장 급성장 강조 • 기진출한 글로벌 식품기업을 통한 유치 • 한국 투자여건(물류, 교육, IT) 선진국 수준의 식품관련 시스템 부각 • FTA체결 잇점 강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품기업 이로 사항 분석 • 자연재해 안전지대 부각 • 선진화된 식품안전시스템 강조 • FTA체결 국가로서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 부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의 문화 특징을 이해 • 동북아 식품 시장의 성장성 부각 • 식품안전 프리미엄 강조 • 한류활용 	

□ 규모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

- 식품기업을 규모별 선도기업군과 중견기업, 소기업(벤처기업) 등 3개군과 식품연구소 등으로 구분하여 투자유치
 -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투자 조기 결정자에 대해서는 **분양 인센티브(부지매입·건축비)** 제공
- (선도기업) 정부와 지원센터가 전담, 선도적 투자결정자 우대
 - 상당한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해당 업종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대표적 기업 투자유치에 집중
- (중견기업) 전북도·익산시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투자유치
 - 국내·외에 자본과 기술력이 탄탄한 우량 중견 식품기업 유치에 초점
 - 중견기업은 이전공장 첨단화에 따른 부담 완화·비용절감 방안 제공
- (소기업, 벤처기업) 창의적인 성장 잠재력 높은 기업유치
 - 신기술 융합기업 등 중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
 - 3대 R&D센터와 유틸리티 활용에 인센티브 제공, 시장개척 지원
- (식품연구소) 국내·외 유수의 식품연구소를 유치
 - 민간식품 연구소 부지는 **임대·분양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는 점** 강조
 - 3대 R&D센터와 인근의 국책연구기관등과 협업 연구가 용이

〈 규모별 맞춤형 투자유치 〉

구 분	식 품 기 업			식품연구소
	선도(앵커) 기업	중견기업	중소·벤처기업	
분 류	매출 3천억원이상 (선진국 기업 5천억원)	매출 3백 억원 ~ 3천 억원 미만	매출 3백억원미만 (선진국 기업 5백억원)	식품분야 연구
기업유치 목표	15개	85개	50개/임대형 50개	10개
핵심 인센티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기 투자자 분양 인센티브 제공 · 원형지 공급 · 종합보세구역 운영 · 해외 M&A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세제 감면 및 자금지원 · 3대 R&D우선지원 · 정착자금 지원 · 정주여건 조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금, 컨설팅지원 · 임대형 공장·창업 보육센터 운영 · 파일럿 플랜트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대, 분양 선택가능 · 3대 R&D센터 등과 협업체계
투자유치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관심 선도 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· 부지위치 선정, 조성·자율성 강조 · 수출 등 무역거점 기지화 · 교육·문화여건을 갖춘 최상의 정주 여건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사업 로드맵 제시 · 노후시설 이전에 의한 공장 첨단화 부담완화 · 3대 R&D센터 등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 · 교육·문화여건을 갖춘 최상의 정주 여건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대형공장 운영 등 다양한 인프라 제공 · 전시회,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판로개척 · 교육·문화여건을 갖춘 최상의 정주 여건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주 부담경감 · 3대 R&D 센터와 협력사업 전개 · 교육·문화여건을 갖춘 최상의 정주 여건 제공

□ 식품 업종별 투자유치 계획

-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업종군을 전략식품군, 일반식품군, 연관산업군으로 구분,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추진
 - (핵심전략식품군) 기능성·바이오 및 융합기술식품, 발효식품, 첨가물 등 소재식품 및 식재료·신선편이식품, 쌀 가공식품, 글로벌 기호식품 등 5대 업종
 - **발효**(김치·간장·고추장, 막걸리 등), 인삼, 쌀가공식품 등 종주국 위치에 있는 3대 분야 식품기업과 기능성·바이오, 소재·편이식품기업 우선 유치
 - (일반식품군) 과자·제빵류, 일반음료·주류, 기타 곡물 가공류, 육가공·유가공, 수산류 등
 - (연관산업군) 포장·용기류, 유통·물류, 식품기계류 등
- 식품신기술·고부가가치화, 시장성장성, 농어업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투자유치 차등화 추진
 - 핵심전략식품군, 외국인투자, 물류기업 등에 대해서는 분양, 3대 R&D센터·유틸리티 이용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

〈 업종별 맞춤형 투자유치 〉

구 분	전략식품군/ 외국인투자기업	일반식품군	연관산업군/물류·유통
분 야	기능성·바이오식품 등 융합기술 식품, 전통발효식품, 천연첨가물 등 소재식품 및 식재료·신선편이식품, 쌀가공식품류, 글로벌 기호식품	과자·제빵류, 음료·주류, 곡물가공류, 육가공·유가공류, 수산류 등	포장·용기류, 물류, 식품기계류
기업유치 목표(15개)	50개/30개	50개	15개/5개
핵심 인센티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양 인센티브, 3대 R&D 센터·유틸리티 이용, · S/W 프로그램 이용시 우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대형공장 이용 · 파일럿 플랜트 이용 · 자금, 컨설팅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식품패키징센터를 통한 연구개발 지원
투자유치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능성식품에 관심있는 외국기업과의 공동투자 · 전략식품단지 조성·부지·건축비 인센티브 부각 ·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럽 가공식품분야 전문기업과 연계방안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대 R&D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과 연계방안 제공

③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 제공

③-1. 세제 및 자금지원

□ 국세 및 지방세

- (국세)법인·소득세 5년간 100%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

- (지방세)취득세 100% 면제, 재산세 5년간 100% 면제

※ 수도권과 밀접 제권역에서 밀접 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
□ 재정지원

- 투자보조금

〈전라북도〉

- 대규모 투자기업(투자금액* 1,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300명이상)
 - 전라북도 외 소재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% 범위 내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 - * 토지매입비, 건축비, 시설장비 구입비, 기반시설 설치비 등

- 일반 투자기업

- 투자금액의 10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% 범위 내에서 이전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

〈익산시〉

- 대규모 투자기업(투자금액 1,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0명이상)
 - 투자금액 5% 범위 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- 일반 투자기업
 - 투자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5%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

○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

〈전라북도〉

- 고용보조금 :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, 기업당 5억원
 - 교육훈련 보조금 : 1인당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6개월 범위,
기업당 5억원
- * 전북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 인원

〈익산시〉

- 1인당 월 60만원이하 6개월 범위, 기업당 2억원
- * 익산시 주민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규모가 20인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

○ 근로자 정착 보조금(전라북도)

-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이전시 지원
- 전북 이주 후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10만원, 최대 3년간

○ 물류센터 건립지원 보조금(익산시)

- 투자금액 300억원 초과금액의 5%범위 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

○ 중소기업 지원

〈전라북도〉

- 시설·운전자금(건축비, 장비구입 등) 융자 지원

〈중소기업진흥공단〉

- 중소기업 구조개선·창업자금(공장건축, 시설구입 등) 융자 지원

〈익산시〉

- 국내·외 시장개척, 전시회·박람회 등 참가비, 마케팅 활용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
〈 투자보조금 등 자금지원 현황 〉

구 분		주 요 내 용
투 자 보조금	대규모 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북도 : 투자금액 5%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 원 · 익산시 : 투자금액 5%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 원
	일반 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북도 : 투자금액 10억 원 초과 5%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 · 익산시 : 투자금액 10억 원 초과 5%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
고 용 보조금	전북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인당 월 50만원, 6개월 범위, 기업당 5억 원
	익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인당 월 60만원, 6개월 범위, 기업당 2억 원
교육훈련 보조금	전북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인당 10만원 ~ 50만원 까지 6개월 범위, 기업당 5억 원
	익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인당 월 60만원, 6개월 범위, 기업당 2억 원
근로자 정착 보조금	전북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3년간
물류센터 건립지원	익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금액 300억 원 초과금액의 5% 범위에서 기업당 10억 원
중소기업 지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설.운전자금, 창업자금 융자 · 시장개척, 박람회 참가비, 마케팅 활동비 등

③-1-1.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

□ 외국인 투자지역(FIZ) 지정

○ 조세 감면

- 국세(법인·소득세) : 3년간 100%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
- 지방세(취득·등록·재산세) : 15년간 100% 면제

*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시

○ 관세면제 :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3년간 면제

○ 토지임대료 감면(근거 : 외국인투자 촉진법)

- 50년간 부지임대료 감면(50~100%), 재연장 가능(최장 100년)

※ 외국인 투자지역은 국가(지식경제부, 75%), 지자체(25%)가 분담하여 매입 후 임대

감면비율	내 용
100%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
75%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· SOC 확충,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지경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
50%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

□ 보조금 지원(산업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중복지원 안됨)

○ 산업입지보조금

-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(분양가) 보다 인하된 임대료(분양가)로 임대(분양)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(분양가) 지원
 - (전북도) 임대료(분양가) 차액은 정상가액의 50%내에서 지원
 - (익산시) 임대료 차액은 정상가액의 50%내,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액의 30% 내에서 지원

○ 투자보조금

- (전북도)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5%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 지원
- (익산시)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%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 지원

□ 기타 지원

- 고용 보조금, 교육훈련, 보조금 등은 국내기업과 같은 수준지원
- 컨설팅 비용지원(익산시)
 -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%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
- 교육시설·주택구입 등 지원(전북도·익산시)
 - 외국인학교 설립 및 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
- 지자체와 지원센터에서 의료기관 외국인 전담 통역풀제를 운영하는 등 치료서비스 애로사항 해소 지원

〈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현황 〉

구 분		주 요 내 용
국 세	법인 · 소득세	〈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시〉 · 3년간 100%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
지방세	취득·등록·재산세	〈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시〉 · 15년간 100% 면제
	관세 면제	〈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시〉 ·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되는 자본재 면제
	교통유발 부담금 면제	〈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시〉 ·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시
	토지 무상임대	〈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시〉 · 50년간 부지임대(50~100% 임대료감면), 연장 가능
산업입지 보조금	전북도	· 임대료 및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액의 50% 내에서 지원
	익산시	· 임대료 차액은 정상가의 50% 내에서 지원 ·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의 30% 내에서 지원
투자 보조금	전북도	· 미화 1천만달러 이상 투자, 투자금액 5% 범위, 최고 50억원
	익산시	· 10억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5%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
기 타 사 항		·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(월 50만원) · 컨설팅비용(투자금액 1%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) · 교육시설, 주택구입(예산범위내)

③-2 금융 지원

□ '(가칭)푸드폴리스기금*' (투자유치, 기업운영, 해외진출 지원) 조성·운영

- 입주기업 부지 매입비, 시설 건축비 등에 대해 기업규모별·고용인원, 전략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, 장기·저리융자 지원 등에 활용

*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성하되, 재원확충을 위해 지자체·정부자금(출연), 푸드폴리스 수익금, 민간자금(주거래 금융기관 기부금 등) 등을 재원으로 활용

- 푸드폴리스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정, 금융권과 연계하여 금리차이를 보전(이차보전)하는 방안도 병행

□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 활용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푸드폴리스 전용 펀드사를 운영, 기업의 신기술 개발, 해외진출 등 경영활성화 지원

□ 금융기관의 금융파이낸싱 지원

- 푸드폴리스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정, 기업의 이전·신설과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저리자금 등 종합금융지원 체계 구축

③-3. 정책적 인센티브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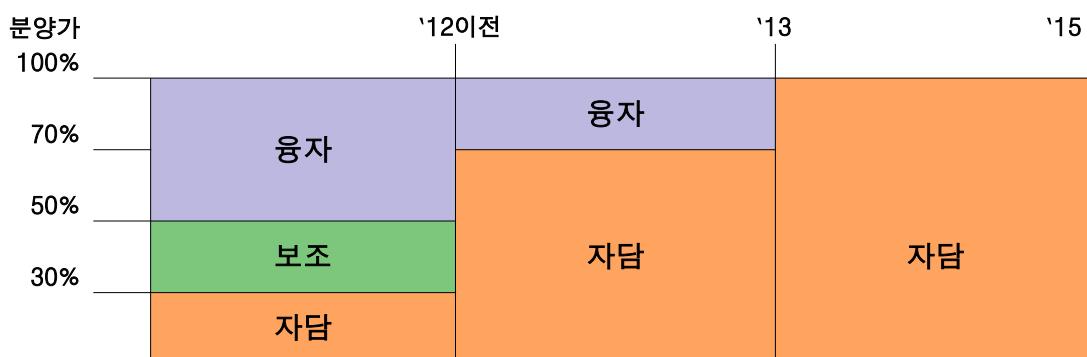
□ 원형지 공급 추진

- 원형지 공급을 원하는 기업 등에 부지지형, 조성공사 여건 등을 감안,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원형지 공급
- 기업지원시설 지구(6대 H/W시설) 원형지 개발 방안 강구

□ 조기 MOU 투자기업('12~'13)에 대한 분양 인센티브 제공

- 조기 입주 투자 MOU체결 기업에게는 '푸드폴리스 기금', 주거래 은행 등을 활용하여 부지 매입비·시설 건축비 등에 인센티브 부여
 - 지급 시기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(착공시)에 지급

<MOU체결 시기별 인센티브>



* 용자는 저리 또는 무이자로, 보조(전략기업 중심)는 재정이 가능한 범위내(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)

- 조기 MOU체결 기업에 계획 권역내 입지위치 선택권 부여

□ 세관절차 간소화

- 종합보세구역 지정

- 수입물품, 환전물품,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후 가공하여 수출시 관세면제, 통관절차 간소화, 물류의 신속화 지원
- 외국인 투자유치, 수출증대 촉진

- 세관·검역·검사 통합사무소 설치

- 농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, 관세청, aT 등으로 구성된 통합사무소를 설치, 수출관련 통관 및 검역 검사 등의 업무 일괄·신속처리

□ 투자 절차 One-Stop 서비스 지원

○ 전담 PM(Project Manager) 제도 운영

- 투자자별 전담 매니저 배치(지원센터·지자체)로 투자유치 및 각종 법률지원, 입주에 관계되는 인·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**one-stop으로 제공**하여 입주기업 불편 해소
- 입주기업 1:1담당제 실시, 입주·운영시까지 제반행정 지원

○ 입주기업의 경영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등 종합 지원

□ 식품산업단지 내 특화단지 지정 및 차별화

○ 핵심전략식품 단지

- 푸드폴리스 기금 및 주거래 은행을 활용, 부지매입비·건축비 저리융자 지원, 일부 임대단지 운영
- 3대 R&D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

○ 민간 식품연구소(R&D ZONE)는 임대단지로 운영하고, 건축비 지원

- 지자체에서 임대단지로 운영, 입주 연구기관은 임대·분양 선택 가능
- 푸드폴리스 기금, 주거래은행 등을 활용, 연구소 건축자금 저리 융자 지원
-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등 3대 R&D센터와 연계하여 연구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, 공동 R&D 우선 적용

○ '(가칭)한민족 식품단지' 지정·운영

- 남북 합작 식품기업, 재외동포 식품기업 등 한민족 식품단지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을 한민족 공동체 주력산업으로 육성
- 푸드폴리스 기금, 주거래 은행 등을 활용, 부지매입·생산시설 건축 지원 및 근로자 고용·교육·주거 등에 편의 제공

○ 지역식품(향토식품) 특화단지

- 지역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지역식품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식품 특화단지를 조성, 3대 R&D센터 등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

○ '식품 이노베이션(R&D·가공) 시스템' 구축 등 식품 R&D 협력화

- 주거래은행 등을 활용한 입주 기업 R&D자금 저리 융자, 푸드폴리스 기금 등을 활용 식품분야 R&D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선진국의 '이노베이션 박스*' 개념 도입 등 검토
 - * 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소득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인세 5%의 세율만 납부하는 네덜란드의 R&D 우대 조세 제도
- 국내외 최고급 연구인력 확보, 식품특화 교육기관 설치에 인센티브 제공 등
 - * 세계적으로 저명한 원로급 박사 등의 유치를 위해, 선진국 수준의 처우와 주거·문화를 비롯한 연구 생활환경 조성

③-4. 6대 HW 시설 및 10대 SW프로그램 우선 활용

- ◆ 6대 HW 시설 등 이용시 수수료 할인, 지원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
 - ◆ 10대 S/W 프로그램*을 통해 입주기업 기술개발·시장개척 지원
 - * 정부 등의 지원과 민간자금(주거래 은행 등) 등 활용

□ 6대 HW시설 우선 이용 및 비용감면

- 식품기능성 평가센터, 식품품질안전센터, 식품패키지센터 등 3대 R&D센터 및 파일럿플랜트, 임대형 공장, 지원센터 등 3대 비즈니스 지원센터 우선이용 혜택 및 이용 수수료 할인 적용

□ 10대 SW프로그램 우선지원 대상

- (고부가R&D) 기능성 식품개발, 고부가 상품화 R&D지원, 네트워크 구축
- (수출지원) 가공무역 기지 구축, 수출시장 개척, 식품 물류체계 구축
- (상생지원) 농업과의 연계발전, K-Food 글로벌화 및 6차 산업화
- (역량강화) 인력양성·공급, 기업경영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

③-5. 최상의 인프라(주거·교육·문화·교통) 여건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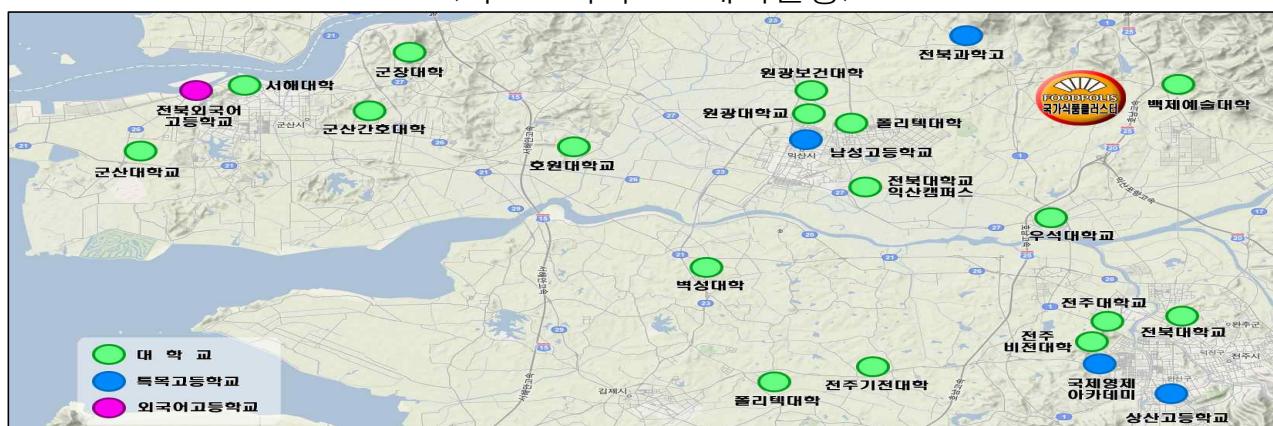
주거 여건

- 식품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분양 등 최상의 주거환경 제공 중심기능을 할 명품 주거단지(푸드시티)를 조성(지자체)
 - 푸드폴리스 기금을 활용, 입주근로자에 저리융자 제공
 - 외국인의 다양한 체류형태 및 선호도를 고려, 타운하우스·임대 주거단지(장기체류) 게스트하우스(단기체류) 하온타운 등 거점

□ 교육 여전

- 배후도시 내 유아에서 초·중·고등학교(외고·특목고 등)까지 글로벌 교육 및 인재육성이 가능한 학교 등 교육시설 조성
 - 외국인 입주기업 및 연구소의 수요 고려와 국제적 교육수준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하여 초·중·고 외국인학교 유치
 - 영어마을·식품 특성화고 특성화 대학을 유치,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
 - 푸드폴리스 기금 등을 활용, 근로자 자녀의 외국인학교, 영어마을 교육비 지원
 - 서울의 유수대학과 MOU를 체결, 지역특례 입센티브 활용

〈외고·특목고·대학현황〉



□ 의료 · 문화 환경

- 외국인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글로벌 우수 병원 유치, 다만, 적정인구 도달시까지 익산시와 인근 지역(전주, 완주 등) 병원 활용
 - 필요시 외국어 지원 등 맞춤형 의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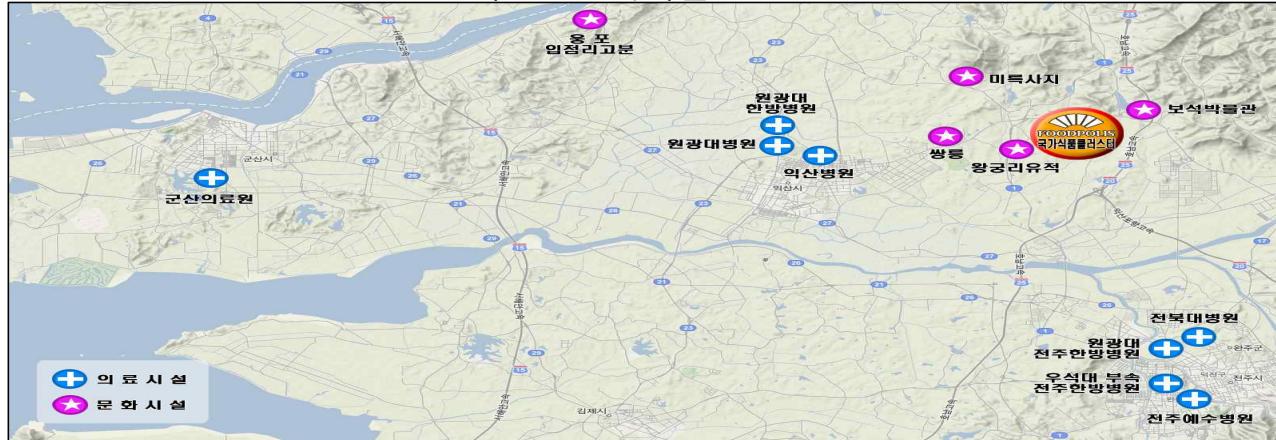
○ 익산의 풍부한 백제문화 유적과 함께 배후도시에 식품문화 인프라로서 ‘식품문화테마복합단지’ 조성

- 세계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거리* 조성

* 백제 서동거리, 신라 · 고구려마을, 미래첨단 음식타운 등

- 글로벌 테마파크, 글로벌 음식거리, 전통식품 박물관, 식품 전시·체험관, 8도 식품테마관 등을 유치하여 4계절 전시·체험 가능

<의료 · 문화시설 분포도>



□ 교통 여건

-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에서 3분내, 서해안고속도로에서 20분내 접근
- ‘14년 호남고속철도(KTX) 익산역 개통 서울 1시간으로 수도권과 원활한 교통망 형성
- 공항(군산공항 50분)과 항만(군산항 50분)과 인접, 물류체계 원활



마. 투자유치 추진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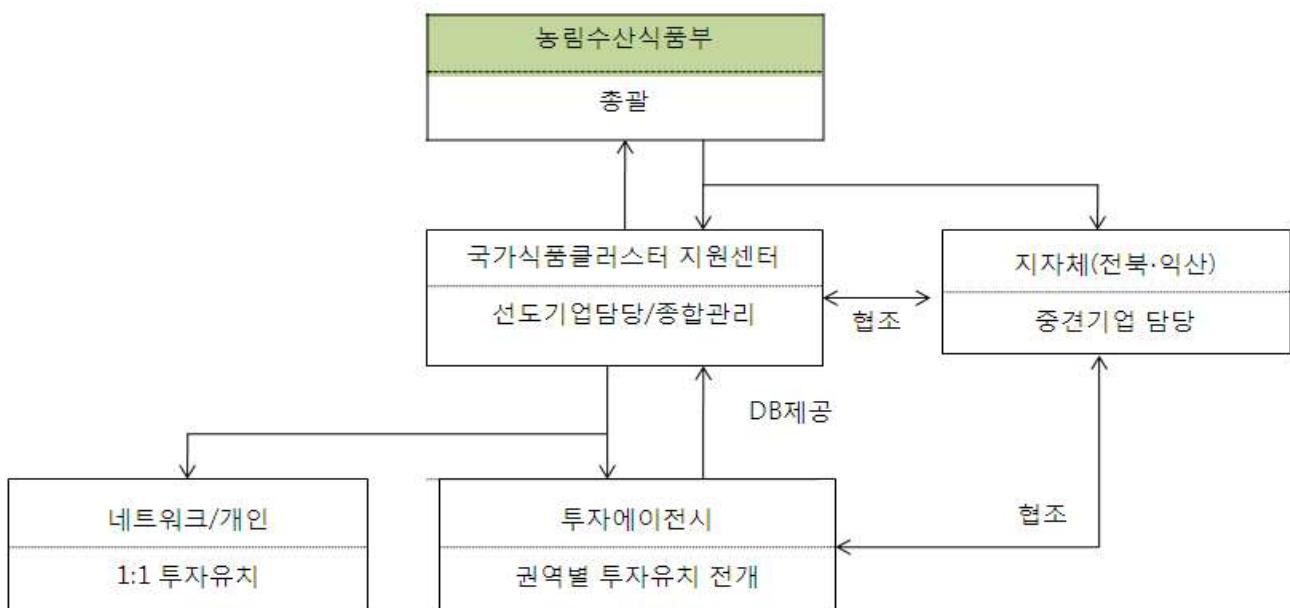
□ 투자유치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
-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투자유치를 총괄, 지자체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투자에이전시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전개
- 투자유치 추진 주체인 농식품부·지원센터·지자체(전북도·익산시)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
 - 지원센터는 투자유치 종합관리 기관으로서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증진 및 투자에이전시의 성공적인 투자유치활동 지원·관리

□ 각 기관간 투자유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투자유치 추진

- 선도기업 : 농식품부·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
- 중기업 : 지자체(전북도·익산시), 지원센터(협조)
 - 투자에이전시는 해외 식품기업 등을 중점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담

<투자유치 종합관리 체계도>



② 투자유치 홍보 활동

가. 홍보 의의

□ 홍보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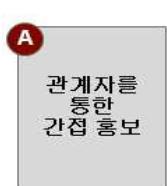
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기업·연구소 유치와 브랜드 가치 제고
 - R&D 중심·미래첨단형 식품산업단지에 대한 인지도 제고
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환경 조성
 -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중심으로서 최상의 투자처라는 메시지 전달

□ 홍보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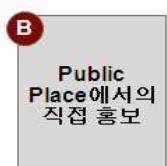
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, 목표, 3대 R&D 핵심시설(H/W), 기업 지원사업(S/W) 등 홍보
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주요 인센티브 홍보
 - 세제지원, 보조금 지원, 투자보조금, 고용보조금·교육훈련 보조금, 산업입지 보조금, 입주부담경감, 경영활성화지원 등
 - 주거·교육·문화·교통 등 최상의 인프라 제공 등

□ 홍보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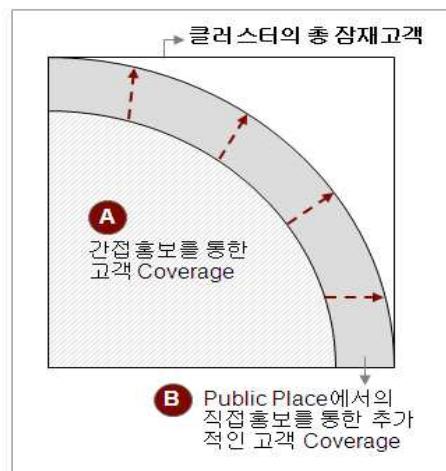
- 관련 업체 및 투자결정 업체 관계자를 통해 간접적인 입소문 마케팅(Buzz Marketing)과 직접 언론홍보·광고,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을 시행



- 관련 업체 관계자에 의한 입소문 마케팅
- 특히, 클러스터 입주를 결정한 업체 관계자를 통한 간접 홍보는 Boom Up 효과가 훨씬 높음
- 이들의 다양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, 업계 내 다수의 기업/연구소에 대한 홍보 가능



- 언론에의 홍보·광고,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능동적으로 국내외 업계에 접근
-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있던 고객 이외에도, 기대치 높은 해외 기업, 연구소들의 관심 유인 및 유치 가능



나. 홍보 기본방향 및 목표

□ 기본 방향

○ 국가식품클러스터(푸드폴리스)의 성공적 기반구축에 기여

- R&D 중심 식품산업단지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 제고
- 동북아 식품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최상의 투자처라는 메시지 전달

○ 식품산업단지 조성 단계별·타깃별 맞춤형 홍보 추진

- 조성단계('12~'14년)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, 식품기업 투자유치 홍보에 집중
- 운영단계('15년~)는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강화

□ 목표와 전략

목표

국가식품클러스터(푸드폴리스)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화

- 1단계(조성단계) : 인지도 제고를 통한 투자유치
- 2단계(운영단계) : 푸드폴리스 생산 제품 마케팅 강화

추진 전략

단계별
홍보 추진

- 단지조성 단계
 -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
 - 단지운영 단계
 - 입주기업과 협력 홍보

대상별
맞춤형 홍보

- 국내·외 투자자
 - 식품기업 및 연구소
 - 일반 국민
 - 오피니언 리더 및 국민 대중

유관기관과
공동 및 협력 홍보

- 해외유관기관
 - EUCKK, JETRO, FORCA 등
- 정부·기관간 협력홍보
 - KOTRA, 한국관광공사, 해외문화홍보원 등

추진 체계

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

- FOODPOLIS 홍보자문단 운영

□ 추진 전략

<단계별 홍보 추진>

- 식품산업단지 조성단계에 따라 시의적절한 홍보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추진
 - (단지 조성단계) 푸드폴리스 인지도 제고와 투자유치 환경 조성
 - (단지 운영단계) 입주기업제품 마케팅 지원 및 푸드폴리스 글로벌화 추진

< 단계별 중점 홍보 사항 >

구 분	단지조성 단계('11년~'14년)	단지운영 단계('15년~)
사업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종합계획(MP) 확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- 산업단지 조성 · 분양▪ 기업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산업단지 조성 완료▪ 입주기업 공장건축▪ 식품산업단지 가동 및 활성화
홍보중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푸드폴리스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인지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▪ 투자유치에 우호적 환경 조성 통해 푸드폴리스 성공 기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입주기업과 협력홍보를 통한 기업제품 마케팅 지원▪ 국제적 행사 등을 통한 푸드 폴리스 글로벌화

<대상별 맞춤형 홍보>

- 국내·외 투자자(식품기업·연구소)

- 국내외 식품기업·연구기관·식품관련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가 식품클러스터 장점 부각, FOODPOLIS 투자인센티브 집중 소개
- 박람회 참가, 투자설명회(IR)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소개

○ 오피니언 리더

- 국내·외 식품기업CEO, 전문가, 학계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필요성, 조성방향, 효과 등을 중점 홍보
- 심포지엄, 세미나, 간담회, 언론 기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 시너지 확대

○ 일반국민

- 특집다큐, CF, 옥외광고 및 언론사 연계 이벤트와 온·오프라인 참여 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확산

<유관기관과 공동 및 협력 홍보>

- KOTRA(Invest Korea), 한국관광공사 등 해외지사가 있는 기관들과 협조를 통한 푸드폴리스 홍보 및 인지도 향상 추진
 - EUCCK(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), JETRO(일본무역진흥회), FORCA(한국외국기업협회)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
- 문화체육관광부, 외교통상부 등과 홍보·투자유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·외 홍보기관 최대 활용
 -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간행물* 활용 홍보 추진

* 『Fact About Korea』, 『Welcome Korea』, 『Cultural Korea』, 『Food Korea』 등
- 경제자유구역청 등 투자유치 관련 수요가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공동홍보·투자유치 활동 등 검토

다. 홍보 세부추진 계획

① 단지조성 단계 홍보계획('12년 ~ '14년)

- ◆ 국내·외 식품기업·연구소 대상 인지도 제고 및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
- ◆ 국민·오피니언리더 대상 홍보를 강화, 투자유치 우호적 환경 조성

식품기업·연구소 대상 홍보

□ 국내·외 투자유치 로드쇼를 통해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

- 대규모 식품박람회 기간을 활용, 세계 각지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설명회(IR), 언론보도자료 작성·배포 및 특집기사 활용 홍보
 - 투자 유치관 운영을 통해 박람회 내방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
- FOODPOLIS에 관심 높은 현지 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상세한 소개와 홍보

□ 해외 투자유망기업 현지 초청 활동

- 투자의향기업 및 투자 타깃기업 등을 FOODPOLIS 현장으로 초청하여 현장 위주의 사이트투어 추진
 - 산업단지 부지 조성 착공 이후 단계 활용에 유용

□ 국내 주한외국인 Communities 활용 홍보

- 상호 정보교류 및 FOODPOLIS를 적극 홍보하고 투자유망기업 발굴
 - 미국, 영국, 캐나다, 유럽연합, 호주, 일본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 등 주한 상공회의소 및 식품관련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투자설명

□ 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참석

- 해외 현지 또는 국내에서 심포지엄, 컨퍼런스, 포럼 등 개최 및 참석
 - 동북아 식품시장의 중요성과 푸드폴리스의 역할을 강조, 경쟁력 있는 해외식품기업의 투자분위기 조성
- 국내외 식품관련 석학, 기업대표 등의 초청을 통해 푸드폴리스 관심 유발

□ 다이렉트 홍보로 식품기업 CEO에 투자정보 전달

- 국내·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CEO에 FOODPOLIS 소개 홍보패키지 제작 발송 통해 직접적인 홍보 강화
 - 홍보브로슈어, 홍보동영상 DVD, 레터, 명함 등 하나의 내용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홍보패키지 발송
- SNS 활용 식품기업과 CEO에 대한 홍보 메시지 전달
 - 트위터, 페이스북 등 SNS 사용 인구 확산에 따라 CEO 및 기업대표 SNS를 파악하여 FOODPOLIS 홍보메시지 전달

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·오피니언리더 홍보

□ TV·라디오 등 방송·언론 매체

- 국내·외 유력 방송 매체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개 다큐제작 방영,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관심 유발
 - 네덜란드, 덴마크 등 해외 주요 식품클러스터 성공사례·효과 소개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개발 방향 및 비전 조명
- CF, 티저광고, 인기 드라마·프로그램 제작 협찬 등
 - 출연·협찬, 인기 드라마PPL 등을 통한 푸드폴리스 노출
- 국내·외 유수 언론사 현지 초청 프로그램 등 운영
 - 식품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 이후 국내 언론사와 해외 유수 클러스터 조성부지 현지시찰을 통해 FOODPOLIS에 대한 이해 제고
- 국내·외 홍보매체 특집 및 인터뷰 추진
 - 국내 : 정책방송 K-TV, Weekly "공감" 등
 - 해외 : BBC, 디스커버리, 아리랑TV, 뉴스위크, 이코노미스트, 푸드테크놀러지, 영문월간 "Korea", 해외문화홍보원 정기간행물 등
- 언론 인터뷰, 특집, 기고 등 추진
 - 지상파 및 케이블TV,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, 경제지, 각종 주·월간지, 식품업계지 대상 인터뷰, 대담, 칼럼 기고 등을 통해 홍보

온·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대국민 접점 확대

□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소개 홈페이지 구축·운영 및 포털, SNS 활용

- 홈페이지를 사이버홍보관으로 구축, 푸드폴리스 투자유치 온라인 종합홍보 기능 강화
 - 오프라인 홍보물을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
 - * 브로슈어, 소식지, TV다큐 및 CF영상, 라디오 광고, 신문광고, 기고, 인터뷰 등
- 포털과 콘텐츠 제휴 통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
 - 네이버, 다음, 야후 등 포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콘텐츠 제휴 추진
-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 블로그 및 SNS 운영, 실시간 정책정보 제공
 - 푸드폴리스 블로그 기자단·온라인 서포터즈 등 네티즌과 함께하는 홍보

□ 소식지, 옥외광고, 국민 참여 이벤트 활용 홍보

- 소식지 발간·배포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공감대 확산
 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단계별 추진상황 소개,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, 투자유치 활동 등 소개
- 옥외광고·지하철 광고를 통한 푸드폴리스 인지도 확대
 - 도심 전광판, 고속도로 및 공항 전광판 등
 - 지하철 스크린도어, PDP, 와이드칼라, 램핑광고, 인쇄물 광고 등
- 국민 참여·체험형 이벤트로 푸드폴리스에 대한 긍정적 환경 조성
 - 대학생 홍보아이디어 경진대회 통해 관심 유발 및 홍보콘텐츠 다양화
 - 참여형 콘텐츠 공모전으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
 - 홍보대사, 홍보자문단 운영 및 언론사 연계 이벤트 추진
 - * ex) 대학생 식품유니버시아드 + 언론사

홍보 효과 제고 및 평가

□ 국가식품클러스터 브랜드 홍보 강화

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비전을 상징하는 글로벌 네임 및 CI 해외등록, 슬로건 등 통합브랜드 활용 홍보
 -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 기관, 유관 민간 기관·단체, 주요 언론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
- 국가식품클러스터 CI제작·활용



* Food(식품) + polis(도시) ⇨ ‘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식품도시’

□ 푸드폴리스 홍보효과 평가 추진

-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주기적 외부 전문가·기업대상 평가 실시
- 국민 대상 평가 등 피드백 체계 강화
 - 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 실시
 - 조사결과를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홍보 방향 설정시 활용

<참고>

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단계별 홍보 방향

구분	'12년	'13년	'14년
홍보 환경 (산업단지 조성절차)	푸드폴리스 조성절차 착수 - 산업단지 승인 - 종합계획안 발표	푸드폴리스 조성공사 착공 - 단지조성 - H/W시설착공 - 원형지 개발	푸드폴리스 조성공사 계속 - 산단 분양 - 일부 공장 착공
중점방향	푸드폴리스 인지도 제고, 투자유치 공감대 - 주요 컨텐츠, 인센티브 등	푸드폴리스 투자유치 공감대 형성 및 브랜드 확산 - 조성공사 착공, H/W건축 등 강조	조성된 공사 현장 알리기 - 미리 보는 완성된 모습 등
Key 메시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 식품의 역사성 ⇒ 식품역사 5천년, 미래 5천년 ▶ 푸드폴리스 강점 ⇒ R&D·신기술·수출천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푸드폴리스 강점 ▶ 투자선택의 마지막 기회 ⇒ 투자하는 기업이 주인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분양혜택, 입주계약 ⇒ 행동하는 투자
* 슬로건 : ① Good Chance, Good Choice ② Best Choice, Best Future			
중점수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홍보패키지 발송(기관장 친필 서한, 홍보영상 DVD, 브로셔, 리플렛, 명함 등) ▶ TV, 라디오, 신문 등 언론매체 광고 ▶ 방송·신문 특집기사, 다큐멘터리, 교양·오락 프로그램 등 활용 ▶ 온라인홍보(푸드폴리스 블로그 및 SNS 운영, 서포터즈 활용, 포털광고 등) ▶ 오프라인 광고(야립광고, 공항, 지하철, 버스 등) 		

② 단지운영 단계 홍보계획('15년 ~)

- ◆ 국내·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 입주기업제품 마케팅 강화
- ◆ 글로벌 식품 축제 등 4계절 식품행사 개최, 푸드폴리스 글로벌화

입주 기업 제품 마케팅 지원 등 협력·공동 홍보 추진

□ 입주업체의 신제품, 신기술개발 등 언론 홍보지원 통해 경쟁력 제고

- 입주업체의 보도자료 작성 가이드, 기자 초청, 취재지원 및 편의 제공
 - 기업의 성공사례·우수사례·제품 관련 스토리텔링 발굴 등 홍보 지원
- 사보 제작·발송 통해 입주업체간 교류 및 식품업계 홍보
 - 입주업체의 소식, 산업동향 등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보에 게재
- 다양한 매체를 통한 토탈 홍보 서비스 지원
 - 잡지·인터넷·방송 등 광고·홍보매체 발굴 및 종합적인 홍보 지원
- 입주 기업 및 제품의 홍보물 제작·활용에 대한 가이드
 - 홍보동영상(한국어·외국어), 상품정보 카달로그, PPT 제작 등 지원

□ 입주 기업 해외 시장 개척 지원

- 국내·외 주요 행사를 통한 입주 기업 및 제품 홍보·마케팅 지원
 - 식품 박람회·전시회 등에 홍보부스 설치·운영 및 홍보물 지원, 언론보도 지원, 수출상담 지원 등
- 해외 마케팅 전문기관 및 인력 정보 지원
 -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활동, 거래선 및 판로확보, 인력정보, 마케팅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

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경쟁력 강화

□ 언론 브리핑 활성화

- 지원센터, R&D센터, 입주기업 신제품·신기술 정기·또는 수시 발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
 - 간담회 또는 현장취재를 적극 지원하여 푸드폴리스 이해를 촉진

□ 언론 인터뷰 및 기고 강화

- 수시 발생되는 이슈, 진척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 인터뷰 실시
- 사업의 취지, 배경, 효과 및 참여기업과 제품의 특징 발굴 기고

□ 포털·언론사 제휴를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

- 지식IN 전문가답변, 해피빈 기부캠페인, 입주기업 상품 지식쇼핑 사이버장터 입점 등 포털과의 제휴 사업 추진
- 포털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급 제휴 추진

국가식품클러스터(푸드폴리스) 운영 소개 홍보

□ 국내·외 유력 방송채널 “국가식품클러스터 프로그램” 연차적 방영

- 국내 지상파, 케이블 및 해외 내셔널지오그래픽, 디스커버리 채널 등
 - <푸드폴리스 인사이드>, <체험 삶의 현장>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큐특집 및 체험형 방송 연례 추진
 - 사업장별 핵심 사업내용과 식품을 방송소재에 적합하게 기획하여 방송을 통한 이미지 제고
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을 알리는 홍보영상물, 광고, 기념품 등 제작
 - 국내·외 주요행사, TV·전광판 등 영상매체, 신문·잡지 등 인쇄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확산

4계절 365일 글로벌 식품행사·축제 개최 등 참여형 홍보 활성화

□ 국제 식품축제 개최

- 푸드폴리스 입주기업 식품에 대한 국내·외 관심 증대 및 제품 우수성 발굴·홍보 효과
- 푸드폴리스 식품 체험행사를 통한 제품 이미지 확립 및 글로벌 브랜드 조성에 기여
 - * 해외사례 : 독일 옥토버페스트, 프랑스 생 뱅상 와인축제 등
- 1차산업(원료생산), 2차산업(제품생산), 3차산업(유통·관광 등)을 결합한 **6차산업화** 추진

□ 4계절 테마 식품 축제 개최

- 우리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체험 및 참여 확대
 - 4계절별로 계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참여형 축제 연중 개최
- 대중들의 관심유발·파급효과 큰 이벤트 개최
 - 음식만들기 체험, 시음·시식 행사, 도보순례, 어린이 사생대회, 스턴트 이벤트, 입주기업 참여 day(자사 제품 홍보) 등
- 축제형 이벤트를 통해 K-Food 브 주도
 - 세계식품어워즈, 대장금요리경연대회, 국제식품엑스포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생산품 홍보 및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

□ 입주기업 제조시설 체험·참여형 프로그램 운영

- 대중친화적 식품기업 생산시설 견학 → 체험 → 시음·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식품 관련 전시관(또는 박물관) 설치 통해 관광 상품화
- 입주기업 제품 생산 체험행사 연중 순환 개최
 - ex) 초콜렛 생산 과정을 체험시설 내에 배치 등

7. 식품산업단지 확대(중장기 발전방안) 방안

① 식품산업단지 확장 방향

◆ 1기(期) 식품산업단지 조성 후 수요에 따라 조성, 302만m² 규모

□ 목적

- 1기 식품산업단지와 시너지효과 제고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‘세계 식품시장의 중심’으로서 위상 강화

□ 위치

- 2기 식품산업단지는 1단계 식품산업단지와의 연계 발전성 등을 감안, 1기 산업단지 부지 하단부(남측)에 조성

□ 조성기간 : 1기 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

- 1기 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수요, 식품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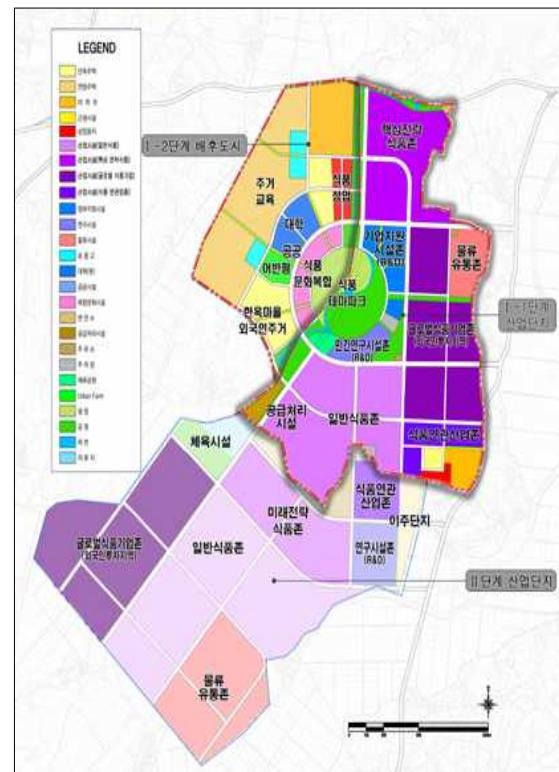
□ 사업면적 : 302만m²(92만평)

□ 사업비(단지 조성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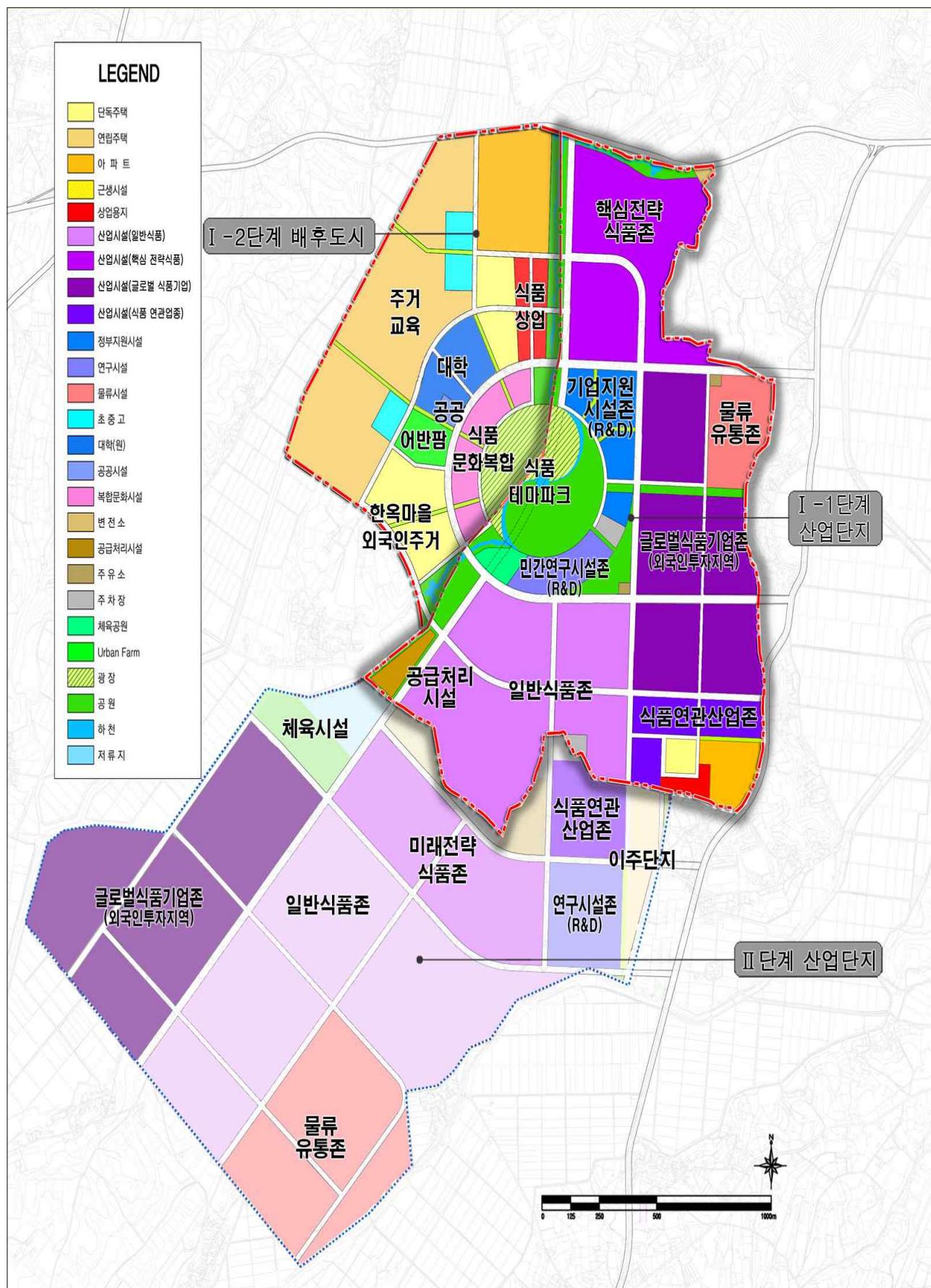
- 약 3,160억 원(사업시행자 부담)
* 1기 산업단지 조성비용 적용시

□ 산업단지 구성(안)

- 시설용지 : 산업시설용지, 연구·대학용지, 공공시설용지(도로, 녹지, 오·폐수처리시설/폐기물처리시설), 물류용지 등 산업시설용지 위주
- 1기 산업단지 운영시 추가 필요시설 보완



□ 총괄 토지이용구상(안)



□ 총괄 토지이용계획표

구 분	면적 (천 m ²)	비율 (%)	1단계			확장단계		비고
			소계	산업 단지	배후 도시	소계	산업 단지	
총 계	6,603	100.0	3,583	2,322	1,261	3,020	3,020	
산업 용지	소계	4,066	61.6	1,665	1,665	-	2,401	2,401
	산업시설	3,801	57.6	1,517	1,517	-	2,284	2,284
	연구시설	171	2.6	54	54	-	117	117
	지원시설	94	1.4	94	94	-	-	3대 R&D센터, 지원센터, 임대형공장, 파일럿플랜트,
주거 용지	소계	822	12.4	785	66	710	46	46
	단독주택	169	2.6	169	16	153	-	-
	연립주택	305	4.6	259	-	259	46	46
	아파트	339	5.1	339	50	289	-	-
	근생시설	9	0.1	9	-	9	-	-
상업 용지	상업시설	79	1.2	55	14	41	24	24
교육 용지	소계	110	1.7	110	-	110	-	-
	초 중 고	46	0.7	46	-	46	-	초1,중1,고1개소
	대학(원)	64	1.0	64	-	64	-	식품관련대학(원)
문화 공공 용지	소계	73	1.1	73	-	73	-	-
	복합 문화시설	73	1.1	73	-	73	-	식품전시체험관, 글로벌식품관, 식품박물관, 식품문화관, 8도향토식품관
기타 시설 용지	소계	1,453	22.1	904	577	327	549	549
	공공시설	10	0.2	10	-	10	-	-
	주유소	15	0.2	4	4	-	11	11
	주차장	67	1.0	24	24	-	43	43
	도로	668	10.1	340	225	115	328	328
	녹지	82	1.2	70	40	30	12	12
	어반팜	33	0.5	33	-	33	-	-
	글 로 벌 테 마 파 크	소계	451	6.8	383	244	139	68
	테마파크	109	1.7	109	38	71	-	글로벌 테마공원 등
	공원	297	4.5	229	173	56	68	68
	하천	27	0.4	27	15	12	-	유수지, 하천 등
	체육공원	18	0.3	18	18	-	-	운동장, 미니콜프장 등
	변전소	24	0.4	3	3	-	21	21
	공급처리 시설	103	1.6	37	37	-	66	66
								오·폐수처리장, 저류지

□ 총괄 조감도(안)



② 입주기업 지원시설('18~) 확대 구축방향

- ◆ 확장시 도입시설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와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토
 - 여건에 따라 1기 산업단지 조성기간 중에도 유치 추진

가. 3대 식품 특성화 대학 유치(민자시설)

- ◆ 기능성·발효식품·패키징(디자인) 등 3대 분야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한 기능성식품대학·발효식품대학·식품디자인 대학 유치

□ 목적

- 바이오·기능성, 발효, 패키징·디자인 분야 미래 식품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
- 우수한 기술력 보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필요

□ 주요기능

- (기능성식품 대학) 특성화 전문대학 유치를 통해 기능성식품 표준화·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
- (발효식품 전문대학) 발효 관련 기초연구와 연구인력 양성
※ 발효공학은 식품, 첨가물, 의약, 에너지까지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학문임
- (식품디자인대학) 식품 디자인 개발 및 신제품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
 - 상품기획, 시장조사·분석, 프로토타입 제작, CMF적용 전략, 마케팅 계획

□ 기대효과

- 산업인력 수요에 맞는 전문인 양성지원으로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효과기대
-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를 선점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·발전시키는 기반 구축
- 특허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통한 상품 경쟁력 제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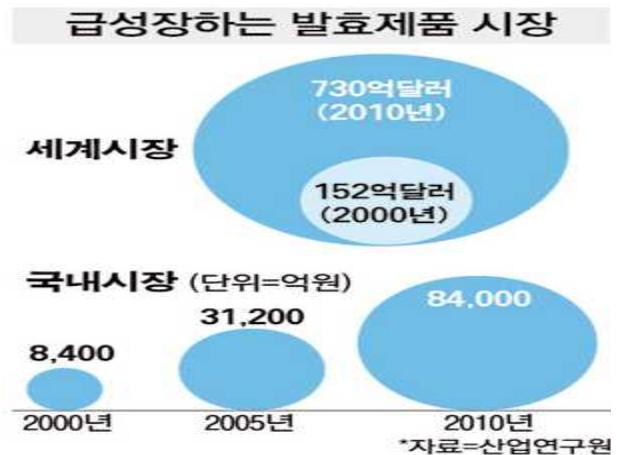
< 농산물 패키지 디자인 예 >

나. 글로벌 발효식품 연구소

- ◆ 전통 발효식품의 쟁크탱크로서 발효식품 세계 일류화 선도

□ 목 적

- 전통 발효식품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통해 우리 발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
 - * 발효산업은 식량, 에너지, 의약 등을 망라하는 국가 기간산업
 - ** 발효제품 시장 급성장 추세 : 152억 달러('00년) → 730억 달러('10년)



□ 주요 기능

- (기업 고부가 지원) 발효물질*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
 - * 1차 대사산물(아미노산, 핵산, 유기산 등), 2차대사산물(항생물질), 건강 소재(프로바이오틱스, 비타민 등) 등
- (R&D) 발효미생물의 체계적 관리*, 전통발효 식품의 과학화 · 현대화에 대한 연구, 전통식품의 우수성 연구 등
 - * 균주 분리 · 동정, 특성에 따른 분류, 산업적 기능성 확인 등
- (교육) 전통발효 식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

□ 기대 효과

- 전통발효 식품의 산업화 촉진 및 세계 발효식품 기술 선도
- 발효식품대학 유치와 함께 발효 식품산업의 新 메카로 도약



다. 글로벌 식생활·영양 및 소비자 연구소

◆ 식생활과 영양 및 소비 연구를 통한 우리 식품 글로벌화 기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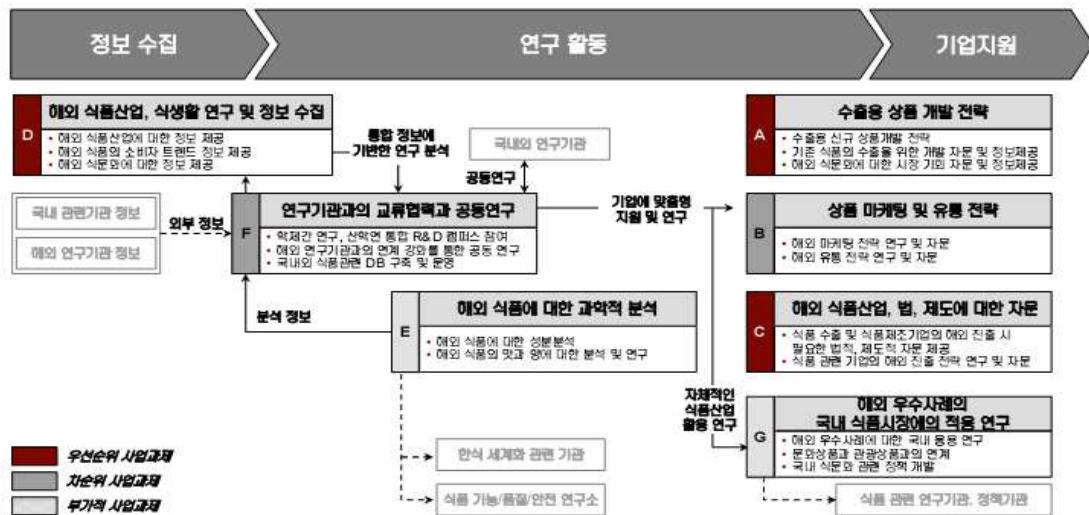
□ 목적

- 해외 대륙별, 국가별 식생활·음식·영양 연구 및 정보 수집·제공
- 식품기업의 해외 수출 및 진출 지원, 교류·협력 체계 구축

□ 주요기능

- (정보수집) 해외 식문화·식생활 트랜드·법·제도 등 조사·연구
- (R&D) 국제 연구기관과 공동연구, 대륙·국가별 식문화·영양 연구
 - 식품문화 수출을 위해 국내외식품의 맛·향·스타일 등 소비활동의 과학적 분석
- (기업지원) 해외 식품산업·법·제도 정보제공, 식품의 수출전략 수립 및 상품 마케팅·유통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

<주요 기능별 연관도>



□ 기대효과

- 국내외 식품·식생활·영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·분석, DB화,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문화 형성 및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에 기여
- 식품과 문화·관광이 융합된 식품문화 수출시대 대응력 제고

라. 식품기계 및 소재산업 연구소

- ◆ IT·BT 기술을 활용한 국산식품 기계의 국산화율 제고 및 수출산업화

□ 목적

- 첨단 식품기계 개발로 식품기계의 국산화 및 품질의 국제화에 기여
 - 식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식품기계의 선진국 의존도 심화에 대응, 국내 식품 소재·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

□ 주요기능

○ 식품기계분야 관련 중소기업

기술지원 업무

- 기업의 식품기계 현장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인력 문제 진단 및 기술지원
- 식품기계 유지보수 및 신기술 R&D를 통한 기술전파



○ 국산 식품기계의 글로벌화 달성

- 식품기계 품목별·시설 규모별 성능기준 가이드 라인 마련
- 우수기계 인증제 도입을 통한 국산기계 우수성 입증

○ 식품기계 기술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

- 식품기계 현장교육 및 식품기계박람회 등 국제세미나 개최

□ 기대효과

- 식품기계산업 기술개발,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애로해소 및 기술 경쟁력 상승으로 우수 기계 개발을 통한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유도

마. 글로벌 식품 디자인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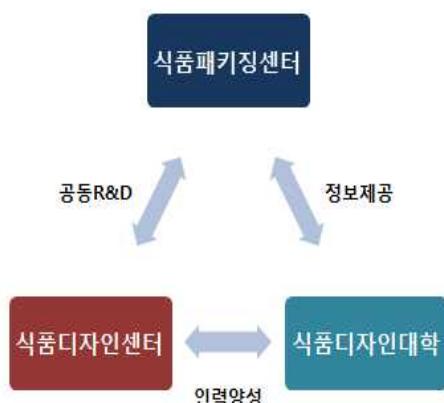
◆ 식품의 포장기술과 함께 식품디자인 선진국으로 도약

□ 목적

- 식품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
 - 국내 디자인시장 규모는 선진국^{*}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
 - * 미국(80조원), 일본(20조원), 한국(6.8조원), ('09기준)
 - 디자인 기초기술과 원천기술이 부족하고, 투자 및 정보 능력이 취약하여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이 낮은 수준

□ 주요기능

- 국내외 기업 식품디자인 컨설팅 및 R&D
 - 디자인 조사·분석, 전략개발, 아이덴티구축, 경영구축 및 R&D 확대
- 글로벌 식품디자인 네트워크 허브 구축
 - 국제교류·협력사업, 식품패키징센터, 식품디자인센터, 식품디자인 대학 간 교류협력 실시
 - 최신 산업동향 및 정보 DB구축
- 식품디자인 관련 전문교육 실시
 - 특성화 대학 유치(식품디자인대학)
 - 기업실무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실시



□ 기대효과

- 중소식품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 및 R&D, 교육 등을 통해 수출 시장에서의 판매 경쟁력 강화
- 글로벌 식품패키징·디자인 전문단지 구축으로 시너지효과 창출

바. 식품임상시험센터(민자시설)

- ◆ 식품의 인체영향 관련 전문연구기관설치로 기능성 식품 산업화 촉진

□ 목적

- 기능성식품 등의 인체 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전문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식품R&D 시너지 효과 제고
- * 의약품 임상시험센터는 구축이 활발(서울 6개소, 지방 6개소)하나 식품개발 관련 전문 임상시험센터는 1개소(전북대 기능성식품임상시험센터)에 불과

□ 주요 기능

- (기능성식품 임상시험 수탁) 건강기능식품, 전통식품 기능확인 및 효능검증을 평가하기 위한 인체시험 수행
- * 임상시험은 고비용 · 장기화 · 높은 실패 위험율로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
- (기능성식품 임상시험 자문) 임상시험 설계, 수행, 보고서 제출 등 제반업무 컨설팅
- (DB구축 · 제공) 임상학적 연구자료 DB 구축 및 제공 등

< 임상시험 절차 >



□ 기대 효과

- 국내 식품의 임상학적 우수성 규명 및 기능성 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
- 기능성식품 전문대학 유치와 함께 기능성식품 강국 실현



사. 글로벌 식품문화 비즈니스 컨벤션 센터(민자시설)

- ◆ 입주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지원을 위해 전시·회의·숙박 체제 구축

□ 목적

- 식품기업의 국제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 등 교류협력 활동과 숙박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 비즈니스 활동 지원
- 교류 및 비즈니스 필요업무를 일괄처리를 위한 사무환경 제공

□ 주요기능

- (컨벤션) 국제전시회·박람회 개최 등이 가능한 컨벤션 기능 제공

* 푸드시티의 컨벤션센터 후보지에 민자유치

전시

회의

숙박

One-stop 활동지원

- (사무환경) 식품기업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국제회의장 등 사무환경 제공

식품산업 경쟁력 강화

- 사업설명회 등 각종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사무실, 회의실, 세미나실 등 행사지원 및 동시통역장비, LCD프로젝트 등 최첨단 기자재 지원

- (숙박) 호텔등 식품문화관광, 박람회, 축제참가자 체류편의 제공

□ 기대효과

- 박람회, 전시회 등으로 관광객 유치 기여

* (예) 미국 나파밸리 연간 관광객 19천백만명 유치

- 다양한 식품 전시 컨벤션 국제행사 개최로 관광산업(6차) 발전 견인



아. 입주기업 복지문화센터(민관공동)

- ◆ 입주기관 종사자를 위한 최상의 문화·복지 공간 제공

□ 목적

- 입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·체육 시설 구축
 - 문화·복지·체육 활동이 가능한 복지문화 복합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입주민간 다양한 소모임(동호회)을 활성화

□ 주요기능

- (문화) 도서관 운영, 교양·학습강좌 개설, 문화공연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시설로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 수행
- (복지) 공동직장 보육시설, 방과후 교실 등 푸드폴리스 종사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
- (체육) 입주민의 심신단련, 체력증진을 위한 골프(실내), 헬스, 수영, 스쿼시, 요가, 축구, 배드민턴,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교실 운영

□ 기대효과

- 입주민의 다양한 문화·복지 니즈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
- 입주민의 푸드폴리스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강화하고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공동체 정신 함양에 기여



< 복지문화센터 전경 예(대덕특구) >

V.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

1.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

1.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

①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(안)

□ 10년간 투자계획('11년~'20년) : 5,535억 원

- (투자규모)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11년부터 10년간 산업단지 조성비 3,119억원, 시설(H/W)건축·운영비 1,588억원, 기업지원 사업비(S/W) 828억원 등 총 5,535억 원 투자
- (재원조달)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공성, 지역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·지자체·민간에서 조달
 - 중앙정부 1,371억원, 지자체 634억원, 민간 3,530억원

※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조성되는 배후도시(38만평) 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음

□ 주요분야별 투자 기준(예비타당성 결과 적용)

- 기업지원 **H/W시설구축(건축·장비·운영비)**
 - 장비도입비 : 국비100%, 건축·운영비 : 국비 50%, 지방비 50%
- 기업지원 **S/W 사업비**(연구개발 지원, 인력양성, 수출지원 등)
 - 국비 70%, 지방비 10%, 민간(자부담) 20% * 연구개발지원은 국비 80%, 지방비 0%
- 산업단지 조성비(토지보상, 부지조성 등) : 민간(LH) 100%

<참고 : 분야별 투자계획안>

(단위 : 억원)

구분	계	국비	지방비	민자
계	5,535	1,371	622	3,542
산업단지 조성(시행자)	3,119	-	-	3,119
기업지원 시설(H/W)	계	1,588	741	589
	건축	662	331	331
	장비	410	410	-
	운영	516	-	258
기업지원 프로그램(S/W)	828	630	33	165

※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('09. 11)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추후 설계·건축 등 사업추진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야간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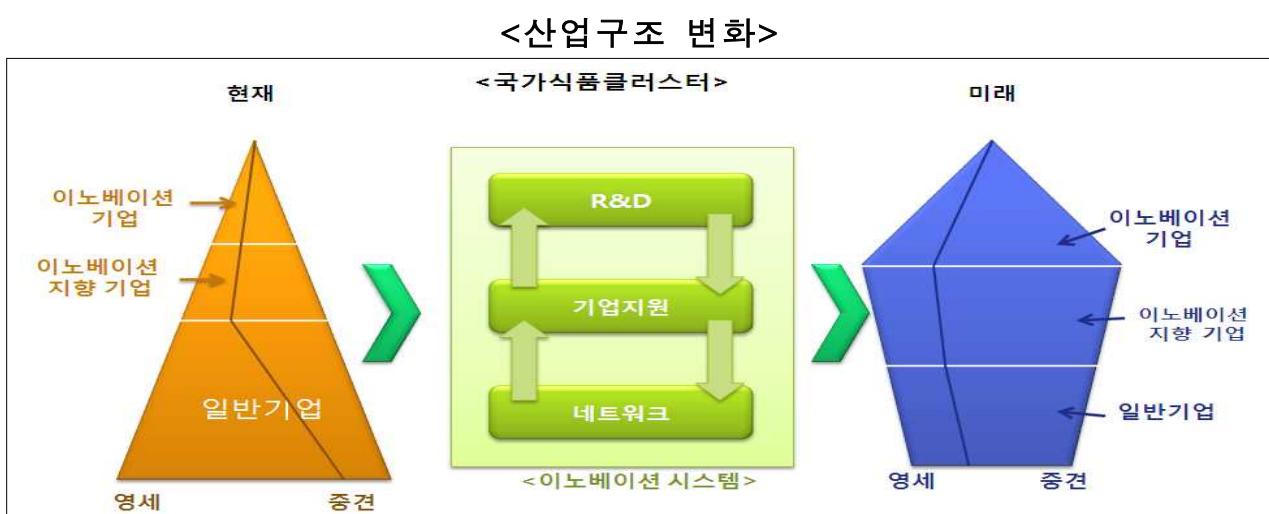
2. 기대효과

① 산업적 측면

가.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□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구조 고도화

- 기능성, 발효식품 등 5대 핵심전략식품 집중 육성으로 원료투입 비용대비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화 달성
 - '20년까지 R&D강화로 기능성 인삼제품 등 세계 스타상품 개발
- 식품기술과 IT·나노 기술 등과 결합한 융합기술 식품산업 발달로 이노베이션형 식품기업 성장으로 식품산업의 구조 고도화
 - 영세기업이 지식 창조형 중견기업으로 성장, 산업구조 변화예상



□ 식품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농어업의 구조 고도화를 선도, 경쟁력 제고

- 기능성 품종 위주의 경제성·계획성 있는 생산 체제로 구조변화 유도

□ 식품시장 성장 및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

- 국내 식품기업의 성장 등으로 '20년 15조원 규모의 매출 달성'
- 세계 TOP제품 및 기업의 등장으로 농식품의 수출증대('20년 30억불 수출)

⇒ ‘식품강국’으로 도약과 ‘풍요롭고 건강한 지구촌 미래’ 실현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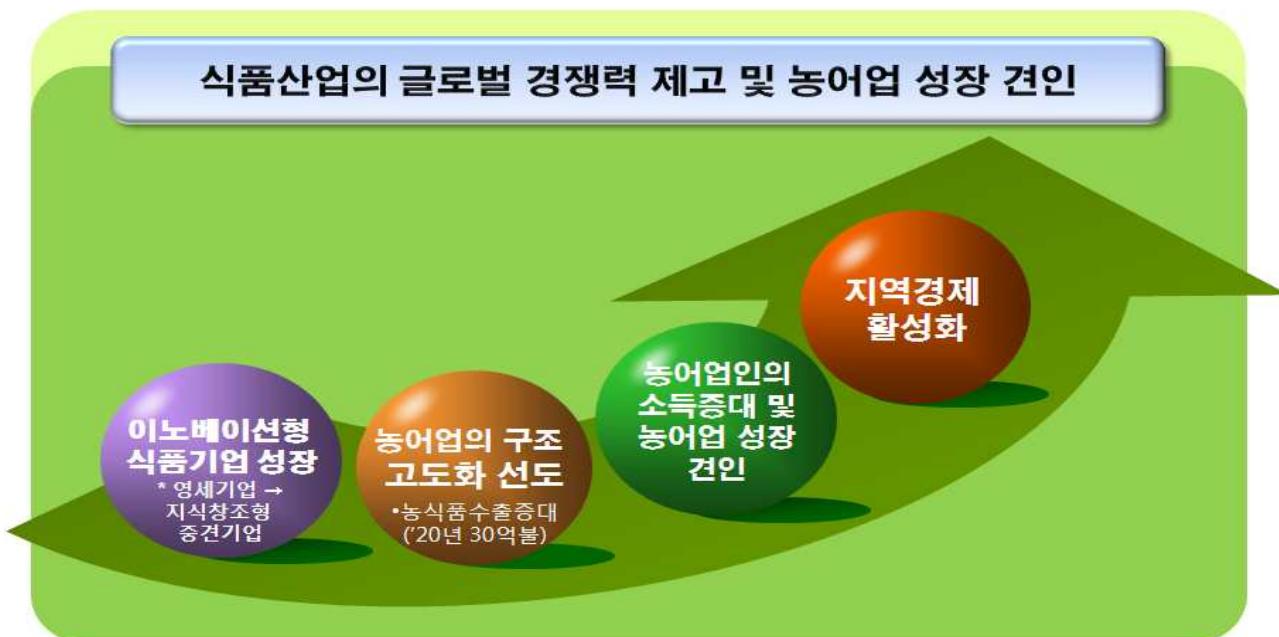
나.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 성장 견인

□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

- 산지와 식품기업간 원료조달 매칭 강화, 지역의 주산지 농산물 사용 확대 등 기능성식품 개발 등으로 농산물 판로 및 소득 증대에 기여
 -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중·소·대기업 150여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는 '20년 연간 약 900만 톤(매출 15조원) 규모
 - 이 중 농어업 연계 효과를 34%로 추정(한국은행)할 경우, 연간 약 5조원의 농업 생산유발 효과
- 특히, 농산물과 식품의 전시·판매·체험, 축제 등이 K-Food 브을 조성, 인지도 제고 및 판매·수출 촉진에 기여

□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업 성장 견인

-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산업의 발전은 농어업의 2·3차 산업화를 촉진, 농업의 성장 가속화
 - 특히, 기능성·바이오, 발효식품, 유기가공, 쌀 가공식품 등 5대 핵심 전략식품 기업 성장은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
- 품질안전센터운영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



다. 지역경제 활성화

□ 지역 고용창출

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명의 생산·전문·고급 인력이 필요
 - 상당수의 기업들은 전문적 생산인력을 지역에서 고용 전망

□ 물류·교통 등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산업 활성화

- 도로·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과 공항·항만 등 물류 시설의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2만명 이상의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·의료·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

□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

- 신선도 등 농수산물의 특성상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인접한 지리적 잇점을 활용 할 경우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처 확대
- 특히, 식품기업과의 계약재배 등을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판로 확보

<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산업적 효과>



② 경제적 효과

가. 직접효과(이노베이션 효과)

□ 의의

- 6대 HW시설구축과 10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(SW) 운영 등 기업 활동의 양적·질적 향상을 통한 이노베이션 효과
 - 클러스터 내 기업의 투자유발을 통해 창출되는 기업투자 효과도 포함

□ 추정경과

-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유사사례에 기초한 추정 방법사용
- (이노베이션효과) 입주기업들의 혁신활동에 의한 효과는 생산유발 12천억원, 고용유발 5천명으로 추정
- (기업투자파급효과)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 내 생산유발은 17천억원, 지역 내 고용유발을 8천명

나. 간접효과(건축 효과)

□ 의의

- 식품산업단지 조성과정인 건축·토목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 집행에서 발생되는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
 - 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하는 수요효과

□ 추정결과

- 산업연관표의 생산 및 고용유발 계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
 - 생산유발은 11천억원, 고용유발은 9천명

<경제적 효과>

(천억원, 천명)

		생산유발효과	고용유발효과
계		40	22
직접효과	이노베이션효과	12	5
	기업투자효과	17	8
간접효과		11	9

<참고> **경제적 효과 산출근거**(한국산업연구원)

□ 총괄

구 분	투자예정액(억원)	생산유발효과(억원)	고용유발효과(명)
합 계		40,810	22,096
직접	혁신 효과	2,417	12,454
효과		3,119	17,555
간접 효과	5,535	10,801	9,199

□ 직접효과

○ 이노베이션 효과

사업	투자액(억원)	생산유발액(억원)	고용유발규모(명)
혁신기반구축사업	1,531	3,567	1,542
기업지원서비스	216	503	218
연구개발사업	670	8,384	3,625
계	2,417	12,454	5,385

○ 기업투자 효과

조성규모	생산활동 소요면적	지역 내 생산유발액(억원)	지역 내 고용유발규모(명)
2,322,676 m ²	1,451,408 m ²	17,555	7,512

□ 간접효과

구분	투자액 (억원)	생산유발효과		고용유발효과	
		생산유발계수	금액(억원)	취업유발계수 (10억원당)	인원(명)
합 계	5,535		10,801		9,199
건축(H/W시설)	662	1.9928	1,319	20.9264	1,385
토목(산단조성)	3,119	2.0587	6,421	16.5654	5,167
장비(특수목적용)	410	2.2030	903	15.7703	647
사업관련서비스	1,344	1.6059	2,158	14.8773	2,000

<전제 조건>

- 전제1 : 232만 m²(70만평) 규모의 식품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
- 전제2 : 산업단지 총규모 중 62.5%가 직접 생산활동에 소요
- 전제3 : 지역내 기업투자의 경우 신규투자만 고려
- 전제4 : 사업기간 내 기업 입주 전제
- 전제5 : 부지당 종사자 수 원단위 0.005175명/m²

VI.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

1. 추진체계

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관리 추진 체계

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·운영을 위해 농식품부-지자체(전북·익산)-지원센터 간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
-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관계기관·전문가들로 구성된 (가칭)‘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’를 농식품부에 구성
 - * 구성(안) : 농식품부(식품산업정책실장)·전북(부지사)·익산(시장)·지원센터 관계관 및 외부 기관 전문가로 구성
- 사업추진과정에 발생하는 현안사항과 주요정책사항 등을 조정·조율하는 (가칭)‘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기관 협의회(총괄 식품 산업정책관)’를 구성·운영
 - * 구성(안) : 농식품부·전북(국장)·익산(부시장)·지원센터장 등으로 구성
- 아울러, 지자체(전북, 익산)는 배후복합도시(푸드시티)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(가칭)‘배후복합도시 조성본부’를 구성·운영
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단계의 제반 집행업무와 조성 후 관리업무는 ‘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’가 총괄기구로 하여 추진

<조성단계>

- LH공사(사업시행사와)의 국가식품클러스터(식품산업단지) 조성업무 지원
- 국내외 입주기업·연구소 등의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
- 지원센터·3대 R&D센터 등 기업지원 HW시설의 설계·건축 등

<조성완료 후>

- 식품산업단지 및 입주기업·기업지원시설 관리업무 총괄
 - 입주기업 입주절차 one-stop 서비스 제공 등
- R&D지원·인력양성·기업역량 강화 등 기업지원 S/W사업집행
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
- 배후도시(푸드시티) 식품체험·문화시설과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

< 추진 체계(안) >



②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체계

□ (관리권자)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임받아 관리권한 수행

-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는 통상 지식경제부장관이나,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산집법)」 제51조에 근거하여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기관 등에 위임·위탁 가능함
 - * 파주출판단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오송생명과학단지 보건복지부장관

□ (관리기관)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

-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통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, 산집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,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 2에 근거,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원센터를 통해 산업단지 관리 가능

□ (관리기본계획) 산업단지 지정 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

- 산업단지 관리자는 산업단지의 업종별 배치계획, 사후관리계획 등 관리업무 수행 * 수립 시기·내용 및 절차는 산집법 제33조에 준함

□ (관리업무) 산업단지의 유지·관리 및 입주기업·기관 활동 지원

- 산집법 제2조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용지 관리, 기반시설 유지 및 입주기업·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
- ※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위임 세부절차는 관계부처(기관)와 협의하여 추진

<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(안)>



2. 추진일정

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일정

가.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

□ (2012~2015)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조성

- 조성준비('12~'13) : 산업단지 지정 및 토지보상, 6개 H/W시설 설계
- 단지 조성('13~'14) : 조성공사, 원형지 개발 및 분양, 6개 H/W시설 건축
- 필요시 조성공사 완료지역은 입주기업 공장 건축 병행 추진
- 기업 건축('15~) : 6개 H/W시설 입주 · 운영, 입주기업 공장 건축 등
※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(2007~2011)

□ (2016~2025) 기업연구소 입주 및 운영 본격화

- 150개 식품기업, 10개 연구소 입주 및 본격 운영 * 필요시 단지확장



나. 배후복합도시(푸드시티) 조성

□ 택지지구(푸드시티) 조성 : '12~'16(목표)

- 조성준비('12~'13) : 택지개발계획 수립, 지구지정 등
- 택지조성('14~'15) : 조성공사 착공, 분양실시 등
- 주거시설 등 건축('15~) : 아파트 · 상업시설 등 건축, 입주

□ 푸드시티 내 식품문화 시설 · 테마공원 조성 : '15 ~

- * 전통 · 첨단식품 제조 체험 · 전시장, 8도 식품박물관, 지역문화관 등
- * 세계 5대 대륙별 · 주요 국가별 및 8 도별 특색을 테마로 한 공원(야외 박람회장)

② 관계기관 협조사항

□ 교통 인프라 구축과 주거 · 교육 · 환경여건 뒷받침 필요

-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, 새만금 신항만 조성 등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육 · 주거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
- 필요시 '관계기관 협동 추진 TF' 등을 통해 추진 가속화 및 추진사항 점검

분야	협조 내용	관계기관
식품산업문화도시 조성 (산업단지+배후도시)	▪ 식품산업단지 조성(LH) ▪ 진입도로 확장(지방도722호선, 군도 19호선) ▪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 ▪ 용수공급	국토해양부
	▪ 폐수처리장, 쓰레기 자동 차집 시설 등 ▪ 왕궁 등 인근지역 환경개선 추진	환경부
	▪ 신재생에너지 공급	지식경제부
	▪ 식품전문산업단지의 관리권한 위임	지식경제부, 농식품부
기업 이노베이션 지원 (S/W)체계 구축	▪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 ▪ 수출검역 · 검사 · 통관 통합사무소	관세청, 농식품부
	▪ 폴리텍 대학, 한국농수산대학 등을 활용, 식품인력 양성·공급	고용노동부, 농식품부
	▪ 외국인학교, 식품 특성화대학(발효·기능성 등) 신설(유치)	교육과학기술부, 농식품부
	▪ 농식품 모태펀드 · 기금 등 활용	농식품부, 지자체
	▪ 외국인 투자지역(FIZ) 지정 ▪ 투자유치 및 홍보	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, 문화관광부
투자유치		

③ 주요 사업별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

구 분		'11년 까지	'12	'13	'14	'15	'16	'17	'18~ '20	비고
식품 산업 단지 조성	산업 단지 조성	대상지선정								농식품부
		개발계획수립								국토부
		지정승인								LH 공사
		토지보상								
		조성공사								
		기업공장건축								기업
	6개 H/W 시설 구축	설립계획수립								
		설계								
		건축								
		운영								
10대 S/W 사업	기능성 R&D				세부계획수립					농식품부
	상품화 R&D									지자체
	네트워크 구축									지원센터
	수출거점기지화									
	수출시장개척									
	물류체계구축									
	농어업연계발전									
	6차산업화									
	인력양성·공급									
	기업역량강화									
투자 유치	투자유치									지자체
	홍보									(전북, 익산)
(정주 여건) 배후 도시 조성	개발계획수립									
	지정승인									
	토지보상									
	조성공사									
	아파트건축									

참고 1

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목표 및 효과

		2020년	
단지조성	조성규모	232만m ² (70만평) * 배후도시 126만m ²	
	기업입주(투자유치)	150개(연구소 10개)	
	선도(앵커)기업	15개	
	중견기업	85개	
	중소기업	50개	
기대효과	매출	150억\$ (15조원)	
	수출(매출의 20%)	30억\$ (3조원)	
	농어업 소득증대(성장견인)	50억\$ (5조원)	
	고용창출	22천명	
입주시설	기업지원시설	6개 H/W시설(`15) * 정부 건립	
	3대 특성화 대학, 기타연구시설	개별유치 추진	
중점추진 목표	애로해소	기능성식품 인정 등록 기간 단축	5년→2~3년
		식품안전성 검사기간 단축	14일→7일
		식품패키징 검사 단축	1/2단축
	고부가 가치화	스타기능성식품(Hidden Champion)	연 2개
		맛·향·식감 등 기호적 품질 관리	연 5개
		스타 패키징 제품 개발	연 5개
		5대 전략식품의 스타식품 개발	연 5개
	경쟁력 강화	글로벌 TOP100 진입 기업	5개
		중견기업의 대기업화	30%
		글로벌 식품테마파크, 4계절 축제	식품관광 명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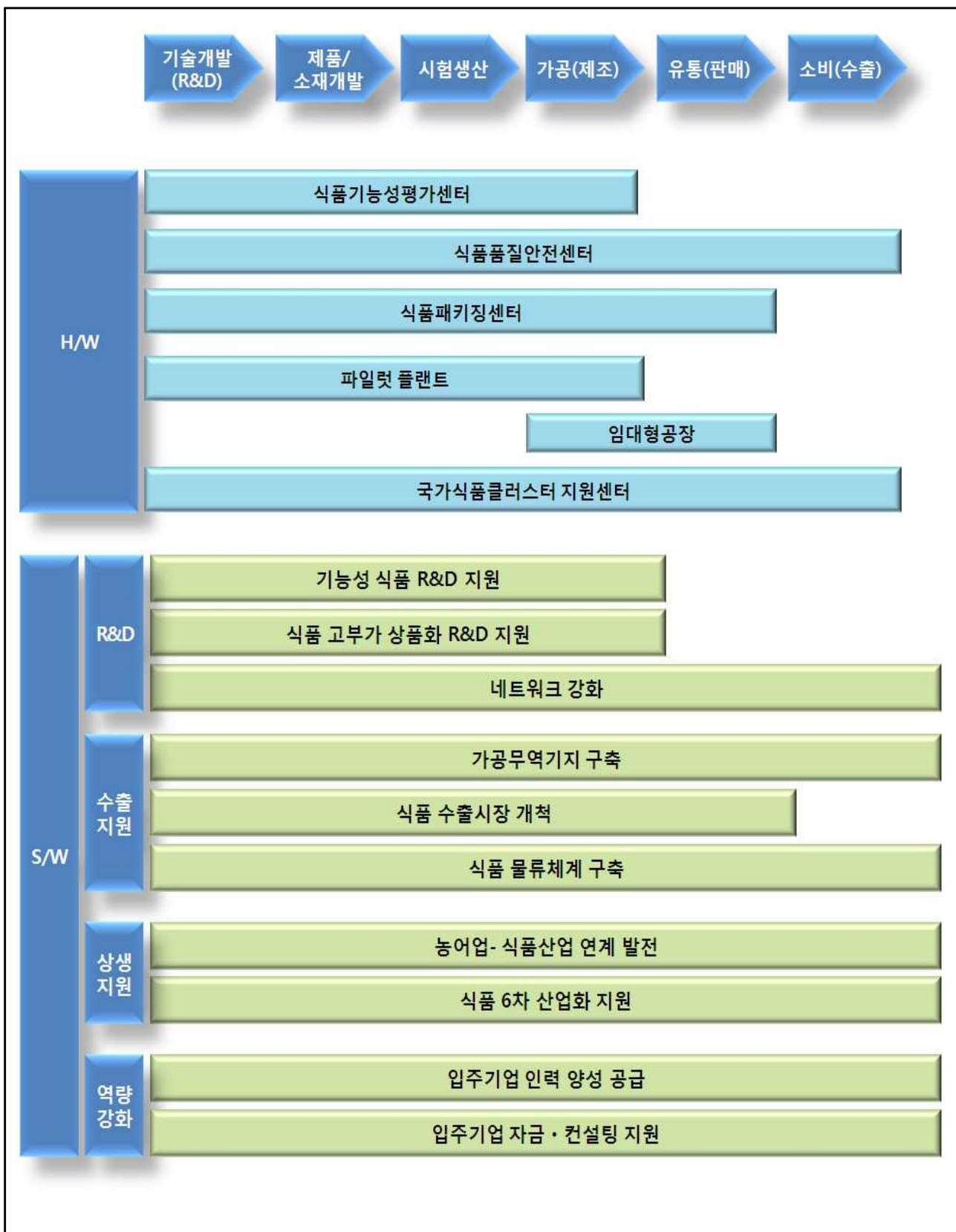
참고 2

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개요

구분	종합계획(안) 주요내용	
위 치	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	
조성 기간	2012~2015 * 준비기간 포함시 : 2007~2015	
부지 면적	계 358만㎡(108만평) 식품산업단지 232만㎡(70만평) * 주관 : 농식품부, 전북, 익산 배후단지 126만㎡(38만평) * 주관 : 지자체(익산)	
총 사업비	계 5,535억원 * 배후도시 조성비 제외 국 비 1,371억원 * 장비비 100%, S/W사업 70, 건축비 50 지방비 622원 * 부지매입비 부담 별도 민 자 3,542억원(산업단지조성 LH: 3,119, S/W사업 등 자부담:423)	
주요 사업	H/W사업 (6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구시설(3대 R&D센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·품질안전센터·패키징센터 ▪ 생산지원시설(2대 H/W시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파일럿 플랜트(Pilot Plant), 임대형공장 ▪ 종합지원시설(행정·투자유치·편의시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S/W사업 (10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고부가 R&D 및 네트워크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능성식품 개발 및 육성, 고부가 상품화 R&D지원 - 국내외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사업 ▪ 식품수출 거점기지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가공무역 기지구축, 수출시장 개척 - 입주기업 물류지원 체계 구축사업 ▪ 농어업 연계발전 및 6차 산업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어업-식품산업 연계 발전, K-Food 글로벌화 및 6차 산업화 ▪ 식품기업 인력양성·공급 및 역량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력 양성·공급사업, 입주기업 부담완화 및 역량 강화 지원 투자유치·홍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유치, 인센티브 발굴 및 홍보 	
토지 이용 계획	계 358만㎡ 산업시설 157만㎡(기업입주152, 연구시설 5) 기업지원시설 9만㎡(6개 H/W시설) 주거·상업시설 84만㎡(주거 79, 상업 5) 교육문화시설 18만㎡(교육 11, 문화 7) 기타시설 90만㎡(도로 38, 공원 22, 테마광장 11 등)	

참고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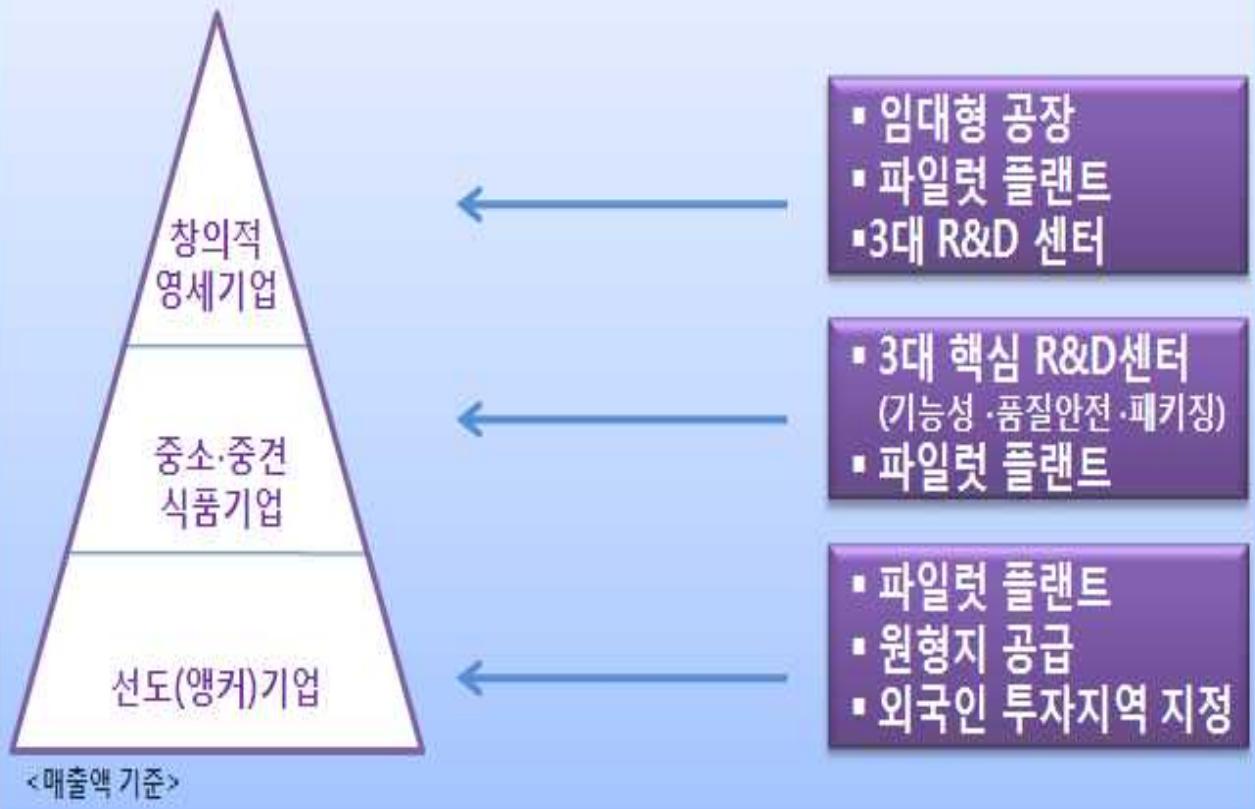
식품체계(Food Chain) 일관(One-Stop) 지원시스템



Food Chain지원방안

원료농산물 생산자

- 식품품질안전센터
- 식품기능성 평가센터



시장(내수·해외)

- 식품품질안전센터

소비자

- 식품품질안전센터

참고 5

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변경 검토(안)

□ 총괄

(단위 : 억원)

구분	계	국비	지방비	민자
계	5,535	2,026	743	2,766
산업단지 조성(시행자)	2,522	-	-	2,522
기업지원시설(H/W)	계	1,688	1,049	639
	건축	762	381	381
	운영	926	668	258
기업지원 프로그램(S/W)	1,325	977	104	244

□ 사업별 재원별

(단위 : 억원)

구분	사업명	계	국비	지방비	민자
사업비 총계		5,535	2,026	743	2,766
산업단지조성	식품산업단지(시행자)	2,522	-	-	2,522
H/W시설구축 (6개시설)	소계	1,688	1,049	639	-
	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	314	194	120	-
	식품품질안전센터	293	187	106	-
	식품 패키징 센터	159	109	50	-
	파일럿플랜트	269	232	37	-
	임대형공장	169	85	84	-
	클러스터지원센터	484	242	242	-
S/W 지원 (기업 지원 사업)	소계	1,325	977	104	244
	R&D/ 네트워크	기능성 식품개발	370	259	37
		고부가 상품 개발	500	400	-
		네트워크 강화	56	39	17
	식품수출 /농업 연계	수출기지 및시장개척	120	84	12
		농어업연계	50	35	5
		6차 산업화	50	35	15
	역량강화	인력양성·공급	71	50	7
		기업역량 강화	108	75	11
					22

□ 분야별 연차별 투자계획(안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
계	5,535	26	128	1,535	1,542	841	290	402	252	253	266
산업 단지 조성	2,522	-	100	1,216	862	344	-	-	-	-	-
H/W구축 · 운영	1,688	26	28	319	680	375	119	141	-	-	-
기업지원(S/W)	1,325	-	-	-	-	122	171	261	253	253	266

* 일부는 추후 재정당국과 협의 계획, 상세내역은 별첨 참고자료 참조

참고 6

국가식품클러스터 중장기 발전방향(안)

○ 중장기 비전 및 전략

구분	비전 및 발전 전략	단계별 공략 대상
2020 ~ 2025 (단기)	식품산업위상	동북아 허브 및 세계시장 중심 도약기반 마련
	클러스터비전	R&D기반 수출지향형 식품클러스터 구축
	타겟지역	일본·중국·동남아 시장 공략
	전략	식품 물류기반 구축, 아시아 프리미엄 전략 - 기능성식품 등 고부가 R&D 집중
2030 ~ 2035 (중기)	식품산업위상	식품수출 Global Top 10
	클러스터비전	식품클러스터 글로벌 리더 진입
	타겟지역	중동·남미·인도·아프리카 시장중점 공략
	전략	새만금 식품 물류허브 구축, 신흥시장 강화 - 식품 연관산업(IT·BT·NT)과 R&D 강화
2050 (장기)	식품산업위상	식품수출 Global Top 7
	클러스터비전	식품클러스터 글로벌 리더 위상 강화
	타겟지역	유럽·북미 등 프리미엄시장 확보
	전략	브랜드 리더십 확보, 세계시장 하이엔드 전략 - IT·BT의 융합기술 분야 독보성 확보

<A.T. Kearney 용역보고서, '12.7>

○ 전제 요소

구분	2010년	2020년	2030년	2050년
세계 인구	68억명	76	83	91
세계 1인당 소득	7.5 천\$	9.4	12.1	20.0

